

제6회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향토인물 연구

-<아천군 이 증>-

일시 : 2001. 12. 11(화) 10:~16:30

장소 : 주택전시관 대강당

주최 : 성남문화원

주관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목 차

제 6 회 학술회의 -아천군 이 증 연구발표

등록 : 09:30-10:00

□ 開會式 ----- 謹啟 : 한준섭, 성남기능대학 (국문학)

개회사(10:00-10:05) ----- 남선우 원장
격려사(10:05-10:10) ----- 김병광 시장
축 새(10:10-10:15) ----- 박용우 의장
축 새(10:15-10:30) ----- 이성우 국사면한 위원장
축 새(10:30-10:35) ----- 이일규 한신이씨 대중회 이사장

----- (10:35-11:00) 休 息 -----

□ 申術 發表 ----- 座長 : 지교현, 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문화학)

▶ 주제발표 1(11:00-11:50) "선조조 정치세력의 통행과 이 증의 활동"

발표 : 잠은경 (대진고교 + 힘보문화 연구위원 / 한국사)

토론 : 백남숙 (한서예술대학 / 한국사), 전화숙 (경원대학교 / 한국사)

----- (11:50-12:00) 中 食 -----

▶ 주제발표 2(13:00-13:50) "이 증의 한시 연구"

발표 : 박순임 (상명대학교 / 국문학)

토론 : 김동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문학), 한준섭 (성남기능대학 / 국문학)

▶ 주제발표 3(13:50-14:40) "이 증의 생애와 사상"

발표 : 박경용 (역사문화연구소장 / 한국사)

토론 : 문수진 (신구대학 / 한국사), 이연복 (서울교육대학 / 한국사)

----- (14:40-15:00) 休 息 -----

▶ 주제발표 4(15:00-15:50) "한신이씨 본종 검토"

발표 : 고혜령 (국사면한위원회 연구관 / 한국사)

토론 : 이정복 (전 한양대학교 / 철학), 조별로 (경기대학교 / 한국사)

□ 総合 討論 ----- 座長 : 전보상, 신구대학 (문화학)

(15:50-16:30)

토론 : 조유천-국립문화재 연구소장

최충민-국립극장 창극단장

김기빈-한국토지공사 연구원

박종민-온양면속박물관 연구원

서승길-경원대학교 역사학

한동억-합동시가

이판구-성남 시의원

김주홍-토지박물관 학예사

정경숙-대동역사기행 대표

고영하-분당일주 차 대표회장

윤진영-한국전신문화연구원미술사연구원

향토문화연구소 연혁

- 1993 성남문화원(부설) 향토문화연구소 개소
1대 소장-이창열(문화원장 겸직)
94 <성남문화연구> 제1호 발간
2대 소장-이형하(문화원장 겸직)
95 <성남문화연구> 제2-3호 발간
96 <성남문화연구> 제4호 발간
- 제3대 전보삼 소장 취임
제1회 국제학술회 개최-“남한산성의 현대적 재조명”
97 제2회 국제학술회 개최-“남한산성과 3학사”
98 - 제4대 한준섭 소장 취임
제1회 학술회(향토인물 연구-둔촌 이 삼, 여 유문화 강정일당)
<국어 정일당 읍고> 전면부 발행
99 <성남문화연구> 제5호 발간
제1회 토론회(송산 조 전 인물연구)
- 제5대 조명로 소장 취임
제4회 학술회(향토인물 연구- 백현 이경석, 금릉 남궁철)
2000 <성남문화연구> 제6호 발간
제5회 학술회(향토인물 연구- 문정공 한계회)
01 <성남문화연구> 제7호 발간
- 제6대 백남옥 소장 취임
제6회 학술회(향토인물 연구- 아천군 이 증)

<추모시>

청사(青史)에도 눈 부셔라

울산학인(栗山學人)

영장산 기슭아래 아담한 사우(祠宇)에는
역사에 크신 어른 모셔진 끗이어니
경건한 마음 속 모아 한결같이 추모하세.

학문과 덕행으로 대를 이은 가문에서
정성껏 잘고 닦은 인격과 배움으로
그 이름 금방(金榜)에서도 거듭거듭 빛났도다.

사도(四道)의 관찰사로 뒤에선 교화(敎化)미고
나라의 어려운 일 슬기롭게 다스려서
아천군(鵝川君) 온 누리 평성, 청사에도 눈부셔라.

임진년 난리 속에 사라진 현장(憲章), 법규(法規)
예조(禮曹)의 수장(首長)으로 찾아내고 다듬어서
다시금 큰 방자취로 뚜렷하게 남기셨네.

굳은 일 도맡아서 중용(中庸)을 지키실 때
괴육과 창빈으로 외연(毅然)했던 생매밀레
영상(領相)에 부원군(府院君) 호침 사치스런 허용일세.

<북애집>(北崖集) 유고 속에 번득이는 시문(詩文)들은
오늘도 주옥(珠玉)으로 아름답게 빛납니다
부조묘(不祧廟) 송모문(崇慕門) 뜨락 영복 무궁 하오소서.

주제 발표 1

宣祖朝 정치세력의 동향과 李增의 활동

발 표 : 정은경(대진고교, 한국사)

토 론 : 백남욱(동서울대학, 한국사)

천화숙(경원대학교, 한국사)

宣祖朝 정치세력의 동향과 李增의 활동

鄭 銀 景 (대진고교, 한국사)

1. 미리 말

선조조는 사립파가 훈구파와의 정쟁 끝에 정국의 주도권을 잡은 뒤, 그들 내부에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또 다른 분파과정이 끊임없이 진행되던 시기였다. 선조 8년에 심의겸과 김효원의 갈등이 계기가 되어 등·서 分당이 이루어졌고, 이로부터 남·북·소북·대북 등으로 계속 갈라졌다. 선조조에 벌어진 정권장악을 둘러싼 각 당파간의 치열한 경쟁은 조선시대 정치체계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예기에 대해서는 이미 학제에서 당쟁 혹은 봉당정치라는 시각에서 논쟁이 계속 진행되어왔다.¹⁾

본고의 주제가 되는 李增은 바로 이 시기에 활동했던 인물이다. 따라서 그 정치역정은 당파와 관련을 맺지 않을 수 없었다. 이중은 명종 말기 宜階에 임명하여 선조 33년 사망할 때까지 여러 정치 파벌과 임관체계를 품소 쥐었다. 그가 활동했던 시기에 당파가 결성되기 시작하여 분파되는 과정이 연이어져서, 그는 당파에 관한 정권다툼의 한 가운데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한산 이씨인 李增에 관한 선형연구는 천부한 실정이다. 남아있는 자료도 유고인 「上

1) 이 시기 정치형태를 대체로 다음 두 가지 시각에서 규정하고 있다. 첫째는 불당정체론이다. 이는 서민사관의 극복이란 대량제를 갖고 당시의 정계의 정치적 후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의 활성화를 초래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이다. 둘째로 당쟁론이다. 서민사관의 극복이란 때문에 진정한 역사상을 찾을 수 없다는 시각을 바탕으로, 조선후기 정치형태를 봉당정치라는 블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당시 정치세력에 봉당이라는 소규모의 그룹이 아니라 하나의 당파를 지을 정도의 규모였기에 당쟁으로 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대비하는 학제의 관심이 끊임없이 급증되었다. 선조시기 정치세력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는 유익한 내용과 같다.

구덕희, 「선조대 후반(1594-1628) 정치세력의 재편과 정국동향」, 『한국사론』 20, 서울대 국사학과, 1986.

김형수, 「선조초년의 신구갈등과 정국동향」, 『국사관논총』 34, 1992.

남달우, 「영조대의 왕권과 대간연군-선조죽위년(1587)부터 김진해란(1591)까지」, 『역사학회 제33회 발표』, 1995. 11.

이 책 봉당정체론과 사립정치에 관한 논문들 중에서 일부분 선조대의 정치세력에 대해 언급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최이돈, 「16세기 당관전파 성향과 봉당정치」, 『규장각』 12, 1989.

최이돈, 「16세기 꿈든정치의 형상과정」, 『국사관논총』 34, 1992.

정만조, 「조선시대 불당문파 전개와 그 성격」, 『조선후기 당쟁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이설우, 「사립과 사립정치」, 『정계사학』 8, 정계사학회, 1991.

또한 선조대 가장 커다란 정치세력의 변동을 초래한 기축육사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이 있다.

제동수, 「정파집연구-질적사적 의미와 사상을 중심으로-」, 관국대 학사학위논문, 1999.

『崖詩稿』와 『조선왕조실록』에 故見되는 몇몇 기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의 역사적 위치를 상정하기에는 많은 애로점이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역사 속에 묻혀있던 이중이란 인물을 새롭게 발굴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지금까지 당쟁에 관한 연구가 각 당파간의 대립구도와 정국운영의 주도권 장악이란 커다란 이론적 틀에 초점이 맞춰져다보니,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물들에 의해 당파가 형성되었는지와 그 개념파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별 인물연구가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시 각 당파에 속한 많은 인물들은 정치의 향방에 따라 당색을 바꾸는 일이 비일비재하였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당파의 형성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당시 인물의 개인적인 활동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해 역사 속에 묻혀있었던 이중이란 인물을 새롭게 발굴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중의 정치적 역할을 통해 당시 정치세력 형상의 일면을 밝혀내고 대립양상에 따른 각 당파의 동향을 이해하는 데에 일조가 되었으면 한다.

당시 당색이란 “당론을 승상한다기보다는 父兄 때의 씨어기를 이어받거나 혹은 벗들의 인정을 받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인데, 한번 이렇게 구별이 되고 보면 그 구덩이에서 물을 배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드릅니다”²⁾라고 하였다. 모든 정치세력은 각 당파에 속해 있었으며, 당색은 학파와 가문이란 두 개의 주요한 요소에 따라 형성되어갔다. 한번 당색이 결정되면 임의로 바꿀 수 없었던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것은 당파가 확립된 이후의 당색을 말한 것이다. 이중에 관한 연구를 통해 당파 형성 초기인 선조시기에 두 요소 중 특히 문중이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정도었는 지도 아울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2. 李增의 생애와 韓山 李氏

1) 이중의 생애

이중은 한산이씨로 총총 20년에 李穡의 6세손인 李之淑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慸度가 남달랐으며, 문장이 능해 回龍문로부터 추앙을 받았다. 후에 관직에 나아가서는 뛰어난 문장 실력으로 항상 知製敘를 겸직하였다.³⁾ 1549년(명종 4)에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이어 1560년(명종 15년) 9월 28일에 世子冠禮入學 別試에 丙科로 급제하였다.⁴⁾

2) 『효종실록』 권4, 1년 7월 갑인: 영의정 李敬周의 차자중에서.

3) 『國朝人物考』 「李增 諱名」.

4) 『國朝榜目』 권4, 명종조.

승문원 정자부터 시작하여 사간원·사헌부·홍문관의 여러 직책을 두루 지냈으며, 이어 1573년 이조경랑·동부승지 등을 거쳐 정 3품 通政大夫로서 외관직인 여러 도의 관찰사의 직책을 세수받았다. 1585년에는 종 2품인 嘉善大夫에 이어 嘉義大夫가 되어 6조의 참판과 부제학·대사간을 거쳤고, 기축육사 때의 공로로 평난공신 3등에 책록되고 鹵川君에 봉해졌다. 정 2품인 資憲大夫·正憲大夫을 지내면서 행조·예조·공조판서, 좌·우참찬을 역임하였다. 사후에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이중이 국가의 주요부서를 역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과 인물됨이 인정받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처음으로 관직에 진출한 부서가 조정의 공론을 형성해나갈 수 있는 準職인 연관직이었던 사실은 이를 반증한다. 홍문관겸자로 제직할 때는 權奸에 의해 北道許事에 좌천된 적도 있을만큼만 무엇보다도 사람됨이 정직하여 아첨을 모르는 성품을 지녔다. 임진왜란 당시에 예조판서로 제직 중이었는데, 규칙이나 趕籍들이 모두 소실되어 公私를 상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각종의 예식을 講定하고 없어진 책을 찾아 모으는 작업을 수행하여 주위로부터의 성실성을 인정받기도 하였다.

그의 성품은 溫號에서도 드러난다. 시호를 제정하기 위해 太常이 시호로 慶簡·莊靖·植楨 3가지를 올렸는데, 일금이 낙첨한 것은 慶簡이다. 은유하고 어질고 착한 것이 墓道, 정직하고 간사하지 않은 것이 墓이니 그의 성품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녀교육에서도 성품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중자인 참관공이 장령이었을 때 당시 조정내에 친언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배척당하는 혼란한 상황에서, 아천군은 임금을 섬기는 대의를 엄정히 타일러서 참관공이 제대로 서비스를 가려 친언하도록 하였다.⁷⁾

그의 정치활동에서도 그러한 성품은 그대로 드러난다. 선조 7년에 승지로 제직할 때에 사간원에서 청충부사 朴昌元의 체직을 요청하자, 당시 신옹시·정지연과 더불어 박신원이 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청을 하니 이를 入路하면 오히려 임금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하여 사간원의 관리를 물리쳤던 일이 있었다. 당시 대사간은 서인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인 손씨였다. 이 일에 대해 양사에서는 충자들이 간행하는 신하의 말을 저지할 뿐더러 자신의 뜻을 아뢰기까지 하였다 하여 추고를 요청하였고, 결국 이중은 이 일로 파직되고 말았다.⁸⁾ 이 사건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정언 죄향과 지평 민순은 박신원이 원오방종한 사실을 거론하지 않고 심하지 않은 별만을 들어 제직시키려고 한 간관들은 제직시키지 않고 승지를만 제직시킨 것은 잘못된 일이며, “승정원의 공론이 이미 나온 뒤에도 간관들이 오히려 항의하고 변명만 하고 引嫌할 줄은 몰랐으니 그들이 사정을 껴고 속이는 정상이 나타난 것이라”⁹⁾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홍문관에서는 이들의 주

5) 「忠厚遺稿」、「鵠川君公諱狀」。

6) 九卿 가운데 하나로, 종묘의 피직을 맡는 예관을 말한다.

7) 「太常遺稿」、「鵠川君公諱狀」。

8) 「선조실록」 원조, 7년 8월 갑진. 이중은 얼마 있지 않아 그 해 10월에 천라감사로 제수되었다.

청이 너무 지나친 것이라며 이들의 체차를 요구하여 결국 이들마저 체차되고 말았다.¹⁰⁾ 이 사건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이중은 당색에 구애받지 않고 시비를 공명정대하게 가려서 일을 처리하고자 하였다. 비록 승경원의 승지와 삼사와의 길항관계인 정치구도 속에서 그러한 의도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으나, 혼란한 청국속에서도 나름대로 정치적 소신을 지니고 활동했던 인물이었음에 틀림없다.

또한 이중은 백성을 위하는 위민정신이 투철하였다. 다음기록은 그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전란 중이라서 비록 武人을 수령에 제수하였으나 백성들이 매우 고통스럽게 여깁니다. 적이 물러가기를 기다려 무언을 채찍시키고 백성을 사랑하는 온화한 사람으로 차릴 하는 것이 매우 합당하겠습니다.¹¹⁾

위 사표에서 알 수 있듯이, 백성을 직접 다스리는 수령직에 부당한 인물이 임명되자 전쟁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위민사상은 예조 판서로 채찍시에 전쟁과 기근, 계다가 수재까지 겹쳐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과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관찰사진 사례¹²⁾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벼슬하기 전에 집이 가난하여도 부모님께 반드시 맛있는 음식을 갖추어드렸고, 자신의 생일 때에는 출자리 대신 부모님 기리기에 칭.Setup을 다했다고 한다. 節日이 돌아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몸소 섬묘하였고 부모님과 나라의 기업이 되면 항상 몸을 삼가고 근신하였으니,¹³⁾ 그의 효성과 충성심이 지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벼슬이 頤生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편소한 모습이 마치 布衣로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청렴결백하였다. 관직의 진퇴에 구애받지 않아서 세 번 祭酒가 되었으나 모두 나가지 않았으니, 공명심에 들뜨지 않는 참된 관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중은 벌연가문을 배경으로 출세하는 인물형이 아니라, 몸소 충효사상과 애민사상을 지니고 꾸준히 자신을 성찰함으로써 혼란한 정치판도 속에서도 時勢에 휩쓸리지 않는 관료의 길을 지켜나갔다고 판단된다.

9) 『선조실록』 권8, 7년 8월 음사.
 10) 『선조실록』 권8, 7년 8월 출사: 8월 행오.
 11) 『선조실록』 권35, 20년 2월 기축.
 12) 『선조실록』 권52, 27년 6월 27일 강승.
 13) 『北漢遺稿』 「鷺川君公議狀」.

2) 한산이씨와 이중

조선시대는 개인이 속한 친족공동체의 위치가 중요한 사회였으므로, 이중의 활동에 대한 보다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이중의 가문인 한산이씨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산 이씨의 시조는 尤肅이다. 이유경은 고려 숙종 때 지방호족으로 군지호장직에 있었으며, 그의 7세손 이색은 원나라에 들어가 파거에 급제하여 한림원의 관직에 등용되었다가 귀국하여 대사성·대제학·지공거·문하시중 등 묘직에 수차 등용되었고, 1362년(공민왕 11)에 흥전적난이 일어나자 임금을 호종하여 공을 세워 한산부원군에 봉해졌으므로 본관을 한산으로 하였다.

한산이씨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많은 인물들을 배출한 族이었다. 특히 선조 시기에는 들어서 경계에서 활동하였던 한산 이씨 문중의 대표적 인물들로서는 李增, 李山甫, 李山甫, 李德潤¹⁴⁾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이중과 이산해, 이산보는 당시 정국을 주도할 만한 재상의 반열에 있는 인물들이어서 그들의 정치적 향방은 곧 정국을 좌우할 정도였다.

이산해는 이중보다 1년 늦은 1561년(명종 16)에 千秋式年試에서 급제하였다.¹⁵⁾ 1578년(선조 11)에 대사간에 이르러 서인 유후수·유흥수 등의 죄를 단핵하여 파직시켰던 등 인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서경덕의 문인인 이씨합회 조카이자 제자로서 서경덕의 학문적 전통을 계승했고, 文章 八家라 일컬을 만큼 뛰어난 문장가이기도 한 그는, 정인홍·홍이순·이발 등의 지지를 바탕으로 기축옥사 이후 북인세력의 영수로 정국을 주도했다. 1600년 영의정에 올라 大北의 영수가 되었다.

이산보는 1567년(명종 22) 사마시를 거쳐 1568년(선조 1) 6월 16일 四位別試에서 丙科로 급제하였다.¹⁶⁾ 해미현감·청언을 지낸 뒤 이조정랑·사인·길희·대사헌을 거쳐 1589년 기축옥사가 일어나자 대사간으로 난국을 수습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 때 대사간·이조판서를 역임하였고, 명나라 원군이 당도하였을 때 군량이 떨어지자 황명으로 都檢察使가 되어 삼남지방에 내려가 군량을 수집하여 위기를 면하게 하였으며, 1594년 대기근으로 인한 피해를 수습하던 중 파로로 순직하였다.

선조 시기는 각 당파간의 대립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여, 각 정치세력의 복잡한 이합집산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치상황에서 한산이씨의

14) 이덕형은 1596년(선조 29) 정시문과에 출과로 급제하여 감별, 병교 등을 역임하였다. 이덕형이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한 시기는 선조 때로서, 1623년 인조반정 때 도승지로 인목대비에게 반정을 보고하고 농양군에게 머리를 내리게 한 인물이다(『인조실록』 권1, 1년 3월 계묘). 후에 혈조판서·외금부판서 등을 거쳐 우찬성이 되었다. 그의 정치활동기는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이중의 활동시기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덕형에 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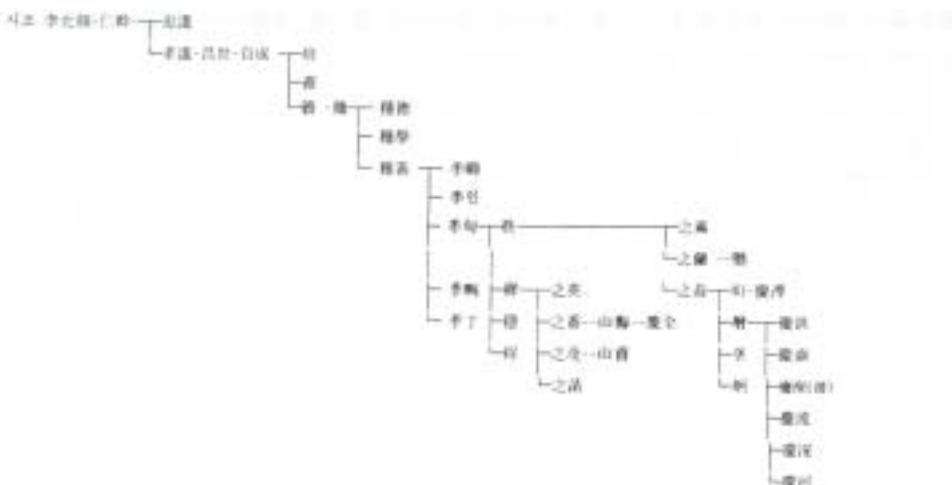
15) 『國朝博日』 권4, 明종조

16) 『國朝博日』 권4, 선조조

각 인물들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지닌 채 활동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정치적 성향을 고찰해보면 당시 각 당派를 형성하는 기준으로서 문중이 어느정도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중의 정치적 성향도 해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먼저 이충과 이산해의 관계와 그 정치적 성향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충은 다음 <표 1> 아천군 世系圖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산해와 재종형제간이다.

<표 1> 아천군 이중의 世系(世系)



이처럼 매우 가까운 친척지간이므로 이종과 이산해가 같은 동인세력으로서, 정치적 임장을 공유하였으리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추론에 맞게 이종의 행적을 추적해보면 이산해의 관직의 韻牒의 흐름에 따라 이종의 관직행로가 영향을 받고 있어서 서로 조용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예는 선조 20년 조현이 올린 상소에서 확인된다.

성종조 신하에게 董越이 말하기를 그대 나라에는 임금은 있으나 신하가 없다 하였습니다. …… 그런데 미산해가 한번도 듣지 못하였다면 이는 귀와 눈이 없는 것이고 알고서 고치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爵父를 저버린 것입니다. 귀와 눈이 없는 죄는 가볍고 임금을 저버린 죄는 크니, 신이 李驥의 후손(밀줄-필자)에 대해 단식하고 통한하는 까닭입니다.¹⁰⁰

당시 서민계열의 조현이 동인계열의 이산해를 비판한 상술이다. 이 글에서 이산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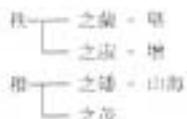
¹⁷⁾ 「韓山 李氏韓牛君源社譜」, 『蠶溪遺稿』에 근거하여 작성함
¹⁸⁾ 『선조수정회록』, 권21, 30년 12월 10일; 『重纂集, 二歲(十二月 全州捉鴟時)』

인의 차원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이색의 후손, 즉 한산 이씨 문중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확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본다면 같은 한산이씨의 인물들은 모두 이색의 후손으로서 같은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즉, 한산이씨 인물들은 이산해의 동인계업, 후에 북인계열로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후하였다.

그런데 조현 상소의 마지막 부문에는 앞으로 채구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서술하는데, 여기에서 “홍성민, 이준민, 한자유, 이중, 이산보, 이해수 등 閩雅에 종사하는 자를 물려서 諸臣의 계책에 의하여 토론하고 은색해서 調柔의 솔책을 잘 할 것이며”¹⁹⁾라고 하여 채구침입을 대비하기 위한 적책에 적합한 인물로 이중 등을 천거하고 있다. 조현은 공주의 教授로 제적시에 생원 이귀와 함께 자주 상소를 올려 스승인 이이의 원통함을 간하였을 정도로²⁰⁾ 당색에 철저한 인물이었지만, 이 상소에서는 당색의 입장에서 벗어나 적관적이고 광장한 입장에서 이중·이산보의 능력을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쯤 역시 평소 조현과 그다지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다. 월번 뒤의 일이기는 하지만, 임진왜란 당시 서인인 정월의 무리로 지목되어 파직된 철 의주목사 김여물이 명나라에 賦端을 일으켰다는 죄목으로 외금부에 회부된 일이 있었다. 조현은 당시 혈조판서였던 이중에게 편지로 김여물의 구명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중은 따르지 않았다.²¹¹⁾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중과 조현은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이중과 이산해는 동민계열에 속하며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였다. 후에 동인이 서인 정철에 대한 처벌문제를 두고 강경·운건파로 나뉘면서 남·북인으로 갈라지게 되자, 이중은 이산해와 같이 북인계열에 속하였다. 후에 발간된 북인의 계보를 정리한 『北譜』 22를 살펴보면,



와 같이 두사람 모두 북인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처럼 당시 한산이씨의 제종형제자간이라는 유훈의 가까운 친척관계를 바탕으로 이종은 이산해와 같은 북인세력으로 편입되어 경치활동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형설에서 학파 뿐 아니라, 문중의 영향이 지대하였다는 점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 또한 북인 계열의 주요한 기반이 성리

100 쪽과 같은

20) 「蘇謙通略」，卷五。

21) 「선조수장설록」 권20, 25년 1월 일술.

223 「朝鮮滿州關稅資料集」17, 「北道」, 미강술관사, 84쪽. 여기에서 미산포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학의 학과보다는 친인척관계를 비롯한 주변인물로 구성되는 특색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이중의 교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다른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이중의 사후 여러 사람이 그의 祭文을 지었는데, 海院府院君 尹斗壽, 驪城府院君 李恒福 史曹判書 具思孟, 知中樞 尹自新, 知中樞 李齊闔, 海平府院君 尹根壽 등이요, 이외에 領中樞 崔興源, 좌의정 李憲國, 諫刺書 柳根, 燕山君 朴忠貽 등이다. 이를 가운데 윤두수·이항복·구사명·윤자신·이계민·윤근수 등은 모두 서인세력이다. 물론 당시 관계에 오랫동안 끌어 둘당고 있다보니 가깝게 지내온 탓이기도 하지만, 반면 이중이 서인과의 친분관계가 매우 밀접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국조인물고』에서도 나타난다. 국조인물고는 조선시대 인물 2,091명의 전기를 담고 있는 巨帙의 책이다. 이 책은 많은 인물을 정리하면서도 당과성을 강하게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책의 내용 가운데 '牛栗從游親炎人'이란 항목이 있는데, 이는 우계 성흔과 유희 이이로부터 훈도를 받은 사람들을 별도로 취급하여 실은 부분이다. 즉 우계·유희 학파를 정통으로 간주하는 서인족의 입장을 강하게 대변해주는 것이며, 18세기 초업을 다루는 대목에서는 노론의 입장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서인족의 인물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²³⁾ 그런데 그 '牛栗從游親炎人'의 항목에 바로 이중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이중은 북인계열에 속하면서도 우계나 유희의 훈도를 받은 탓으로 학문적으로는 서인계열에 보다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산보의 정치적 성향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산보는 이산해와 종형지간으로 매우 가까운 친척관계이다. 그러나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이산해와 더불어 같은 정치적 입장에 취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동민인 이산해와 달리 서민의 입장에서 정치에 참여하였다.²⁴⁾ 다음의 예는 이산보가 서인세력의 입장에 서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선조 18년에 선조가 당시 이산보와 김우옹(동인임-필자)이 참여한 경연에서, '이이와 유설률이 서로 배척하였다는 것을 말하자, 동인세력이었던 김우옹은 이미가 심의겸과 교분이 두터웠음을 아뢴 반면, 습지 이산보는 이를 부인하였다. 또한 김우옹은 정철이 심의겸과 서로 교결했다고 아뢰는 반면, 이산보는 그렇게 두터운 사이가 아니라고 항변하자, 김우옹은 이산보가 경찰과 교분이 두터워 일찍 앞에서 정철의 악을 감추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또한 김우옹은 정철 선옹시 등이 조정을 탄란시켰는데, 선조가 이산해를 鉉長으로 삼아 위임하셨기에 그들의 방자한 행동을 막을 수 있는 것이며, 정철이 사귀는 군소배들이 이산해를 배척하고 있다고 아뢰었다. 이에 이산보는 이산해를 비난하는 사람들

23) 민현구, 「국조인물고 해제」, 『국역국조인물고』,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4) 배동수 역시 이산보를 서인세력으로 파악하고 있다(『鄭汝立 研究 -政治史的 意味와 思想을 中心으로-』, <표III-3> 정여립 사건 전후 중앙관직 주요인사 현황, 99쪽).

이 많으니 체적시켜 달라고 아뢰기에 이르렀다.²⁵⁾ 이이나 정철, 심의겸은 대표적인 서인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산해와 같은 동인이었던 김우옹은 경연자리를 빌려 임금에게 서인 세력에 대한 비판을 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경연에 승지로 임시해 있던 이산보는 끝까지 이이와 정철을 비호하였고,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물의를 일으킨 이산해의 체직까지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산보는 「國朝人物考」에서도 성흔과 이이의 훈도를 받았던 ‘牛東從微親炙人’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서인세력에 보다 가까웠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그는 이산해와 증형지간이므로 이증보다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北譖」에서는 그의 이름을 발견할 수가 없다. 즉 이산보는 당색을 달리하였던 것이다.²⁶⁾ 이에 비해 이증은 북인계열에 속해있으면서도 서인과의 친분관계가 돋독한 중도적인 인물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이산보의 경우와 같이 한 문중에 속해 있으면서도 당색을 달리하는 인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당색은 문중이란 혈연적 관계 뿐 아니라, 주자학이 국가지배사상으로 자리잡으면서 학통이 중시되어 그 師友관계에 따라 형성되었다. 즉 학파와 문중의 두 요소의 相補로 당색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다만 여기에서는 한점적인 의미에서 나마 당색 형성과정에 문중이 끼친 영향력의 정도를 한산이씨의 예를 통해 살펴보자 한 것이다.

물론 선조대의 한산이씨의 통향만으로 문중과 당색과의 관련성을 결론짓기에는 성급한 면이 있다. 이산보의 활동시기는 당과 혈성의 초기에 해당하는 시기여서, 당파와 의식과 관념이 완벽하게 갖춰져 代를 이어서도 계승되는 전고한 틀이 확립되기 이전이었다는 시기상의 문제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산해가 주도하는 북인계열의 구성인물을 살펴보면, 구성원이 매우 다기하여 사회·경제적 기반의 차이가 많고 학문적 전통 역시 약하였다. 그 기반이 약했으므로 지지세력의 결속력도 약했고 대부분 이산해가 정국을 주도할 때 引進된 사람이거나, 필요에 따라 공동보조를 취했던 사람들이었다.²⁷⁾ 이러한 북인계열의 구조적 특성도 이같은 결과의 요인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 여러 요인들을 감안하여 이증과 한산이씨의 정치적 통향을 살펴보았을 때, 아직 선조대에서는 문중이 당파형성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25) 「선조실록」 권18, 18년 1월.

26) 「國朝人物考」 下卷, 49回譜, 96쪽.

27) 「선조실록」 권25, 24년 7월 음축.

28) 具德會, 「宣祖代 후면(1594-1608) 政治體制의 变遷과 政局의動向」, 『韓國史論』 20, 서울대 국사학과, 1988, 228쪽.

3. 선조대 정치 세력의 동향과 이중

1) 선조대 정치 세력의 동향

선조시대는 사립정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론을 통한 경기가 정립된 때이기도 하다. 선조 이전에는 김안로·윤원형·이량 등의 권신들이 집권하면서 낭관·삼사 중심의 공론에 의한 정치가 위축되었으나, 명종 말기 권신들의 폐진으로 선조 초부터 조선조의 전형적인 정치형태, 즉 공론에 의한 사립정치가 정립되었다.²⁹⁾ 선조 초기에는 이러한 사립정치하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신진세력(후배사류)과 명종대 이래로 세력을 형성해왔던 전배사류와의 갈등이³⁰⁾ 아기되었다. 선조 8년(1575)에 급기야는 이조전랑직을 둘러싼 대립이 결정적 계기가 되어 후배사류는 동인으로(김直원을 지지하는 우옹·유성룡·허업·이산해·이발·장유길·정지연 등), 전배사류는 서인으로(심의겸을 지지하던 박순·김계회·정철·율두수·구사명·홍설민·신풍시 등) 나누어지고 말았다.³¹⁾

그 후 후배사류인 승지 김우옹·총을개와 도승지 이산해등이 뇌물수수죄로 율두수·윤근수·윤현 등 3명을 꼴격하다가 오히려 제직된 사건 이후로³²⁾ 동·서인간의 대립은 심화되었다. 이러한 사태를 맞이하여 이이는 “동인이 서인을 공격함이 너무 심하여 억지로 시비를 결정하고자 하니 바라건대 동서의 당분을 타파하고 사류들을 保合케 하여 그들이 한마음으로 나라에 몸바치게 하소서”³³⁾라고 상소하였다. 중립에 서서 양쪽을 保合調停하여 화평을 유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오히려 동인의 강력한 비난을 초래하였고,³⁴⁾ 양 세력간의 갈등의 끝은 더욱 깊어졌다.

당시 후배사류인 동인세력은 주로 삼사를 중심으로 세력을 부식하여, 정국은 차인희 기존의 계상들과, 삼사·낭관직에 오른 언관들간의 대립구도로 형성되어갔다.³⁵⁾ 이이를 공격한 사헌부·사간원·홍문관의 삼사역은 총옹개·이발·허봉 등 동인세력이 장악하고 있었고, 영의정 박순·성훈 등이 이이를 두둔하는 서인세력을 이루고 있었다.

양 세력이 팽팽하게 맞서는 정국을 조절하고 운명하는 역할은 바로 선조에게 달려 있었다. 이이를 공격하는 대사간 총옹개, 승지 박근원, 허봉 등을 불당의 죄목으로 귀양을 보낸 ‘계미삼찬’³⁶⁾은 바로 불당의 대립을 적절히 이용하여 한 당파에 의한 정국운영을 견

29) 崔昇敎, 「15세기 邸官權의 형성과 植黨政治」『규장각』12, 1989.

30) 향간에서는 이를을 老党·少党으로 불렀다(『선조수정실록』 권3, 2년 6월 계축).

31) 『廉議通略』 宣祖朝의 光海朝.

32) 『선조수정실록』 권13, 12년 4월 별자.

33) 『선조실록』 권13, 12년 5월 별인.

34) 『선조실록』 권13, 12년 6월 임오.

35) 論議가 三公을 존중해 여기지 않고 비평한다. — 대간이 대신의 잘못을 논하는 것은 당연하나 법에서 訴議를 하는 것은 인심을 오만하게 할 뿐이나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선조실록』 권3, 2년 6월 신사).

제하려는 선조의 의도이자 집권노력이었다.³⁶⁾ 동·서분당 후 계미삼환 전까지는 동인이 정국에서 우위를 점하여 서인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었고, 이후로는 정국이 뒤바뀌어 동인에 대한 탄핵이 야기되었지만, 그 때마다 선조는 양 당파간의 세력균형을 도모하였다.³⁷⁾

이처럼 이 시기에 동·서인세력간의 우열관계가 두렷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정여립사건 이전까지는 당색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정여립 사건의 발생은 조선 정치사에서 담쟁을 격화시킨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정철·정훈·송의필 등을 중심으로 한 서인이 이발·장개청·최영경 등과 같은 동인측 인사들을 무참하게 희생시킴으로써 동인과 서인이라는 구분이 보다 명확해진 것이다. 이후 서인세력의 대표격인 이이가 죽자 점차 서인세력이 약화되어 가다가 기축옥사를 주도하던 정철이 선조 24년 建儲문제로 실각하자, 동인세력이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³⁸⁾ 이 때 동인세력은 서인세력에 대한 강경·온건파로 나누어져 각기 북인과 남인으로 분파되기에 이르렀다.

2) 이중의 활동

그렇다면 이러한 와중에서 이중은 어떠한 정치활동을 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그가 거쳐간 관직의 추세를 시기별로 살펴봄으로써 당시 정국의 변화과정에서 그의 역할을 잘 추론해볼 수 있을 것이다.

36) 『선조실록』 권17, 16년 8월 경축.

37) 南達頃, 「宣祖 南半期(1567-1591)의 國王과 朝黨」『仁壽史學』 4집, 林相芳教授誕年紀念號, 인하역사학회, 1996.

38) 선조 22년에 당시 서인의 영수인 정철을 우회정으로, 동인의 영수인 이산래를 좌회정으로 삼은 것도 또한 이러한 선조의 세력균형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선조수정실록』 23권, 22년 11월 증례).

<표 2> 아원군 이중의 관직 경력⁴⁰⁾

임명 일자	관직명	관품	비고
명종 15(1560)	승문원 正字	정9품	명종 16년에 부친상
명종 19년(1564) 10월 13일	홍문관 正字	정9품	
명종 21년(1566) 6월 29일	홍문관 부수찬	정8품	
명종 21년 8월 28일	홍문관 수찬	정6품	
명종 23년 10월 4일	사간원 정언	정6품	
명종 22년(1567) 5월 21일	홍문관 수찬	정6품	
명종 22년 6월 25일	사헌부 지평	정5품	
명종 23년	제 홍문관 부교리 서제교 겸 경연서록관	정5품 (종 4품)	명종실록 편수관
선조 1년	원집사 종사관 京畿都事		
선조 1년(1588) 4월 29일	홍문관 부수찬	종6품	
선조 2년	이조과랑	정6품	
선조 4년	홍문관 교례·명조 정랑·사간원현납·예조정랑	정5품	
선조 4년(1571) 10월 15일	사헌부 지평	정5품	
선조 4년 11월 9일	부교리	종5품	
선조 5년	이조 청랑	정5품	
선조 6년(1573) 5월 23일	사헌부 집례	종3품	
선조 6년 6월 15일	사헌부 집례	종3품	
선조 6년 6월 25일	충선		
선조 6년	관상·사인·전한·직제학, 동부승지	첩1-첩4품	
선조 8년 10월 12일	형방승지로 제직함	정 3품	
선조 7년 8월 3일	승지·이중·파직함	"	
선조 7년 10월 6일	전라감사	종 2품	
선조 7년	병조참지·성균관 대사성	정3품	
선조 8년	황해감사		
선조 13년(1580)	설찰사·형조참의		선조9년에 모친상
선조 14년(1581) 4월 12일	전라감사	종2품	
선조 15년	관찰사·도승지		
선조 16년(1583) 7월 18일	경상감사	종2품	명으로 부임포함
선조 16년	대사성·도승지	정3품	
선조 17년(1584) 1월 14일	대사간	첩3품	
선조 18년	한성우윤·과윤·형조참판·예조참 판		가선대부(종2품)로 충전
선조 19년	동지의금부사		
선조 22년(1588) 12월 27일	대사간에서 무제학으로 임명	정3품	10월에 기축축사 별생
선조 23년	무제학·대사헌·미조참판		평난공신 3등에 예봉위 아원군에 봉해짐
선조 23년(1589) 12월 25일	이조동판으로 제직함	종2품	
선조 24년(1591) 1월 29일	미조참판 제직위	"	
선조 24년	칠조관사		
선조 24년 2월 13일	대사헌	종2품	

40) 「명종실록」, 「선조실록」, 「선조수정실록」, 「北慶遺稿」, 「湖川君公叢狀」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藩狀은 예조의 신의를 가져서 이를 바탕으로 시호를 정하는 문서이므로 그 신의도가 높아, 본고에서는 이를 근거 자료로 활용하였다.

임명 일자	관직명	관품	비고
선조 24년 4월 16일	예조판서	정2품	
선조 25년 1월 1일	형조판서로 제직함		선조25년 일진제안발발
선조 25년(1593) 1월 13일	대사헌	정2품	
선조 26년 1월 14일	대사헌 이중 체자		
선조 26년 3월 21일	비변사·달상관		
선조 26년 5월 6일	사헌부 대사헌	정2품	
선조 26년 9월 12일	예조판서	정2품	
선조 27년 1월 25일	예조판서 해임		
선조 27년 6월 18일	특진관례 재직함		
선조 29년	사리제조		
선조 30년 8월 6일	공조판서	정2품	
선조 30년 8월 22일	공조판서 해임		
선조 31년	좌우합판		
선조 32년 6월 14일	예조판서	정2품	
선조 32년 4월 20일	공조판서	정2품	
선조 32년 10월 14일			향년 76세로 후함

위 표에서 보면, 아천군 이중은 1560년 별시문과에 별과로 급제한 후 관직에 진출하면서 절 9품적인 흥문관 정자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정 2품적인 공조판서 직책까지 순조롭게 승진을 거듭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외직인 관찰사에 있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관직에 몸담고 있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중앙정부의 중요 직책을 두루 거쳤다. 승진의 험경이던 要職인 三司의 각 직책뿐 아니라, 왕권강화의 역할을 하였던 승정원에 오랫동안 몸담았으며, 실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인 예조, 형조, 공조의 판서를 지냈다. 또한 외관직도 전라도·경상도·황해도 등의 관찰사를 지냈다. 이중은 제상들의 합의기구인 의정부의 좌·우합찬도 역임하였다. 이처럼 이중은 조정의 주요 부서를 모두 역임한 중요한 인물이었다.

이중이 국가의 주요부서를 역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철련결백하고 성실한 능력이 인정받은 결과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소속된 담파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이중은 이산해를 중심으로 한 한산이씨에 속한 인물로 동인에 가담하고 있었다. 앞 절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동인은 서인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삼사·공·언관직을 활용하고 있었고, 이중이 선조 초기에 주로 삼사의 언관직을 두루 거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는 것이다.

제미삼찬이 일어난 선조 16년을 전후로 이중이 외관직을 두루 거치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정치세력의 재편과정에서 말미암은 것이라 여겨진다. 이때는 동인에 대한 서인의 공격이 한창 진행될 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중이 경상감사로 임명되는 과정을 자세히 적어놓은 실록을 보면, 당시 비변사에서는 경상감사에 적합한 인물로 홍연·신옹시·권극례를 천거하였다.⁴¹⁾ 천거받은 신옹시와 권극례는 서인세력이었는데,⁴²⁾ 선조는 비변사의 천거를 따르지 않고 이중을 경상감사로 임명하였다. 이는 서인세력의 공격이 드세짐

41) 「선조실록」, 권37, 16년 7월 18일 정유.

42) 「黨譜通略」, 宣祖朝.

에 따라 양 세력의 균형을 통해 정권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선조의 의중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선조 17년 1월에 이미가 사망하자,⁴³⁾ 점차 서인세력은 위축되어갔고 동인세력이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그 해 1월에 동인 이산해가 이조판서에 제수되고 이중 역시 대사간에 임명되었다.⁴⁴⁾ 이어 1월 22일에는 경기감사로 임명되었다.⁴⁵⁾ 2월에 이조판서이면서 대제학을 겸직하였으며 4월에는 사복제조까지 겸직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동인은 정월을 위시한 서인에 대한 공격을 멎추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그 대응 태도에 따라 1588년(선조21)에 '偏斥西人'을 견지하는 북인과 '參用彼此'를 내세우는 남인으로 나누어지려는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⁴⁶⁾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기축옥사는 동·서인 세력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정여립사건이 터지자 이중은 대사간으로서 정여립사건의 국문에 참여하였다. 이 국문과정에서 당색에 상관없이 반관을 평정하는데에만 오로지 힘쓴 것으로 보인다.⁴⁷⁾ 이 공로로 <표 2>와 같이 다음해 평난공신에 3등으로 책봉되었고 鷺川君의 칭호를 받았다. 한편 이산해도 평국공신 3등에 책봉되었다.⁴⁸⁾

43) 『선조실록』 권18, 17년 1월 갑오.

44) 물론 이때에도 선조는 서인세력의 영수인 정월을 대사현에 임명하여 양 세력의 균형을 맴추려 하였다(『豈讓通時』 宜祖朝).

45) 『萬葉通略』 宜祖朝. 선조는 중랑의 주요직책뿐만 아니라 지방 수령들의 작은 일수를 유탑하지 않고 교체하였다. 각자의 경우 정해진 일기가 1년에 차나지 않는데다가 문해 등으로 자주 바뀌어서 소임을 잘 수행하지 못하였다(『선조실록』 권15, 14년 5월 병술).

46) 『선조수정실록』 권22, 21년 8월 임오.

47) 『北里遺稿』 「鷺川君公神道碑記」

48) 无國功臣은 宗系를 捎疎한 품을 세운 공신으로, 자신으로 가서 허락을 받아내거나 피논을 드리고 諱文을 치는 공이 뛰어난 사람이다. <표 2>는 『선조수정실록』 권24, 23년 8월 경오조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임.

<표 2> 平難功臣 名單

등급	공신명	성명	사건당시 직위	府院君	당색
1등	推忠奮義判賤氣平難功臣	朴恩侃	재령군수	西山府院君	
		李輔	안악군수	完山府院君	
		韓近眞	신천군수	濟平府院君	
		閔仁自	진안현감	驪城自	서인
		趙暉	황해감사	鶴川自	
		李欽	학사	南溪自	
		趙球	교생	全穎君(追封)	
		南載	검사	南溪君	
		金貴誥	관부사	上洛府院君	동민
		柳瑀	밀의정	始寧府院君	
2등	推忠奮義旌萬平難功臣	龐祖	제조판서		서한
		鄭敬	관찰사		서인
		李山海	과의정		동민(재록)
		洪聖民	호조참판		서인
		李率	우부승지	全城君	동민(재록)
		李惠	도승지	完城府院君	
		崔湜	정언		
		裴守圭	刑교판서	慶林府院君	서인
3등	推忠奮義平難功臣	李鳴	대사간	臨川君	동민
		李田哲	문사당첨	繁城府院君	서인
		姜時	문사당첨	晉興君	
		李廷浩	刑교참판	瓜林君	서인

平難功臣은 評述한 공을 세운 공신들에게 수여한 것이다. 박충간 이하는 고변을 뛰고, 민인백 이하는 역도의 퍼수를 잡았고, 김귀영 이하는 推官으로서 죄인의 목초를 가장 많이 받아냈기 때문에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중 역시 대사간으로서 죄인을 국문하고 옥사를 참여한 공로로 평난공신 3등에 녹봉되었다. 그 해 12월에 부제학으로, 선조 23년에

40) 이제 관현판 기사가 『광해실록』(권57, 4년 9월 계속)에서도 보인다.

여기에서 보면 이중이 기축육사 국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였는지는 확실치 않다. 위 사료에서 최금부에서는 이중이 국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한 공로로 평난공신 3등에 녹봉되었다고 하였지만, 당시 청평승 치 이중은 죄황과 이중이 충직로록 국문에 참여한 것은 마단 듯하며 평화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슬퍼하였다.

이같은 사태가 초래한 것은 당시 청국의 형세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선조 22년 10월 2일 황해도 관찰사 한준식 징역법 모반사건 보고로 인해 사건의 전모가 조사되기 시작하여 미산해·정현선·죽성봉·봉·동민이 주도한 옥사는 일단 그 해 10월 27일에 종료되었고 선조는 이를 교서로 반포하였다. 그러나 옥사처결에 물안 유품은 서민들이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청국이 우회적으로 이 위안을 달달하고 미친 한 부분에 대해 또다시 그해 11월 8일 옥사를 진행하여 “己未之獄 拘引嚴譏 三平未罪”(「朝鮮獻平難臣賞科集」15, 어강총판사, 1887, 107쪽)이라 하듯이 사건발생후 3년간에 걸쳐 참화가 지속되었다. 선조 22년 12월 1일에 대사간직에 이중 대신에 이산보가 임명되었다(『선조수정실록』 권23, 12월 갑술, 「선조수정실록」과 「선조수정실록」의 기록이 서로 맞지 않는다). 『선조실록』에서는 이중이 선조 22년 12월 27일에 대사간에서 부제학으로 교체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때(『선조실록』 권23, 22년 12월 경자), 『선조수정실록』에서는 12월 1일에 이산보를 대사간으로 임명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동민 주도의 옥사라면 이중은 처음부터 옥사에 참여한 것이요, 서인이 주도권을 장악한 이후의 옥사까지 거론한다면 이중은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며, 미산 대신 서인 미었던 미산보가 대사간으로서 국문에 참여한 것이다. 미처럼 동민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한 시기에 기축육사가 발생하자 이 때는 미중이 대사간으로서 옥사를 주도하였지만, 이후 오히려 동민이 서인과 공격을 받아 청국이 서인주도로 바뀜에 따라 기축육사를 주관하는 대사간도 서인미었던 미산보로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는 중 2품인 이조참판, 선조 24년 2월에는 대사헌으로, 4월에는 네조참판으로 거듭 승진하였다.⁵⁰⁾

그런데 정여립의 옥사사건을 주도했던 이산해·정언신·유성룡 등의 동인세력은, 옥사 처리과정에서 정여립의 악모사건과 연루된 세력으로 같은 동인인 이발·백유양·김우옹·정언지·최영경 등이 지목되자⁵¹⁾ 오히려 좌의정 정철을 중심으로 한 서인세력의 일대공격을 받게 되었다. 당시 대사간으로 국문하였던 이중 역시 탄핵을 받았다. 선조 24년(1591)에 호남유생 청암수 등이 이산해와 유성룡 등을 역당이라 탄핵하였고, 서인이 장악한 향사에서 前 대간이 권간의 사주를 받아 논계하였다는 이유로 前 대간들을 파직시킬 것을 요청하였다.⁵²⁾ 이때 파직된 前 대간이란 대사간 이중, 대사헌 최황 등이었다. 또한 그 해년 9월에 권극지와 더불어 좁위된 예조판서의 후보자 물망에 올랐으나 결국 낙망하고 말았던 것도,⁵³⁾ 서인 정철을 중심으로 서인이 정국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곧 이어 이중은 형조판서에 임명되었다.⁵⁴⁾ 이렇게 서인의 정국주도기에서도 커다랗게 타격을 받지 않고 六曹의 자리에까지 승진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선조가 동인을 몰아내는 상황 속에서도 완전히 동인을 제거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데에 있었다.⁵⁵⁾ 정국을 안정시키려는 선조의 의지에 따라, 좌의정 정철을 중심으로 정국이 운영되었으나 이전히 영의정 이산해와 우의정 유성룡은 선조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⁵⁶⁾ 이는 이중의 정치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되는 것이다. 또한 서인파와 교우관계가 든든한 이중은 북인계열 내에서도 중도파적인 인물이었기에 자신의 입지를 견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의 발발은 당시 경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우선 당파의 대립보다는 왜구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는 절대 명제에 각 당파간의 심한 대립과 갈등은 전쟁의 진행과정에서 점차 가라앉게 되었다. 서인세력이 주도하던 정국은 선조 27년부터 전시정국으로서 유실물을 비롯한 남인에 의해 주도되었다. 기축옥사로 많은 피해를 입었던 북인파는 달리 남인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바탕에 같은 동인이면서도 자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었다. 남인들은 같은 동인이었던 북인파는 화합하지 못한 채, 일부 북인 세력과 서인세력을 끌어들여 연합정권을 형성하여 정국을 이끌어갔다. 대체로 1594년(선

50) 『선조실록』 권23, 2년 12월 경자; 권24, 23년 12월 계사; 권25, 24년 2월 경신; 권25, 24년 4월 신해.

51) 『선조수정실록』 권23, 22년 11월 을해.

52) 『선조실록』 권25, 24년 7월 무진.

53) 『선조실록』 권25, 24년 9월 기축.

54) 이중이 정확히 언제 형조판서에 임명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당시 이중은 형조판서 직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선조실록』 권26, 25년 5월 무진) 선조 24년 9월부터 25년 4월 이전까지의 기간동안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

55) 남달우, 『전개논문』, 100쪽.

56) 『선조수정실록』, 권23, 22년 11월 을해.

조 27)부터 1598년(선조31) 9월까지의 전관 중은 남인세력이 정국을 주도했던 시기였고, 1598년 10월부터 1600년 5월까지는 북인세력의 경권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⁵⁷⁾

1592년 4월 13일에 시작된 임진왜란 당시 이중은 형조판서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4월 29일 충주의 패보가 전해지자 선조는 그날로 한양을 버리고 서행하였고, 5월 2일에 한양은 일본군에게 점령당하였다. 일본군은 여세를 미워서 개성을 거쳐 6월에 평양을 점령하였다. 이렇게 급변하는 전세 때문에 관리를 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분산되어 조정의 면모가 갖춰지지 못했다. 5월 조정에서는 임금의 서행에 동행치 못한 관리를 추고 하기 시작했다.

왜란이 빨발하자 계일 먼저 임금의 파천을 주장했다는 이유를 들어 양사가 이산해를 공격하였고, 그 결과 임금은 이산해의 파리를 명하기에 이르렀다.⁵⁸⁾ 이 시기에 사간원 사간 윤승훈, 정언 정사신, 사헌부 지평 남근도 뒤처져 있었던 죄로 체적되었고, 당시 형조판서였던 이중 역시 양사의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다. 조정의動으로서 처음부터 호종하지 않고 오랜 후에야 동참하니 노병 때문이라 하나 잘못이 있으므로 파직해야 한다는 양사의 계청이 계속되었지만,⁵⁹⁾ 선조는 그때마다 은허하지 않았다. 당시 이중은 임금의 행차가 서쪽으로 과천하게 될 때 따라 고양까지 갔었다. 그러나 이때 순번사 종사관인 빼빼아들이 살주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 병이 생겨 파라가지 못했던 것이다.

『선조실록』에는 선조가 이를 허락한 기사는 보이지 않으나, 그 해 9월 27일에 형조판서 이현국의 이름이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당시 이중은 담당하고 있던 형조판서의 직책에서 물리난 것으로 보인다. 임금의 어가를 호종하지 못한 과실은 그 이후에도 이중의 관직임명에 악영향을 끼쳤다. 선조 26년 1월 13일 사헌부 대사헌으로 임명되었으나, 사헌부에서 임금을 호종하지 못한 이중을 대사헌에서 제자리에 옮기는 계청을 올린 결과,⁶⁰⁾ 결국 이중은 그 다음 날 1월 14일 대사헌의 직책에서 물려나고야 말았다.⁶¹⁾

형조판서에서 제직된 후 이중은 각 부 판서가例兼하고 있던 비변사당상관의 직책을 조정의 훈제로서 계속 보유했던 것으로 여겨진다.⁶²⁾ 당시 비변사가 담당하고 있던 기구의 특성상 비변사 당상관으로서 이중의 역할은 이 시기에 상당히 증폭된다. 유효재변으로 인해 설치된 비변사는 국방·군사관계의 일을 전담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였으나, 임

57) 丘禮會, 「宣祖代 후반(1594-1606) 政治體制의 재편과 政局의動向」, 『韓國史論』 20, 서울대 국사학과, 1988, 203쪽.

58) 『선조실록』 권26, 25년 5월 입술조.

59) 『선조실록』 25년 5월 9일 무진: 11월 1일 정사; 11월 3일 기미; 11월 5일 선유.

60) 『선조실록』 권34, 26년 1월 기사. 비남제 이중은 선조에게 역사 훈장에 미치지 못한 죄를 청하였다.

61) 선조 즉위년부터 정여립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약 22년간 이조판서 대사헌, 대사간과 민사내용을 조사해보면, 기록이 말미 누락되어 결한 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조판서의 경우는 연평균 2~3, 대사헌과 대사간의 경우는 연평균 4회 정도 교체되었고, 1개월 만에 교체된 경우도 많았다(태동수, 원계논문, 53쪽). 이렇게 잇는 교체로 세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선조실록』 권15, 14년 5월 병술).

62) 비변사 당상관으로서 정식기슬된 기록은 『선조실록』 권36, 26년 3월 병자조에 미끄러져 나타난다.

진왜란 초기 의주 괴난시에는 정치적 질서가 잠히지 않은 상태에서 8도와 6조의 公事を 처리하게 되었다.⁶³⁾ 따라서 6조의 당상관들은 비변사 당상을 겸대하여 매일 비변사로 출사했기 때문에, 6조의 업무가 지체되고 있을 정도였다.

비변사는 그 중요성에 비해 임진왜란 중에 참여인사가 대폭 증대되었다. 서인이 주도하는 정국에서도 비변사 당상관으로서 이중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활발한 정치활동을 보여주던 시기가 바로 이 때였다. 당시 선조는 세자 광해군파의 갈등으로 양위를 고집하였고, 이에 각 신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 불가함을 주청하고 있었다. 이중 역시 좌의정 윤두수, 예조판서 윤근수, 우찬성 최황, 병조판서 이항복 등과 더불어 여려차례 선조의 선위의 명을 거두기를 요청하였다.⁶⁴⁾ 당시 의주로 괴난갔던 선조는 이미 명나라 원군의 도움으로 평양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주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세자인 광해군을 大駕과 분리시켜 먼저 해주로 천진하도록 하였다. 이에 영의정 최홍원을 위시한 아천군 이중도 세자가 앞서 나가도 재정마련이 여의치 못할 것이라며 왕세자와 大駕를 분리하지 말도록 주청을 드렸다.⁶⁵⁾ 또한 선조가 세자에게서 재결을 받아 처리하라는 전교를 내리자, 역시 영의정 최홍원과 함께 전교를 거두어달라고 아뢰었다.⁶⁶⁾ 이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은 선조가 전쟁의 책임을 통감하고, 양위문제를 빙미로 다시 한번 자신의 세력을 견고히 다져놓고자 하는 북안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

이중은 명나라 원군을 지원할 식량과 마초가 부족하여 명군이 회군하여 전쟁의 승리를 차지 놓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선조의 대가를 천진하도록 주청을 드렸다.⁶⁷⁾ 몸소 평양까지 가서 평양에서 안주하고 있는 명군을 독려하여 계속 천진할 수 있도록 명나라 제독 이여송의 마음을 둘러놓는 데에 애를 뺐으며,⁶⁸⁾ 군량수송·명군의 진격·호남의 방어 등 당시 전쟁의 제반문제를 비변사 당상관으로서 선조와 더불어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였다.⁶⁹⁾ 일본이 도굴한 선봉과 정봉의 처리문제 뿐 아니라,⁷⁰⁾ 후퇴하는 일본군을 막아 트벌해야 하는데도 전혀 명군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조선이 먼저 大義를 들어 동쪽으로 전진하면 명군의 제독이 부끄럽게 여겨 함께 협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⁷¹⁾

이중은 선조의 양위문제 뿐만 아니라, 전쟁의 전개과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일을

63) 『선조실록』 권138, 34년 6월 기사.

64) 『선조실록』 권32, 25년 11월 갑자; 권34, 26년 1월 무진.

또한 선조는 전쟁에 따른 책임을 통감하고 자신의 賤賤을 訂正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 역시 이중을 포함한 여러 대신들이 국구 卍非 하였다(권33, 25년 12월 경자).

65) 『선조실록』 권34, 26년 1월 정축; 권35, 26년 2월 정래.

66) 『선조실록』 권34, 26년 1월 신사.

67) 『선조실록』 권35, 26년 2월 정유; 26년 2월 무술.

68) 『선조실록』 권36, 26년 3월 을亥.

69) 『선조실록』 권36, 26년 3월 생자.

70) 『선조실록』 권37, 26년 4월 일자.

71) 『선조실록』 권38, 26년 5월 경자.

처리하는데에 비변사 당상관으로서 적극 참여하였다. 선조 26년 5월에는 또다시 대사헌에 임명되어 선릉과 경릉을 봉심·처리하였다.⁷²⁾ 그 해 9월에는 이조의 주청에 따라 이중은 예조판서로, 같은 북인인 경창연 역시 외정부 좌참찬로 계수되었으니,⁷³⁾ 이는 북인 세력이 절점 조정내에서 대간의 직책뿐 아니라 외정부의 직책에도 힘을 빼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對倭進攻論을 고집하는 서인집권세력은 선조와의 대외강화협상에 따른 이견으로 칼등관계에 놓임에 따라, 서인세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정황에 인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선조 26년 10월에 집권 서인의 대명외교가 난항에 빠져들고, 명나라 군대의 단계적 침군에 대비하고자, 선조는 산성고수 및 清野의 대왜방어론을 주장하는 통원부원군 유성룡을 영외정에 임명하여 남인으로 하여금 청국을 주도하게 하였다.⁷⁴⁾ 이 때의 비변사는 대신과 유사당상을 중심으로 하는 청국의 실권을 장악했던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는데,⁷⁵⁾ 당시 영외정이었던 유성룡은 남인세력의 영수로서 청국을 주도하는 입장이었다. 이 때 남인세력은 비변사를 확대·발악하고 이를 통해 서인세력 중 일부를 수용하여 정책의 겹침성을 확보하고 주도권을 행사했으며, 북인 세력의 일부를 대간에 흡수하여 연립적인 경국을 운영하였다.⁷⁶⁾

이 시기 이중은 2품의 품계를 지닌 훈제로서 정치의 주요한 일을 논의·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 명의 경략부가 대왜방어책과 더불어 세자의 下三道 經理案을 요구하자 조선은 세자를 날찍지방에 내려보내고자 하였는데, 마침 세자가 병으로 내려갈 수 없는 형편이 되어 2품 이상의 신료들이 모여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중은 여기에 참여하여 임금께 '동궁의 증세가 어떤지 살펴보고 날씨가 그다지 춥지 않을 때를 이용하여 請議를 모아 헤아려서 상상께서 결단하여 조치하시는 것이 합당한 듯합니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렇듯 조정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명의 강요로 선조 26년 12월에 결국 세자의 分朝가 출범하게 되었다. 당시 이중은 예조판서로 재직하면서 외교상의 여러 문제 해결에 노력하였다. 당시는 일본과의 강화체결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외교에 관한 부문을 담당했던 예조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강화회담을 추진하려는 명과 달리 조선에서는 강화를 극구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기에 양국은 칼등관계에 놓여 있었다. 이중은 호조판서 金貢과 더불어 명의 진유각과 만나서, 소서 행장이 보낸 서신을 왜 받지

72) 『선조실록』 권39, 26년 6월 신제조.

73) 『선조실록』 권42, 26년 9월 계례. 또한 당시 한반 미씨로서 북인인 추호 역시 홍문관 부제학의 직책을 담당하고 있었다(『선조실록』 권45, 26년 11월 경미).

74) 『선조실록』 43권, 26년 10월 경미.

75) 『선조실록』 권77, 29년 7월 정묘. 「洪州牧使洪可臣上疏」

76) 구덕희, 원계논문.

77) 『선조실록』 권44, 26년 11월 임자.

않느냐며 항의하는 진유격을 달래며 “왜적의 서신을 받는 일은 국왕에게 감히 아뢰어 알릴 수 없고 마땅히 여러 각료와 삼의해 회답하겠다…(중략)…왜적이 불왕을 받고 사온할 때의 길은 조선을 경유할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참으로 그렇게 한다면 극히 난처하다”⁷⁸⁾라고 간하여 명의 조정에 진언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진유격은 “그대 말이 옳다. 내가 책임지고 석성에게 講定하여 처리하겠다”는 승낙을 받아냈다. 또 한편으로 기력과 정신이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어서 국사만 그르친다는 이유로 세자의 첨경을 명하는 선조를 적극적으로 만류하기도 하였다.⁷⁹⁾

이어서 이중은 특진관,⁸⁰⁾ 도총관⁸¹⁾의 직책을 지냈다. 이때 대왜옹전전략도 이원화되어 본조에서는 서인 좌의정 유후수가 무군사(分體邊司)를 주도하면서 전공론을 펴고, 집권 남인은 조선군의 전력상 독자적인 대왜전공전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방어론을 고수하였다. 당시 일본은 강화를 원하던 명의 경락부에게 불쾌사뿐 아니라 조선의 통신사도 같은 파견하기를 요청하였다. 명은 선조를 위시한 조선내 강한 반발을 우려하여 통신사가 아닌 조선 賕臣의 封優使 수행을 요구하였다. 명의 심유경의 이러한 요청에 따라 조정에서는 2품 이상의 관리들에게 품의하게 하였고 여기에서 2품 이상 47인의 절대다수가 조선 배신의 일본행을 반대하였다. 이중 역시,

우리나라가 흥적과 함께 지금까지 한 하늘 아래 살고 있으나, 혈기를 가진 자는 모두 복수를 위해 한번 죽을 것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過往이란 이 두 글자는 비록 짱세 후라도 외리상 차마 입밖에 내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오늘날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중략)…만약 혹시라도 적의 무리가 이를 이유로 즉시 칠수하지 않고 사신이 미기애 구에 받아 복명할 기약이 없어 낭패하며 처리하기 어려운 사세가 있게 되어 황조로부터 풍명이 있게 된다면 그 때에 가서 다시 의논할 단서가 없지 않을 듯 싶습니다.⁸²⁾

와 같이 통신사 파견을 반대하면서도 왜군의 칠병이 이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염려하였다. 이중의 우리는 현실로 드러나 왜군 소식해찰은 조선이 배신을 보내면 한전칠병 할 것이고, 보내지 않으면 재침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에 당시 비변사를 장악하고 있는 영의정 유성룡을 비롯한 남인집권세력은 배신의 일본파견을 적극 반성하였다. 그러나 대왜강화교섭에 직·간접적인 참여를 결사 반대하여 온 선조를 설득시키지 못하는 한 문제 해결은 매우 어려웠다. 이에 이중은,

78) 『선조실록』 권60, 28년 2월 신여.

79) 『선조실록』 권55, 27년 9월 갑오.

80) 특진관은 조선시대 경연에 참여하였던 비슬이었다.

81) 『선조실록』 권67, 28년 9월 경안.

82) 『선조실록』 권71, 29년 1월 경오.

황조에서 책을 희유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나라로서는 자극적 분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으니 수치를 참고 성취를 기다리는 것이 이미 부득이한 데에서 나왔음을 안다면 오늘날 중국사신이 청하는 것을 구태여 거절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더구나 그 청이 跟隨라고만 하기를 청하는 것 뿐이고 다른 말이 없으니, 혹 그 말대로 따르더라도 무방할 듯합니다. 위에서 제결하시기 바랍니다.⁸³⁾

라고 하여 통신사의 호칭이 아닌 통제사를 수행한다는 뜻의 跟隨陪臣을 일본에 보낼 것을 계획하였다. 비록 상사의 반발이 있었으나, 이중을 비롯한 비변사 당상관들의 주장에 따라 선조 29년 8월 근수사 일행을 파견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이중은 당시 육경의 벼슬을 지낸 훈재로서⁸⁴⁾ 전시경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중이 남인주도 하의 정국에서도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남인이 경국을 이끌어가면서도 서인과 북인세력을 일부분 참여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임난도중에 절권을 장악한 남인세력은 전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입장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여 和議를 통해서라도 전란을 종식시키려는 성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당시 결의를 중시하고 갈력한 戟和를 내세워 연소 신진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던 북인에게 공격당하는 벌미로 작용되었다. 그 결과 1598년(선조31) 11월 전란이 끝난 뒤에 북인세력이 대거 진출하여 정국을 주도해나갔다.

북인세력은 주로 삼사와 이조의 인사권을 장악하여 정국을 주도해나갔다. 1599년(선조 32) 5월경 주요 관직자를 살펴보면 북인세력이 삼공을 제외한 요직을 모두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조 32년 6월 20일에 북인인 李重桂가 대사헌으로 임명된 것과 동시에 이중도 예조판서에 또다시 제수되었다.⁸⁵⁾ 이후 한 단계 진급하여 청 2품관인 의금부의 지사를 맡았다.⁸⁶⁾ 이 때 명나라 사신 정용태의 接伴使였던 白惟謨사건을 의금부에서 다스리게 되는데, 『선조실록』에서 백유합에 대해 평가하기를, "(백유합은) 백인결의 아들로 사람됨이 음합하다. 항상 경철의 앞잡이가 되어 자신과 달리 하는 자를 꾀하하 있으며..."⁸⁷⁾라고 하여 서인세력을 철저히 배척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서인의 대표적 인물인 해원부원군 윤두수가 백유합을 구원하고자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던 것도⁸⁸⁾ 당시 정국이 다른 세력을 용납하지 않는 북인 위주로 이끌어졌기 때문이었다.

83) 『선조실록』 권76, 29년 6월 기재.

84) 이후 이중은 선조 30년 8월 6일에 광조판서로 임명되지만, 8월 23일에 또다시 윤자신으로 광조판서가 갈리고 말았다(『선조실록』 권91, 30년 8월 갑자: 8월 경전조).

85) 『선조실록』 권114, 32년 6월 신묘.

86) 『선조실록』 권114, 32년 6월 경자.

87) 『선조실록』 권115, 32년 7월 신미. 별의 사신 정용태가 우리나라에 와서 『해동제국기』 · 『해동기략』 등의 책을 언어 京語에 관한 일을 맹에 전달하니 이 일로 인해 정용태의 집안사였던 백유합이 판핵을 받게 되었다.

88) 『선조실록』 권113, 32년 5월 기유.

이러한 북인주도의 경국에서 선조 33년에 이중은 공조판서의 직책을 제수받았다.⁸⁹⁾ 그러나 노환으로⁹⁰⁾ 공조판서의 직책을 얼마 수행하지 못하였고⁹¹⁾ 선조 33년 10월 14일에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고 맙았다.⁹²⁾

4. 뱃음말

이중은 조선중기 격변의 정치상황 속에서 살아온 인물이다. 경국의 주도권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의 시기,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었던 시기에 한 인물을 극히 세련된 자료 속에서 연구하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다. 임진왜란으로 인해 모든 관찬사료가 소실되어 실록을 편찬할 수 없게 되자 국가에서는 당시 개인문집을 수거하여 이를 바탕으로 실록을 편찬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현재 남아있는 『미암일기』, 『증봉집』, 『경연일기』 등 몇몇 문집의 내용은 실록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 당시를 고찰하기에는 자료의 한계가 절실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체 인물상을 개괄적으로 조명하기보다는, 가장 그 인물의 정체성을 드러내줄 수 있는 측면을 포착하고자 정치 활동을 중심으로 이중에 대해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당시 정치세력의 변동과 그 양심은 매우 복잡하였다. 그것은 아직 당색이 고착화되지 않았고 운영방식의 정형을 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적 입장이 뚜렷지 않은 인물은 정치적 사건에 따라 거취를 달리하였기 때문에 나타난다. 또한 실록에서의 인물 평가도 실록편찬 당시 주도권을 장악한 당색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이는 이중에 대한 사관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에서 정권을 장악한 당색에 따라 서로 어긋나는 평가를 하고 있다. 『명종실록』에서는 이중을 '사람들이 칭송하고 근신하였다'라고 사관이 평가하고 있으며, 명종 21년에는 '기국이 알지 않고 뛰어난 재능을 겸하였으므로 논자들이 쓸만한 그릇으로 여겼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선조 28년에는 특진관이었던 이중에 대해 '사람됨

89) 『선조실록』 권124, 33년 4월 계사.

90) 『선조실록』 권127, 33년 7월 병오. 황결남도 병사로 아버인 이중의 노환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李慶旼을 세조에서 천거하였다.

91) 이중이 언제 공조판서에서 물러났는지에 관한 구체적 기자는 찾아볼 수 없으나, 선조 30년 7월 21일에 공조판서로 이중원의 이름이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보아(『선조실록』 권127, 33년 7월 일술) 이 시기 직전에 해임된 것으로 보인다.

92) 『선조실록』 권130, 33년 10월 갑신.

93) 『명종실록』 권30, 19년 10월 일오. 이중에 대한 평가는 『北漢遺稿』에 실려있는 여러 韩文에서도 보이지만, 韩文이란 그 인물중심의 상당히 면향편 시각으로 저술하는 것으로 의해 그 성격이 강화므로, 여기에서는 논의로 다루었음을 밝혀둔다.

이 호리명령하여 본래 立脚地가 없다”라고 논평하였다. 이는 선조실록이 북인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어 편찬자의 주관에 따른 偏見이 심하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⁹⁴⁾ 당시 이중은 북인이면서도 상당히 중도적인 입장에서 서인과의 교류가 활발하였기에 이같은 평가가 내려졌던 것이다. 뒤에 선조 30년에는 특진관 이중에 대해 ‘훈구의 재상으로서 임금을 따르지 않았으니 나머지는 볼 것이 없다’⁹⁵⁾라고 혹평한 것은, 당시 조정내 여러 대신들이 전관의 와중에 미처 어가를 호종치 못한 사례가 무수히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질타로 여겨진다.

그의 아들 李慶濬⁹⁶⁾에 대한 평가 역시 엇갈리고 있다. 「선조수정실록」에서는 이경준에 대해 “경준은 이중의 아들로서 장수의 재질이 있었다”⁹⁷⁾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황주목사 이경준을 임금이 특별히 평안도 병사로 겸직토록 하였는데, 끝바로 논박을 받아 채찍된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선조실록」에서는 정관수가 “그가 목사(황주목사-필자)로 일을 할 때 태만하였고, 나이가 적고 경력이 없어 수령들이 敬畏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아래가 서로 막혀서 남들의 말이 있게 되었으나 그에게 과실이 있음을 면치 못한다”⁹⁸⁾고 아뢰었음을 기록하였다. 반면 후에 평안도 병사로 제직할 때에는 이경준을 “관서 이중의 아들인데 여러 고용의 수령을 지내면서 실적이 좋았다. 그러나 경솔하고 자만심이 있어서 부른 실수가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꽤 걱정하였다”⁹⁹⁾라고 사관은 평가하고 있다. 정관수의 평가보다 사뭇 다름을 느낄 수 있다.

「선조실록」은 북인측 입장에서, 「선조수정실록」은 서인측 입장에서 서술되었던 점을 감안해 볼 때, 이중은 당시 치열한 당파간 정쟁 속에서 북인측 계열 중에서도 중도적인 입장은 견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중도적 위치에 있었기에 오히려 양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하였으나, 그 정치적 혼란기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국사에 매진하였던 것이다.

이중의 연구를 통해 얻은 또 하나의 부수적 결과는 당파의 형성과정이다. 선조조에 활

94) 『명종실록』 권33, 21년 6월 무자.

95) 『선조실록』 권63, 28년 7월 음미.

96) 배봉수는 그의 원제논문에서 선조실록이 문민측 힘장에서 서술된 것이라 하였지만, 「선조실록」 부록에 있는 「선조실록」 편수관 빙단을 살펴보면 문민측 인사를 중에서 미미정과 같은 대목의 인물들이 포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조 말기에는 이미 동인이 남·북으로 팔려가 북인이 영원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에 당시 선조실록에는 동민측 힘장보다는 북인측 힘장이 더 강하게 반영되었으리라 여겨진다.

97) 『선조실록』 권26, 30년 2월 병술.

98) 李慶濬은 이중의 5子 중에서 3子로서, 1582년 무과에 급제하여 순안·각산군수를 거쳐 평안·황해병사 및 황주·광주목사를 지냈으며 1603년부터는 제6대 삼도수군통제사보서, 1609년부터는 제9대 삼도수군통제사의 치위까지 올라갔다(『轉山李氏韓平其祖世譜』). 이중의 2子 李慶濬은 선조 18년에 칙년시 급제로 관계에 진출하여 흐르침관까지 역임하며 후에 좌봉한에 임명되었고, 이중의 4子 李慶浚은 선조 24년 칙년시 급제로 병조과장을 역임한 후 임진왜란 때 종에 助防將邊機從事官으로 임명되어 활약하다가 상주에서 순절하고 말았다.

99) 『선조수정실록』 권26, 25년 6월 기축.

100) 『선조실록』 권60, 28년 2월 음축.

101) 『선조실록』 권87, 30년 4월 험술.

동하였던 한산 이씨의 인물들을 추적해본 결과, 같은 문중내에서 이산해는 북인(후에 대북의 영수)세례, 이증은 북인이면서도 성흔과 윤곡의 문도이기 때문에 중도적 입장을, 이산보는 서인세력, 본고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지만 이덕형과 이기는 북인세력의 입장에 서 있었다. 이같은 사실은 선조조에는 문중이 결코 당파형성의 철대적 기준으로 작용되지 못하였던 점을 잘 설명해 준다.

백 남 육 (동서울 대학)

명종대 등과하여 선조대에 걸쳐 오랜 관직생활을 한 아천군 이중에 대한 정은경 선생의 발표는 조선중기 선조대의 정치상황에 대한 것으로 많은 시사를 받을 수 있었던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봉당정치가 발생하고 분파되어가는 시기에 활동했던 이중의 생애에 대한 발표를 들으면서 그동안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등 봉당으로 인식되었던, 어찌보면 이같은 큰 흐름 선상에서 이해해 왔던 선조대의 정치 흐름과 그 구성 줄기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정치사에서 명종대와 선조대의 정치는 사람이라 부를 수 있는 정치세력이 형성되고 이들이 다시 훈구세력 및 외척파의 정치적 갈등과 일정한 협력의 관계를 유지했던 시기로 본다는 점에서는 많은 이들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정은경 선생께서 꾀역한 전체적인 흐름 역시 그 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물의 생애와 정치여정을 연구하고 이를 정리하는 것이라 및가지 좀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발표논문의 전개와 내용상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점을 확인하면서 도쁜의 요지로 제시할까 합니다.

2장의 1절 이중의 생애와 관련한 기록은 대체로 북해유고(北海遺稿)의 아천군공시장(鷺川君公疏狀)의 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내용이 대체로 사호를 청하기 위한 글이라고 할 때 주로 업적과 성품을 기리면서 쓴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중의 인물됨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시작을 얻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또 실록이나 다른 기록 속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이용한 경우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의미부여를 할 것이 아닌가도 생각합니다. 조선시대에서 위민이나 애민사상은 관료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었습니다. 아천군 이중이 보여준 위민이나 애민사상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2장 2절 한산이씨와 이중을 보면 대체로 이중, 이산래, 이산보에 대한 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한산이씨 가문이 정치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데에는 이들 개인의 능력이 물론 큰 부분이었겠지만 그와 함께 한산이씨 가문이 갖는 사회적 의미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좀더 살펴보기 위해서는 족보 자료 등을 이용하여 당시 한산이씨 가문의 혼인관계를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즉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죄조부모 등과 관련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가 신분제사회이고 기득권세력의 경우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혼인을 통한 정치적 계류가 갖는 의미를 지나쳐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사람세력이 형성은 인척관계와 세원 등을 통한 학연과 지연관계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것 같으면 아천군 이중의 경우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리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5쪽의 표 밑에 서술된 내용을 보면 인척지간이므로 이종과 이산태가 같은 동인세력이라고 한 표현이 있는데 나중에 제시되는 내용을 보면 이산보는 서인입니다. 그러면 이종의 경우 둘인이라고 보는데에는 확증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발표자가 언급했듯이 이종은 국조인물고나 여러 자료 등에서 서인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이 많습니다. 좀더 분명한 근거가 제시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3장 선조대 정치세력의 동향과 이종

1) 선조대 정치세력의 동향

선조대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풍당세력이 형성되고 이들이 분파되는 시기였습니다. 굉장히 복잡할 줄로 알지만 혹시 발표자에서는 이를 정치세력들을 정리하여서 제시할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그 속에서 아천군 이종이 차지했던 위치나 위상을 제시한다면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세부적인 문제입니다만 9쪽의 세 번째 단락에서 걸어온 사건이 제시되었는데 이 사건은 동인과 서인의 직접적 충돌이라고 할 만한 매우 중요한 정치적 사건입니다. 이제 아천군 이종이 취하였던 입장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을 좀더 자세하게 보여 주어야 이종의 정치적 입장은 살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이종의 활동

발표자께서 이종의 관력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제시하여 주어서 그의 생애를 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종은 선조 5년에 이미 이조정랑의 자리에 오르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실의경과 김효원의 갈등이 벌어진 시점과 비슷한 때인 듯 합니다. 혹시 이들과의 관련성을 없을까요?

15쪽의 첫째줄을 보면 이종은 동인 복인으로서 오히려 서인과 같은 정치적 입장은 취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특히 왕위계승의 문제는 각 정치세력의 생사와도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선조와 광해군의 왕위계승문제에 대한 이종의 명확한 입장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4. 맷음말

맺음말에서 이종에 대한 설득에서의 평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북인계열에 의해 정리된 것으로 생각되는 선조실록에서 오히려 북인계열로 분류되는 이종에 대한 평이 싸 좋지 않은 듯하여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아천군 이종의 정치활동을 본다면 발표자께서 지적한 대로 중도적인 입장을 많이 취하고 있어 정치적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발표자께서 좀더 다각적으로 아천군 이종의 정치활동을 접근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글으로 발표주제를 연구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천군 이종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정은경박사의 높은 학식과 많은 노력 통해 얻은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천 화 숙 (경원대학교)

안녕하십니까, 경원대학교의 역사·철학부 교수 천화숙입니다. 이번 정은경 선생님의 '宣祖朝 정치세력의 동향과 李增의 활동'이라는 논문은, 선조대 경계에서 활약하였던 李增이라는 인물연구를 당시의 정치상황 및 당파의 형성과정을 통하여 살펴보며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선생님의 논문은 그 동안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李增에 대한 연구를, 자료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논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점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첫 번째로 논문의 體裁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장과 3장의 제목 및 세부 목차를 일부 바꾸어 서술하였으면 합니다. 즉 2장에서는 李增이라는 인물을 보다 객관적이고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李增의 生애」에 대해 家系·學統·교우관계·성품·관직경력 등으로 세분하여 서술하고, 3장에서는 선조대의 정치적 상황의 변동속에서 이중의 역할 및 위치를 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선조대 경국의 동향과 이중의 활동」에 대해 壬辰倭亂을 중심으로 새 시기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새롭게 발굴하여 연구한 李增이라는 인물의 특성을 설명하게 부각시키고, 선조대의 경국의 주이와 관련하여 李增이라는 인물의 활약상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보다 입체적이고도 구조적인 논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논문의 서술과 관련하여 서론에서 자기 논문에 대한 평가를 필자 스스로 하고 있는 것 즉 '이번 연구는 역사속에 묻혀 있던 이중이라는 인물을 새롭게 발굴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이나, 또는 결론에서 나와야 할 말 즉 '이중이 활동했던 선조대에는 당파의 형성초기에 해당되어 가문이나 문우에 따라 당색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는 것이 서론에서 나오는 것 등은 논문을 서술할 때 주의를 해야 될 대목으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결론에 나와 있는 이중 및 그의 아들 이정준에 대한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의 평가도 별도의 장이나 절을 설정하여 서술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지며, 결론에 각주를 표기한 논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결론에는 각주를 달지 않은 것이 관행이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세번째로 필자는 풍당정치론과 당쟁론의 두 시각중 어느 입장을 지지하며, 왜 그러한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서인 조현의 상소에는 왜구침입을 대비하기 위한 적합한 인물로 북인인 이중을 들고 있는데, 이중이 추천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북인이면서도 성흔과 용과의 문도었다는 점이나, 정치적 성향이 북인이면서도 중도적인 입장은 위한 것 때문입니다? 아니면 이중이 왜구를 막아하는 데에 특별한 재능이나 방책이 있어서입니까?

다섯 번째로 선조대 한산 이씨의 인물을 추적해본 절과 문중이 결코 당파형성의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되지 못하였다라는 정선생님의 지적은 옳지만, 문중이 당파형성의 주된 근거의 하나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어려집니다. 따라서 다소 예외가 있다고 하여 당파의 형성에서 문중의 영향력에 최외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제로 정선생님의 결론에서 이산보를 제외한 이산해·이중·이덕형·이기 등이 북인세력의 입장에 서 있다고 서술하는 데에서도, 문중이 당색의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주제 발표 2

이 증의 漢詩 연구

발 표 : 박순임(상명대학교, 국문학)

토 론 : 김동주(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문학)
한춘섭(성남기능대학, 국문학)

李增의 漢詩 연구

朴 肖 任 (상명대학교 국문학)

1. 머리말

北星 李增은 1525년(중종29년)에 李之叔의 아들로 태어나 명종, 선조 대에 내, 외직의 여러 벼슬을 역임하고 1600년(선조33년)에 태계한 조선조 중기의 문신이다. 1560년에 별시 문파에 병과로 급제한 이래 승문원 정자, 홍문관 정자, 홍문관 박사, 수찬, 지평, 사간 원의 정언, 현납 등을 역임하고 함경도 북평사와 경기도사를 지냈다. 1568년에는 원집종사로 중국의 사신을 맞이하였고 이어 내직으로 별조, 호조, 형조 참의와 도승지를, 외직으로 황해, 충청, 전라, 경상 4도의 관찰사를 역임했다. 그 뒤에 형조, 예조, 이조 참판, 한성부 좌윤, 우윤, 부제학, 대사헌, 동지의금부사 를 역임하고 정여립 육사 이후 평난공신으로 아천군에 봉해졌다. 성철사로 중국에 다녀온 바 있으며, 형조판서, 자현대부, 경현대부, 형조, 예조, 공조의 판서, 좌우 참찬 등을 거치고 태계 후는 대광보국승록대부의정부 영의정아천부원군에 추증되었다. 칠립하고 정직하여 홍문관 정자 재직 시에 좌천된 적도 있었고 평소 효도와 우애가 치극하였다고 한다.

그의 문집은 유실되고 후손이 몇 회에 걸쳐 수집한 시와 실록의 관련 기록을 엮은 「북예유고」가 있다. 여러 벼슬을 역임하고 큰 진단을 지난 후로도 꾸준히 조정에 참여한 점이 후대의 주목을 받을 만한데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연구가 부진한 것은 유감스럽게도 그의 문집이 충실히 전해지지 않았고 북봉성세의 중요한 숨속에 그의 시가 둔한 까닭이 아닌가 한다.

「북예유고」에 실린 시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1. 次具使相酬
2. 永保亭
3. 體山縣
4. 又
5. 新昌山亭
6. 又
7. 丹陽島潭

卷之三

8. 次韓山壁上韻
9. 題雙溪堂
10. 次高山館韻
11. 山題詠
12. 又
13. 又
14. 醉呈元帥座下
15. 次養真堂壁上韻
16. 次南崖韻
17. 西南分韻得來字
18. 次廳天韻
19. 酒拾荒藁獻呈諸公席上
20. 贈次博榮
21. 次南崖韻
22. 贈次雄恩堂韻
23. 次南崖韻
24. 贈次商山長重陽右龍山亭見寄
25. 再次前韻
26. 次西川玉具韻
27. 龍山江亭次南崖韻
28. 次忠州板上韻贈主教令公
29. 次洪陽板韻奉呈主教崔衡源令公
30. 題慶源客舍
31. 題南風寒碧樓
32. 題堤川縣壁上
33. 和山海計主事馬祖諤詩
34. 和某人韻
35. 贈拜西郊令前謹次廳天台和韻
36. 沈白相告老歸鄉謹呈花批
37. 再步前韻呈飛山廳天台相座前
38. 贈次廳天台相韻
39. 贈飛山廳天台相
40. 抨廳鵝沈公宗敏

2. 이중의 詩 作品

이중의 시는 남아 전하는 과정상 實景을 그린 것이 많고 회자에 있을 때의 公的, 私的
심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눈앞의 풍경과 사물에 나아가서 저절로 성정을

드러내고 흥취를 기탁하는 것이 많아 開闢幽淡한 풍격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그의 시에 대하여, 경두경은 格律이 '清遠雅健淵潤乎'하여 '有餘味'하다고 평을 하고 있으며, 자손 이병연은 "蘊藉敦厚"하다고 했다. 대개 그의 시들, 대상의 비중에 따라 세계, 즉 外物에 비중을 두고 읊은 시와 내면적인 자아에 비중을 둔 시로 나누어 본다면 다른 인물에 관한 시, 풍경에 관한 시는 전자에 속하고, 관인으로서의 처지나 나그네의 처지에서 회포를 읊은 것은 후자에 속할 것이다. 편의상 이를 작품을 나누어 살펴보자.

가. 다른 인물에 대한 회포를 그린 시

<具使相頌>이란 시를 보자.

觀得天輕眼力高 하늘이 아끼는 것을 겨우 얻으니 안목은 높아지고
杏然革拂照林皋 아득히 화려한 집은 술 언덕을 비추네
登臺步輕風吹面 대에 올라 구렁을 걸으니 바람은 낮을 스치고
倚竹看松露滴袍 대나무에 기대 솔을 바라 보노라니 이슬이 어느새 도포를 적시네
一室圓潔官似塵 한 방 가득한 책은 관청이 승여 있는 듯하고
四時光景與還勞 사사의 풍경은 그 흥취가 도리에 괴롭네
想應夜靜造明月 생각건대 밤이 고요하면 밝은 달을 맞이하여
手撫桐孫意轉豪 손으로 거문고를 만지며 뜻이 점점 호기로워져리라
(萬曆壬午至月下院 觀察使李增)

이 詩는 具使相의 시에 차운한다고 하였다. 구사상은 구사명으로 명나라 사신을 두 번 다녀온 적이 있는 짜닭에 사상이라 칭한 듯하다. 구사명과 이중의 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두 사람이 유사한 연대이며, 이 시로 보건대 교유가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이 시를 차운 만년은 1582년에 해당하는데 이 시기에 구사명은 탄핵을 받아 남양부사로 나가 있을 때이며, 이중 역시 외직으로 황해, 충청, 전라, 경상 4도의 관찰사를 두루 역임하던 시절이다.

선조때 선진 사류들은 원로 사류들을 심하게 단핵했다. 대부분의 사류들은 뜻을 금하지 않으나 구사명은 급내 따르지 않아 자주 탄핵을 받았는데 이 시는 그러한 구사명의 뜻에 공감하고 그 처지를 위로하는 뜻을 표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인간적인 우의가 다른 시에서는 다정다감한 경리로 나타나 시인의 따뜻한 실상을 읽을 수 있게 한다.

南世純眞第一人 밝은 세상에 가장 순수하고 참된 사람아

襄薰蘭室寓情親
 居家行 人皆信
 臺國疏草語轉新
 追想去年相敍疊
 不堪今日獨悲辛
 生安死順君何恨
 病裏題詩自濕巾

향기 훈훈히 벤 방에 반가운 정이 친숙하네
 집안에서는 사람이 모두 다 믿고
 나라를 근심한 상소는 말마다 새롭네
 돌이켜 생각하니 지난해엔 서로 맹은함을 렸건만
 이제는 홀로 큰 슬픔을 견딜 수가 없구나
 살아서 편안하고 죽어서 소중한대 그대는 무엇을 한할까
 병든 가운데 시를 쓰면서 절로 수건을 적시네 (挽隱齋沈公宗敏)

심종민은 명종 9년에서 광해군 10년 사이에 산 청송 사람으로 청만은 그의 호이다. 李珥, 成暉의 문인으로 文名이 매우 높은데 이중과 가까운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그의 인품과 충성스러움을 기리고 사별을 슬퍼하며 쓴 시이다.

<次聽天韻>은 청천당 沈守慶의 시에 차운한 것이다. 심수경은 중종, 인종, 명종, 선조
년간 4대조에 걸쳐 베풀한 문신이다. 이도 무릉성세에 꾸준한 문필활동을 하여 당대 문
단의 한 호를 보여주는 사람이지만 학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하다. 그는 조선
조의 시풍이 송에서 담으로 변화하는 시기에 살았지만 자신은 宋風의 시학을 견지하였
다. 그는 「유한집록」에서 예전에 한유, 소식을 익히던 사람들이 근자에는 그들의 시를 비
근하다 하고 이백과 두보의 시를 읽는 것을 비판하였다. 사람들이 옛 것을 싫어하고 새
것만을 좋아하고 명예만을 따르며 실질을 멀시하는 것이 가소롭다고 한 바 있다.

台老高年遯退稱
 歷延桂會每無違
 深因无妄投瓊句
 吟向城西到夕霏

삼금노인이 높은 나이에 멀리 찾기가 드문데
 암연 아름다운 모임에는 때양 어김이 없네
 깊이 풋땀에 구슬같은 글귀를 보내니
 읊으면서 성 서쪽을 할하여 석양에 이르렀네

이 시에는 심수경을 매우 공경하고 있는 태도가 나타난다. 이처럼 시류와 관계없이 자
신의 소신을 추구한 문사들과도 이중은 깊은 교유를 나눈 것을 알 수 있다.

나. 풍경을 노래한 시

이중의 대부분의 시는 풍경을 읊은 것이다. 이 시들을 통하여 그가 외물을 받아들이는
자세와 그의 시의 격조를 알 수 있다.

蓬萊方丈瀛洲憶
 碧海雲渺莫尋尋
 今日天公多借我
 三山移拂一江心

봉래, 방장,瀛주 지경에
 푸른 바다 구름 아득하여 찾기 어렵네
 오늘 하늘이 나에게 다 빌려주어
 산을 갈 가운데 심어 놓았네(丹陽島漂)

이는 단양의 용담을 그린 시이다. 璽山들을 눈앞에 끌어다 놓고 하늘이 세 산을 내게
빌려주어 강 가운데 심어 놓았다는 것은 시인의 용훈호탕한 기개가 아니면 표현하기 힘
든 일이다.

名區誰翻海中天
이름 있는 저경에 누가 바다 가운데 하늘을 열었는가
一坐神魂覺悄然
한 번 많으니 정신이 문득 상쾌하네
文國翫蘿今古異
玄臯의 아련한 노을은 이제와 옛날을 넘나들고
化城樓閣有無邊
화성의 누각은 있는 듯 없는 듯
暮年身世豈蓬鬢
저문 나이에 양 쥐털머리 쪽대와 같고
漁父生涯一釣船
고기잡이 생애는 하나의 낚싯배
烏向沙鵠盟鄉重
갈매기를 향하여 맹세는 청중한데
備渠曾結兩三椽
가련하다, 그대는 일찍이 작은 길을 지었구나

이는 '영보정'을 읊은 시다. 영보정은 충청남도 보령군에 있는 정자이며 수군절도사의
병영 안에 있었다. 정자 주변의 경관이 매우 아름다워 墨客들이 자주 찾던 곳이다.
일찍이 朴闇이 영보정 4수를 치어 노래한 바가 있고 이춘영도 4수를 치어 豪宕, 방사하
다는 평을 들은 바가 있다.

누군가가 바다 가운데 하늘을 열었다거나 '속古異', '有無邊' 등 시간과 공간의 분별을
넘나드는 표현이 돋보이며, 신선의 경지에 이른 듯 호탕하다가 다시 하나의 낚싯배로 내
려 있는 세상의 그 자유자재함이 놀랍다.

절경이 주는 이러한 감동이 때로는 도도한 흥취로 표현되기도 한다.

玉立瓊瑤霧後山
옥처럼 서고 구슬을 두른 듯 놀 덜힌 산
日斜銀海眩猶看
해가 은빛 바다에 비끼니 현란하여 보기 어렵우네
蕭橫清興悠然起
파고의 맑은 흥이 유유히 일어나니
不覺吟眉眞雨端
시 읊는 어깨가 저절로 비글에 솟네

德山縣을 읊은 시인데 덕산현은 오늘날 충남의 덕산군이다. 이 시도 역시 충청도 관찰
사로 있을 때 지은 것으로 보인다. 눈덮힌 산을 하얀 옥이 서 있고 밝은 구슬이 풀려쳐
져 있다고 한 표현은 매우 뛰어난 은유이다. 거기다가 해가 비치는 바다조차 은빛으로
현란하니 설경은 가히 점입가경임을 알겠다. 이렇듯 남카로운 비유가 자신도 모르게 솟
아오르는 어깨로, 즉 도도하면서도 원만한 흥취로 마무리된다는 것은 先景後情의 대용뿐
아니라 갑각의 대비에 있어서도 예사롭지가 않다.

晴寫斜日無沈紅
개인 물우리 비단 해는 아직 붉은데

醉面醺醺受好風
취한 얼굴이 훈훈하여 좋은 바람을 받네
目送長天孤島外
눈을 긴 하늘의 외로운 섬 밖으로 보내느라
不知花影撲杯中
꽃 그림자 술잔 속에 담긴 것을 알지 못하네

이 시에서는 尾句가 암권이다. 단순한 풍경 묘사에 그치지 않고 취홍이 도도한 가운데 물아일체가 되어 꽃과 술잔이 어우러지는 낭만을 시각과 후각의 공감각을 동원하여 읊고 있다. 이러한 서정은 다음 시에서 절정을 이룬다.

層臺桂面放長吟
층층의 누대 마름다운 절기에 긴 춤음을 놓으니
未盡高懷日易沈
높은 회포를 다하지 못했는데 해가 쉽게 가라앉네
更把殘樽移露席
다시 남은 술잔을 잡고 한데 자리로 옮겨서
細聽松月照杯心
섬세한 송월은 술잔 속을 비추네
紅燭清尊舞鵝羅
붉은 촛불 맑은 비단을 춤추니
碧空烟月浩如波
푸른 하늘 연월이 허기가 물결 같네
貧心須盡高亭裏
상줄 마음은 모름지기 높은 정자의 흥을 다하고
美景良辰樂事多
아름다운 경치 좋은 시절에 즐거운 일도 많을사(<次養眞室棟上韻>)

이번에는 송월이 술잔 속으로 들고, 붉은 비단처럼 너울거리는 촛불이 술잔 속으로 든다. 하늘의 푸른 빛과 아련한 달빛의 흰 빛이 함께 향연을 베풀 듯 그의 서정은 한 때 매우 화려하다.

<龍山江亭次南崖韻>에는 일상을 담관한 모습을 원숙하게 회화처럼 묘사하고 있다.

飛絮初狂柳暗黃
날오는 벼들가지가 처음 미치고 벼들은 어둡고 누른대
辰良地勝可彷徨
때가 좋고 경치도 좋으니 가히 서성일 만하네
山階花晚春猶在
산뜰에 꽃이 늦었는데 봄은 오히려 있고
江閣風高夏亦涼
강집에 바람이 높으니 여름이 또한 서늘하네
瓢船湖生閒整縛
큰 배에 조수가 일고 돌아줄 정리하는 소리
麥田燒撥看踏莎
보리밭 연기 힘싸 일하고 호미질 하는 것 보네
自公多暇閑眠熟
공사에 이가가 많아 둔가로운 잠이 익으니
却笑蘿同乳燕忙
문득 차마 사이 어린 체비 바쁜 것이 우습네

城西十里隔離塵
성 서쪽 십리에 시끄러운 티끌을 격했는데
引蔓山邊瀟水濱
정사를 이끈 산 가와 한수 물가일세
山雨江雲皆活畫
산 비와 강 구름 모두가 산 그림이요
酒家酒店是茅蘿
술집과 물고기 파는 곳 떠갑 이웃
素琴黃券因教好
환 거문고 누른 책 그대로 좋고
秀味深樽為所耽
높은 맛 깊은 술잔은 즐길 만하네

跨馬櫻回來醉臥
 말타고 몇번이나 와서 취해 누웠는가
白頭運作浪遊人
 흰머리에 도로浪遊人되었네

이 시는 한가하고 소박한 삶의 모습을 담담하게 그리고 있는 것이 앞의 화려한 홍휘와 대조를 이룬다. 마지막 시구에서는 세간의 번뇌를 초월하고 있는 고고한 선비의 기상을 엿볼 수 있다.

다. 관인으로서의 심회

한편 이중은 의직에 나가거나 혹은 나와 있으면서 나라와 자신의 직분에 대한 공인으로 서회 깊은 심회를 보여주는 시를 여러 편 남기고 있다. <次洪陽板韻奉呈主教崔興慶公>이란 시를 보자

崔誠仁問政後平
 최후의 어진 소문 정사후에 더욱 평화롭고
直初鉉歌入尉城
 기쁘게 취해 음악도 몇으니 위로 지경에 드네
萍水杯尊淹笑語
 떠돌이 술잔은 웃음의 말을 가리고
海山雲日變險晴
 바다 산의 구름 한 해는 몇 번이나 흐리고 개었는가
多君宦宿鳴琴臥
 그대는 자주 잔치 자리에 거문고 울리고 누웠었지만
愧我霜鬢安獨行
 나는 서리 맞은 머리로 안찰사로 가는 것이 부끄러운데
頓有幽臺鑿碧氣
 다행히 연못의 누대가 있어 더워 기운 녹여
三更客枕夢魂消
 삼경의 나그네 꿈의 넋이 맑으네

이 시는 韓韻의 나이에 안찰사로 가는 것이 부끄럽다고 하면서 최홍원이란 사람의 어진 정사를 결손한 어조로 칭송하고 있다. “萍水杯尊淹笑語 海山雲日變險晴”의 시구에서는 세간사의 맑고 어둠을 다 겪어낸 깊은 의연함이 묻어난다. 물 위에 떠도는 술잔 속에 모든 하찮은 말들과 공허한 웃음이 수없이 가려지고, 바다 위의 구름 한 해는 몇 번이나 흐렸다가 개었는가. 그 오랜 세월의 희로와 명암을 초연한 심정으로 그리고 울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나그네 꿈의 넋이 맑다고 한 것은 시인의 자기 직분에 대한 긍정적인 심사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밤마다 임금과 어버이를 그리며 충효를 다짐하는 굳센 의지를 토로한 시도 있다.

不關懸遠詒勞案
 꾸불꾸불 끝까지 지나 수고로이 짐 풀었네
但前支缺味正離
 외로운 길에 턱을 꾀니 그 앞 정히 쓰구나
政悔數缺春意動
 성진 버들 두어 가지에 봄 뜻이 이는 듯
龍年千疊雪光寒
 어지러운 봄우리 첨첩하니 눈빛이 차갑네
年年西北途中客
 해마다 서북으로 길가는 나그네

夜夜君親夢裏聞
밤마다 임금과 어버이 꿈 속 얼굴이네
男子一生須有役
남자 일생에 모름지기 일이 있어야 할 것이니
許身忠孝敢求安
충성과 효도에 몸 바치고 감히 편안함을 구하라(<次高山龍韻>)

고산은 현재 전북 완주군인데 천라도 관찰사로 있을 당시 타향에서 나그네의 서글픈 회포를 굳센 기개로 다시 세우는 모습이 보인다. 외로운 집에 집을 풀고 앉으니 그 맛이 가히 쓰다거나, 해마다 서북으로 질 떠나는 나그네라는 표현은 앞서 읽은 풍경의 화려한 서정과 달리 오랜 외적에 치치고 서글픈 삶의 고단함이 배어 있다.

라. 외로운 객회를 그린 시
다음은 '題慶源客舍'라는 시이다.

靖郊芳草水汙汙
맑은 물 끗다운 물 물은 더없이 넓은데
退盡三春客異鄉
삼춘이 다 하도록 나그네는 타향에 있네
天接險嶮雲翻櫛
하늘은 대체에 접하여 구름이 어둡고
地進沙從路回長
땅은 모래 물가에 이어져 길이 굽어 길구나
吟鞭倦拂除山下
시울는 채찍 게으르게 그늘진 산기슭에 멀치고
猶夢勞魂渙水闊
돌아가는 꿈은 절되어 한수 헛빛에 날흐네
幸值聖朝漫圍醉
다행히 성조를 만나 면방이 고요한데
醉來隨道臥胡蘿
취해 와서 마음대로 오랑캐 땅에 누웠네

이 시는 객사에서 쓴 시로 나그네의 외로운 심회가 드러나 있다. 구름이 암함하다거나 길이 굽이굽이 길다거나 하는 것은 돌아갈 길이 묘연함을 비유하고 있다. 돌아가는 꿈이 허망하게 물 위 헛별과 더불어 남다 만다는 표현이 시인의 객회를 더욱 실감나게 보여준다. 객지에서의 이러한 외로움이 더욱 진하게 묻어나는 시들이 있다.

久客長程百慮侵
오랜 나그네 긴 길에 백 가지 근심이 드는구나
一年光景屢窮絏
일년의 경치가 깊은 그늘로 묻혀네
小亭寥落誰相語
작은 정자 고요한데 누구와 서로 말 나눌까
歲暮幽襟對竹林
이 해도 저무는데 그윽한 웃깃은 죽림만 대하네

이는 '新昌山亭'이란 제목의 시다. 또 한 해는 저물어 가는데 더불어 말을 나눌 이도 없이 그윽한 웃깃만 죽림을 대하고 있는 외로운 처지다.

村隣蕭吏民稀
마을 면기 쟁쟁하고 관리와 백성도 드문데
雪岳當軒冷透衣
눈발이 마루에 드니 한 기운 옷에 스미네

寥落客懷吟獨立 쓸쓸한 나그네 화포 홀로 읊고 있으니
寒雅初帶夕陽飛 찬 까마귀가 먼저 석양을 띠고 날으네

道樹翟飛盡 저 멀리 나무에 까마귀 날아 가 버리고
空軒客到初 먼 마부에는 나그네가 처음 이르렀네
孤吟撫酸述 외로이 읊어 아픈 자취 어루만져 보자만
鬢髮白蕭疏 귀밑머리만 하얗게 성겨 가누나

시인은 까마귀를 자주 그린다. 먼 나무에 까마귀가 다 날아가고 없다든지, 찬 까마귀가 먼저 날아온다 하는 표현이 자주 보인다. 자연을 맷삼아 소일하는 유유자적하면서도 외로운 심사를 까마귀에 부친 것이다.

櫻臺濂酒壓泡聞 다락집이 깨끗이 물을 놀려 업었는데
細竹成階渡產苦 가는 대 계단을 이루어 디끌이끼를 보호하네
遠樹寒鶴山欲暮 먼 나무에 찬 까마귀 나니 산이 저물려 하고
小庭迷雨客初來 작은 틈 가는 비에 나그네가 처음 오네
老年詩力吟無就 늙은이 힘에 시 읊기가 어렵고
鳥比鶴愁夢已回 높은 헤개 고향 시름은 꿈미 이미 돌아왔네
食食真元催甲子 가고 가는 정원(貞元)이 갑자리를 계속하는데
天心又見一聲雷 천심에 또 한소리 우뢰를 보겠네.

又

歷遍湖四五十州 호서의 오십 고을을 두루 거치니
飄飄轉覺此身浮 떠도는 것이 도리해 이 몸이 부질없음을 깨닫겠네
客愁無賴然日 나그네 시름 끝이 없어 날마다 시름하여
愁入千華更上頭 시름이 천관래나 들어와 다시 머리로 올라가네

의직으로 다니는 책회와 노년에 느끼는 뼈발의 무상함이 함께 나타나 있다. 아침 두보가 고향을 그리는 모습이 연상된다. 쳐두는 산, 찬 까마귀, 이끼, 작은 틈, 가는 비, 나그네, 향수, 시름 등 일련의 시어들은 매우 타향에서의 외로움과 서글픈 삶을 적실히 드러내는데 일조하고 있다.

3. 당대 漢詩增의動向과 李增의 위치

이상에서 이중의 시 작품을 보고 초기와 만년에 따라 다양한 시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그의 삶의 편린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당대의 다양하고 풍성한 시풍과 무관하지 않다.

조선 중기는 초기의 안정에 이어 풍요로운 穩陵盛世를 이루는 바, 시단에 있어서도 많

은 인물이 배출되어 성시를 이루었다. 선조 초기에는 풍격과 기상이 뛰어난 蘆守愼이 대표적인 시인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鄭磧, 鄭礪 형제, 朴枝葉 등의 도선가들도 시단을 더욱 풍요하게 하였다.

조선의 시단이 唐風을 본격적으로 일으킨 것도 이 시기이다. 李達, 白光薰, 崔慶昌, 등 의 소위 三唐詩인이 朴淳으로부터 唐을 배워 활약하였고 高敬命, 林悌 등과 함께 호남시 단을 빛냈다. 車驥, 崔暉 외에 許筠, 李好閔, 車天路, 柳夢寅, 李安訥 등 일가를 이룬 인 물들이 수없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황진이, 이매창, 이옥봉, 허난실현 등 여류시인도 모두 이 시대의 인물들이며, 위황시의 선두인 최기남, 김효일, 최대립 등도 모두 이 시대에 활동하였다.

선조 초기에 가장 뛰어나다는 노수신은 宋詩風이 풍미하던 시대에 두보를 배운 시인으로 沈鬱老健한 풍격을 가지 老杜의 格力を 얻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가 윤사 사화 때 유배되어 가서 쓴 시 <十六夜喚仙亭>을 보자,

二八初秋夜 옛옛새날 초가을 밤
三千弱水蔚 삼천리 약수 앞에 서 있네
昇平好聽聞 대평성세엔 누각이 좋은데
宇宙幾神仙 우주에는 신선이 얼마나 되는가
曲櫳清風度 굽은 난간엔 맑은 바람 지나가고
長空素月懸 긴 하늘에는 흰 달이 걸려 있네
慨然發大嘆 할쓸히 길게 휘파람무니
孤鶴過歸鶴 외로운 학이 너울너울 날아가네

정자는 예로부터 대평성세의 상징물이다. 배소에 있으면서 정자에 대평성세를 그리는 설화를 부쳐서 쓴 노수신의 이 시는 이중의 시와 유사한 서정을 보인다.
이중이 창산경을 읊은 시를 보자,

挾綵紅葉水玲瓏 시내를 빤 붉은 잎에 물이 맑은데
曲檻凌雲依半空 굽은 난간 지나는 구름 반공에 걸려있네
有客暮投宿魄我 나그네가 저물게 왔다가 새벽 길을 계측하는데
羨聞高臥百年中 신선은 높다랗게 백년동안 누여있네

쓸쓸한 가을을 배경으로 하고 물과 난간과 자연을 하나로 엮어 사람의 성정을 기탁하고 신선의 경지에 빗대어 보고 있다는 점에서 두 작품은 매우 유사하다.

이중의 시 가운데 전란 후 고향을 그리며 쓴 두로의 시를 연상하게 하는 시가 있는 것과도 관련하여 보건대 이 시기에 풍미한 당풍의 영향이 그의 시에서도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가류의 유유자적한 풍모를 보이는 등 이종 시 세계의 다양성은 조선 중기의 풍성한 사풍 한가운데 그가 위치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라 하겠다.

김동주

宣祖時代를 소위 楊陵盛期라 하여 많은 文人们이 등장하였는데 北崖 선생도 그 중 한 분이었습니다. 목릉시대의 文壇에서는 文은 唐宋八家文을, 詩는 唐詩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북崖 선생도 물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北崖遺稿》에 전하는 시들을 살펴보면 唐詩風이 풍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詩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新昌山亭>인란 작품에

遠樹鶴飛盡 아스라한 나무엔 까마귀 날아 사라지고
空軒客到初 딩 빈 마루엔 외온 나그네 갓 이르렀네

라는 '鶴飛盡'은 盛唐詩人이었던 李白의 <獨坐敬亭山>이란 작품에

衆鳥高飛盡 뜻새들 높이 날아 사라지고
孤雲獨去閑 외온 구름 홀로 한가로이 떠간다

의 '衆鳥高飛盡'을 읽어문 대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次忠州板上贈贈主牧令公>이란 작품에

客上高樓歲暮天 세밀에 외로운 나그네 높은 누대 오르니
寒村冷壓望蕭然 쟁쟁한 마을 차가운 골짜기 시야에 들어오네

란 것도 李白의 <金陵城西樓月下吟>이란 작품에

金陵夜寂涼風發 금릉 고요한 밤 시원한 바람 부는데
獨上高樓望吳越 혼도 높은 누대 올라 오월 땅 바라본다

의 '獨上高樓望吳越'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그를 연상해서 이렇게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주목같은 시들이 담긴 《北崖遺稿》를 살펴보았더니, 특히 詩는 草書 또는 行書로 써어져 있고 行間에다 정자로 읊겨주었는데, 초서나 행서로 된 원문 자체

에도 틀린 글자가 「리」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자로 읊기는 과정에서는 틀린 글자들이 눈에 많이 띠었습니다. 원문의 경우 예를 들면 〈次韓山壁上韻〉이란 작품에 '彷彿音容几席傍'의 '席'자는 席자였어야 될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물론 필사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

박순임 교수는 이번 〈李培희 漢詩 研究〉에서 이러한 대본을 가지고 틀린 글자까지 바로잡아가면서, 또는 원의를 그리 손상하지 않으면서 꼼꼼하게 번역을 하여 발표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년간 번역해 온 경험으로 볼 때 韻文 특히 詩 같은 경우는 번역에 있어서 散文과는 달리 여러 번으로 계약이 많습니다. 작자의 시대배경과 시를 짓게 된 동기 등을 파악해야 하고, 시의 뜻도 제대로 전달해주어야 하고, 번역문도 출문에 맞게 글자 수를 조절해야 하고, 또한 言外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詩는 경우에 따라서는 의역도 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박순임 교수가 복제 선생의 시를 번역함에 있어서 수고한 점에 조금 더 수고를 하였더라면 더 좋은 작품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춘 십 (성남기능대학)

1.

오랜 전통문화원이 파괴되어 거듭 빼어난 선 도시에서 지난 과거의 역사속 優人들을 연례행사 주인공으로 모신다는 일이 쉽지 않다. 더구나 선행연구조사 되어 있지 않은 地土文化 자료수집과 地域人들 연구야말로 무려움 마저 없지 않다. 특히, 옛 광주군내 4개면 관찰권이던 오늘의 성남시에서 몇백년전 큰 어른들의 승경을 다시 느끼려함에는 더 없이 힘겨운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성남문화원(부설) 향토문화연구소 간판앞에 모인 우리는 이 일에 주저치 않으며, 벌써 몇 낸째 지속적인 연례행사로 향토사 밭굴을 위해 古文書 앞에서 수천 시간동안 驅策을 모으고 心氣를 북돋아 잡초를 뽑고 흙먼지를 거둬낸 현장밭굴의 조사단처럼 간혹, 짜릿한 흥분을 느낀 채 이 특별 연구사업에 허리춤 잡하고 만 것이다.

유 해의 韓山이자 옛 어른 북崖(北崖)선생의 경우, 門中 후에 외 대부분의 성남시민은 물론, 향토사 전문가 조차 자, 아호, 시호, 행적 조차 분별치 못한 게 솔직한 고백이다. 더구나 문당 개방 10년째로 접어든 성남도시에서 名所중에 제일 으뜸으로 손꼽히는 '중앙공원' 그 안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도외시해 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현대 문명의 고질병 속에 한심스러울 뿐이다.

절만 그럴싸하게 포장되었을 뿐이요, 그 땅에서의 高識俊士 행적이 어찌, 후세사람 오늘에 이르도록 4세기 이상이 지나면서 묻혀 왔을까 함이다.

2.

네 분야의 주제발표를 통해 北崖선생의 삶은 그나마 천만다행 세상에 알려졌다고 생각하며, 그리 다행 않은 漢詩 몇 작품을 꼼꼼하게 살핀 박교수의 論評을 읽은 후 본인도 극히 몇 작품이 힘겹게 후손에 의해 수합되고 증보 전승됨을 안다깝게 여기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亂世를 당한 정치 지도자의 풍모가 어떤 작품에서 찾을 수 있는지?

둘째, 조선 漢文學史 源流를 기초로 하여 우월성을 한 마디로 지적한다면 어떤 점이며?

셋째, 순수 문학 관점에서 북崖선생의 친필복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

넷째, 북崖선생의 작품분석에서

인물에 대한 회포, 풍경노래, 관인으로서의 상회, 외로운 책회 등으로 評說한 대로라면, 배 작품속에서 늙음과 탄식과 술 마심의 문구는 지나친 허무성 토

로모 파도 좋을까 하는 摺盃을 내놓아 본다.

3.

75세를 일기로 遷官하신 〈대광보국 송목대부 의정부 영의정 아천부원군〉 정1품 일생동안을 충실히 품제 위상과 "유하고 어질고 착한 것이 奇(懿)요, 정직하고 간사하지 않은 것이 賚(簡)이다"라 칭송을 울린 이경석(1595-1671)의 "아천군공시장" 蘋號 풀이 등을 참고해 보더라도 북애선생의 遗路은 너무 양심하기 그지없어 못내 아쉽기만 하다. 그러므로 이후의 폭단 사업으로 북애선생 생전의 고분이 두터웠을 여러 문인학자들과의 관계라든가 다 성씨 선조들의 文籍안에서 아천부원군의 文致는 계속하여 찾아내야 하지 않을까도 제안해 본다.

1659년 윤3월, 정동명(斗耕, 1597-1673)의 獻文이 첨가된 〈북애유고〉 글에서도 – "한 문장으로 한 시대의 조정을 새롭게 하고, 임금의 계책을 바르게 할 수 있었으며, 나라의 그릇이 되고 집안에서 王와 우에로서 꽃을 피우신 분"-이라 말한 근거를 좀 더 확실성있게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북애선생의 文氣, 文名 수집과 발굴을 멈추지 말아야 하겠다.

마지막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북애선생은 文士로서의 선비 이전에 君主 뜻에 誠心을 바친 정치지도자로서 또는, 治國經世를 바로 세워 준 나라의 1등 功臣이었음에 초점을 맞추면 어떠할까 생각한다. 우리의 한글로 지어진 글 한 편이 없다는 아쉬움과 함께 신변잡기를 대하는 몇 작품의 摹詩 문학 성과는 경색된 세상 단면만을 보여 주었다고 할 수가 있다.

주제 발표 3

李增의 생애와 사상

발표 : 박경룡(역사문화연구소장, 한국사)

토론 : 문수진(신구대학, 한국사)

이연복(서울교육대학, 한국사)

李增의 생애와 사상

박 경 봉 (역사문화연구소장, 한국사)

1. 鶴川君 李增의 생애

아천군 이중이 생존했던 시기(중종 20년: 1525~선조 33년: 1600)는 **內憂外患**을 치렀던 격동의 시대로 조선 건국 이후의 가장 큰 국난인 7년간의 임진왜란을 겪었던 시기였다. 이는 고려 때 몽고의 침입과 같이 민족사에서 가장 큰 외침이었다.

즉 아천군이 태어나던 해인 중종 20년(1525) 9월에는 천라도에 **倭變**이 일어났고, 만 5세 때인 중종 25년(1530) 1월에는 여진족이 **山平堡**에서 **變**을 일으켰으며, 3월에는 전라도 가리포에 **왜구**가 침입한 것을 격퇴하였다. 아천군이 15세인 중종 35년(1540) 7월 함경도에 침입한 여진족 40여 명을 사살하고 16명을 체포하였으며, 19세 때인 중종 39년(1544) 4월에 고성, **鷺梁**에 **왜변**이 일어났다. 문정왕후가 섭정하던 병종 3년(1548) 6월에는 평안도 만포에 침입하였고, 27세 때 병종 7년(1552) 5월에는 제주에 침입한 **왜구** 200여 명을 격퇴하였으며, 병종 8년(1553) 5월에는 제주에 **왜변**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아천군이 만 20세 때인 명종 즉위년(1545) 8월에는 윤원형의 **小尹** 일파가 윤임의 **大尹** 일파를 숙청한 **乙巳士禍**을 일으켜 많은 **士林**들이 죽거나 귀양갔다. 아천군이文科에 급제하기 전인 34세 때에는 임꺽정의 난(1569~1562)이 일어나고, 선조 8년(1575) 7월 **沈의겸**, **김효원**의 대립 논쟁으로 **東西分黨**이 생기는 등 나라 안팎의 사건으로 민심이 흥흉하였다.

조선초 미래 조선왕조의 **事大交隣政策**은 **對明事大**에 있어서는 큰 마찰없이 유지되었지만 **倭**와 **여진**을 상대로 했던 고린정책은 그들의 경제적 욕구의 해결이 허락되지 않아 이들이 항상 **叛**방을 침입하여 서남연안민과 서북면경민들은 피해를 받아야 하였다.

북방 여진족은 조선 초 **설종** 이후 북방개척이 다소 느슨해지자 여진족은 기회만 있으면 언제나 침탈을 자행하였다. 이들의 힘이 더욱 강해져 선조 연간에 들어와서는 더욱 심해져 선조 1년(1568) 5월 여진 기병 100여 명이 강계지방에 침입하고, 선조 16년(1583) 2월 **申砬** 등이 두만강 방면의 여진족을 정벌하였다. 선조 16년(1583) 7월 **尼湯介** 여진 기병 2만 명이 방원보에 침입한 '六鎧藩胡變亂事件'¹⁾, 선조 20년(1587) 9월 **檄島藩胡了尼應**

1) 李增, 「清江集」 卷 1, 年譜。

介 등의 두만강 하류의 鹿屯島 약탈사건으로 이순신장군이 이를 격퇴하기는 하였으나 南倭北虜의 위협은 날이 갈수록 심상치 않았다. 결국 李珥가 '육전 번호변란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시 병조판서로서 10만 양병을 주장했다는 '養軍民'이 포함된 「時務6條」를 올렸다.²⁾

倭와는 三浦倭亂(중종 5년, 1510) 후 壬申條約(중종 7년, 1512)으로 국교가 재개되기는 하였으나 故遣船, 故陽米의 양을 예전처럼 陽給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들이 다시 조선沿海를 침입하여 통교가 끊어지게 되자 丁未條約이 체결되어 국교가 재개되었다.

아천군이 30세 때인 명종 10년(1555) 5월에는 대규모의 왜변인 乙卯倭變이 일어났다. 이 왜변은 살포왜란 이래 故遣船의 감소에 고난을 받아온 해안들이 70척의 배를 이끌고 전라도에 침입, 영암, 달량포를 점령하고 어란포, 장흥, 강진, 진도 등지에서 만행을 저질렀다. 조장에서는 토벌군을 보내 薩岩에서 李調慶이 쇄적을 대파하였다. 한 달 후인 6월에 제주도에 왜선 40척이 침입한 것을 물리쳤고, 전라도 수군은 완도 앞바다에서 28척의 왜선을 물리쳤다. 이에 쓰시마(對馬島)島主는 이들 왜구의 목을 잘라 조선에 보내 뼈를 사과하고 세전선의 증가를 청해 이를 승낙하는 것으로 끝맺었다. 이 왜변을 계기로 조정에는 備邊司가 설치되어 조선 말까지 존속되었다. 명종 11년(1556) 6월 제주목사 金秀文이 제주에 침입한 왜선 5척을 소각하고 130여 명을 사살하였으며, 이듬해 명종 12년(1557) 7월 제주도에 왜선 26척이 침입하였다.

이어 선조 20년(1587) 鳥島, 加里滿, 航陽에 왜구가 침입하였고, 이와 같이 계속적인 왜구 침입에 견디지 못한 남서 연해의 백성들은 놀라 등요하여 逃散할 궁리만을 생각하였다.³⁾ 선조 23년(1590)에 토요도미(豊臣秀吉)가 일본 전국을 통일하면서 아천군이 67세 때인 선조 25년(1592) 4월 14일에 왜군이 부산포에 상륙함으로써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이로부터 선조 31년(1598) 11월 26일 왜군이 부산에서 철수할 때까지 7년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 전 국토가 초토화되던 亂時에 아천군은 판서 등의 고위관직을 역임하면서 나름대로 전란을 수습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중종 20년(1525)에 태어난 조선 중기의 문신 아천군은 임진왜란이 끝난 지 2년 후인 선조 33년(1600) 10월 14일 75세에 세상을 떠났다. 아천군의 본관은 韓山, 자는 可謙, 호는 北崖로 고려 말 3은의 한 사람인 목은 李繼의 7세손이며 종묘서 영 李之菽의 아들로 어머니는 金弼臣의 딸이다.

명종 4년(1549) 24세에 司馬試에 합격하였으며 아천군이 35세 때인 명종 15년(1560) 별시 문과에 丙科로 급제하였는데 그 전 해부터 황해도에서 임꺽정의 난이 일어나 사회가 혼란하던 시기였다. 명종 19년(1564) 승문원 正字(종6품)에 임명되었고, 명종 21년

2) 宋時烈, 「東谷平謹」癸未年 4월초.

3) 「명종실록」 권 19, 명종 10년 11월 辛巳條.

(1566) 6월에 홍문관 부수찬, 같은 해 8월에 홍문관 수찬, 10월에 사간원 正言이 되었다.

이듬해 명종 22년(1567) 5월 홍문관 수찬에 다시 임명되었고, 이듬해 6월 사헌부 지평이 되었다. 선조 1년(1568) 홍문관 부수찬으로 다시 임명되었고, 선조 4년(1571) 4월 행 홍문관 부교리(종5품) 지체교 겸 경연 시독관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10월 다시 사헌부 지평이 되었고, 11월 홍문관 부교리에 임명되었다. 선조 6년(1573) 5월 사헌부 집의(종3품), 같은 해 6월 承宣이 되었는데 10월에 아천군이 형방 승지(정3품)로 직제학 을곡 이이 등과 入侍하여 선조에게 『서경』을 강독하였다가 尹士晦의 罪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피력하였다.

“신이 三省 交坐할 때에 가서 참여하였는데 尹士晦의 罪는 단서가 드러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비를 저버리고 종[婢]을 훔쳐 날아났고, 아비가 死罪로 오래 詔獄에 갇혀 있음을 듣고도 끝내 보려 오지 않은 것이 윤사회와 노비의 供招에 이미 나타났습니다.

어제 委官이 다시 노비를 형신하기를 청하니, 臣官인 池平 趙廷樞 등이 이것은 臣民의 본의가 아니라고 하고 웃을 털고 일어나 참여하자 많고서 노비는 형신하지 말고 곧바로 윤사회를 형신하기를 계청하였는데, 신의 생각에도 옳게 여겨집니다.”⁴⁾

하였으나, 국왕이 머뭇거리면서 결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12일 후에도 아천군은 형방승지로서 황해도의 주안에서 발생한 강도 살인사건 내용을 국왕에게 問覆하자 “범한 것이 매우 흉악 참혹하고 형격도 분명합니다.”라고 호조판서 成世章이 아뢰었으므로 국왕이 “회상이 두렵하니 律대로 시행하라”하였다.⁵⁾

선조 7년(1574) 국왕이 아천군 등을 특별히 서용하라 명하여 친과감사에 임명되었는데 같은 시기에 을곡 이이선생도 황해감사로 임명되었다. 1576년 遠接使의 從事官이 되었고, 선조 13년(1580) 아천군이 55세 때 예조참판으로서 聖節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 때 대조 이성계의 부친 이자춘의 성명이 명나라 기록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宗系辨訛의 업무도 수행하여 명나라 禮部에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예부의 回咨를 가져왔다.⁶⁾ 아천군이 가져온 명나라 예부 奏文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국에서 捕誣하는 중계 등의 일은 이미 회전을 편찬할 적에, 특별히 깨끗이 씻어졌으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선조의 이름 두 글자의 그릇됨으로 인하여 이제 다시 정정하기를 청하니, 살가고 주일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회전의 본국 조항에 ‘既曉’이라는 두 글자를 실었는데, 두 글자의 華화이 둘 땐 없습니다. 혹 한 때 빼여 쓴 것이 그릇된 듯하나, 이제는 모순되고 누락될 염려는 없습니다. 여러 세대를 내려오면서 편집한 것이어서 원조 일적에 이루어질 수 있는

4) 『선조실록』 권 7, 선조 6년 10월 己未條.

5) 『선조 실록』 권7, 선조 6년 10월 己未條.

6) 『선조수정실록』 권 14, 선조 13년 11월 丁卯條.

것이 아니니 책이 完帙이 되어서 위에 올려 御覽하신 뒤에라야 국내외에 반포할 것입니다.” 하였다.

선조 14년(1581)에 아천군은 다시 전라감사로 나갔고, 그 이듬해 선조 15년 7월에 선조는 아천군이 경상감사로 적합하다고 하였으나⁷⁾ 임명 여부는 알 수가 없고, 이 해 12월에 윤곡 이이가 병조판서로 임명되었다. 선조 16년(1583) 1월에 북쪽의 慶原府 여진족이 난을 일으켜 경원부성이 함락되자 申砬 등이 두만강변의 여진족을 정벌하였는데 이 해 12월에 아천군은 대사간(정3품)에 임명되었다.

선조 22년(1589) 4월에는 전국에 전령병이 만연하였다. 이 해 6월에 일본 사신으로 전소(玄蘇)가 오고, 9월에는 조정에서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0월에는 모반을 일으키려던 밭작되어 鄭汝立이 자진하였고, 아천군은 이 달에 홍문관 부제학(종3품)에 임명되었다.

1589년 10월의 정여립의 모반사건은 亂議의 조작과 易姓革命의 반란을 피한 사례로서 조선왕조 개국이라 가장 큰 역모였다. 정여립은 선조 때 東西黨爭으로 조정에서 뜻을 얻지 못하고 經略에 돌아온 뒤 講學을 침탁하여 유학자, 無賴武士, 승려, 賢輩 등을 모아 大同契를 조직하고 때로 무예를 단련하는 한편 秘記講說, 즉 李氏는 망하고 鄭氏가 대신 일어난다는 '木子亡鄭邑興'으로서 인심을 혼혹하여 반란을 일으켜 자기의 천하를 만들려고 꾀하였다.

원래 정여립은 경전에 능통하여 士林 사이에서 명성이 높았으며 특히 이용곡의 사람을 받아 그 문하에 출입하였다. 그러나 선조 17년(1584) 이용곡의 사후로는 東人에 아부하여 동인이 중요하던 이용곡을 극구 혐증하였다. 그 결과 동인의 힘으로 修撰이란 벼슬을 얻었지만 그의 본성을 간파한 선조의 눈에 빛어나자 그는 끈 벼슬을 버리고 전주로 돌아와 음모를 꾸몄다.⁸⁾ 이 모반사건은 황해도의 안악, 재령 등에서 모역사건이 발생되어 드러났는데 이에 의하여 천라도의 정여립이 그 피수임을 알게 되었다. 모반사건이 밭작되어 정여립과 그의 아들 鄭玉南은 같은 무리 두 사람과 같이 韓安 竹島에 숨어 있었는데 이를 알고 軍官이 포위하자 정여립은 자살하고, 그의 아들 옥남은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다. 이어 선조가 정옥남을 親鞫하고 軍器寺 앞에서 처형하였다. 이 당시 정여립의 모의에 동조한 東人 다수가 遷坐處刑되어 '己丑獄死'가 일어났고, 조정에서는 정여립 死後의 전라 一道를 反逆鄉이라 하여 그 후 호남인의 등용을 일시 제약하여 차별하게 되었다.

대사간으로 있던 아천군은 정여립의 모반사건 韓問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여 그

7) 「선조실록」 권 17, 선조 16년 7월 丁酉條.
8) 李卓熙, 『王氏倭亂史研究』, 아세아문화사, 1990, 22쪽.

이듬해 선조 23년(1590) 8월 1일, 이조참판 아천군은 3등 推忠奮義 平難功臣에 책록되어 銅川君에 봉해졌다. 후일 광해군 4년(1612)에 秋官의 錄勳하는 문제를 논의할 때 전 일의 야천군의 예를 거론하였는데, 아천군이 대사간으로서 정의립 모반사건 국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한 데다가, 죄인의 모반 사건이 확실하여 行刑하였으므로 아천군이 3등 평난공신에 녹훈되었다는 것이다.¹⁰⁾

선조 23년(1590) 11월에 통신사 활을 길은 일본으로 들어가 도요토미(豊臣秀吉)를 만나 爰書를 받은 후 선조 24년(1591) 1월 활을 길은 일본 사신 진소 등과 함께 부산포에 돌아왔다. 이 해 2월 아천군은 대사헌에 임명되었고, 이어서 4월에 예조참판, 7월에는 대사간에 재임하였는데 사헌부, 사간원兩司에서 아천군 등을 탄핵하여 과직을 청하였으나 그 결과는 알 수가 없다. 이 해 9월, 선조가 비어있는 예조판서 후보로서 아천군과 권극지 두 사람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하게 했으나 권극지가 예조판서로 임명되었다.

선조 25년(1592) 1월 이전까지 아천군은 형조판서로 재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趙憲이 편지를 보내어 대마도의 채가 침공해 올지 보드는데 용맹스러운 의주 목사 金故鷗이 죄를 범하여 해임되기에 이르렀으므로 그의 救命을 청하였으나 아천군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¹¹⁾

1592년 4월 14일 임진왜란이 발생하였는데 이 당시 형조판서 아천군의 나이 67세였다. 충주 탄금대전부에서 친령장군이 해군에게 때전함에 따라 조정에서는 평양으로 천도하기로 정하고 4월 30일 새벽, 서울을 떠났다. 이 때 형조판서 아천군은 연로한데다가 별 활으로 御駕를 수행하지 못하고 뒤에 차졌다. 이에 대해 『白軒集』에는 「임진년에 쾌적이 침입하여 일금의 事駕가 서쪽으로 향하여 궁도 高陽까지 갔는데, 순변사 종사관이었던 公의 傷자 아들(慶流)이 상주에서 전사한 것을 듣고 놀라 병이 나서 御駕를 호종하지 못했다」고 하였다.¹²⁾ 따라서 아천군은 선조가 평양에 도착한 지 이틀 후인 5월 9일 이전에 합류한 곳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史蹟에서는 아천군을 형조판서에서 세직하도록 계청하고,¹³⁾ 선조가 의주로 천도한 이 해 11월 3일, 4일, 5일에도 사간원에서 어가를 수행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아 아천군 등의 과직을 여러 번 청하자, 선조는

“이런 난리를 담하며 어찌 하나하나 다 따지겠는가. 논하지 않는 것이 옳다.”¹⁴⁾

하였다. 선조 25년(1592) 12월 25일 명나라 제독 李如松의 주력부대가 압록강을 건너기

10) 『선조수정실록』 권 24, 선조 23년 8월 庚午條.

10) 『광해군일기』 卷 57, 광해군 4년 9월 乙卯條.

11) 『선조수정실록』 권 26, 선조 25년 1월 壬戌條.

12) 李景廟, 『白軒集』, 『左叢詩圖列傳 懿德圖政李公慶狀』

13) 『선조실록』 권 26, 선조 25년 5월 戊辰條.

14) 『선조실록』 권 32, 선조 25년 11월 乙未條.

시작하여 이듬해 선조 26년(1593) 1월 6일 평양성을 공격, 1월 9일 조선·명나라 연합군이 평양성을 수복하였다. 이로부터 7일 후인 1월 13일 아천군은 사헌부 대사헌에 임명되었다. 이에 아천군은

“신이 楽虜가 피주로 파견하던 날에 변을 당해 낭폐하여 호종하는 반열에 미치지 못했으나, 신의 의리 없음은 한번 죽어도 속죄하기 어렵습니다. 신이 이미 죄를 졌는데 어떻게 남을 바로잡겠습니까. 빨리 개정하시어 言地를 소중하게 하소서. 그리고 신의 죄를 바로잡아 人臣이 위급할 때 上을 지바린 죄를 보이도록 하소서.”¹⁵⁰⁾

하고 선조에게 상언 하였으나 이를 읊허하지 않자, 이 날 사헌부에서

“당초 勸臣이나 宰臣이나 侍從臣으로 어가를 호종하는 때 미치지 못한 자는 판핵이나 논박을 당하여 公論이 이미 행하여졌습니다. 그러니 지금에 와서 지난 일을 사사건건 책잖는 것은 불가 합니다. 다만 風憲의 長은 모든 팬묘들을 규찰합니다. 李暉은 이미 실수한 바가 있으므로 형세가 出仕하기 어려우니 遷差하도록 명하소서.”¹⁵¹⁾

하자, 선조는 “체차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으므로 대사헌 임명은 이 해 5월 6일까지 보류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아천군은 1월부터 5월 6일 대사헌으로 정식 임명될 때까지 관직명이 없이 儉邊司 당상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국정에 참여하고 있음이 여러 차례 기록에 보인다.¹⁵²⁾

조선·명나라군이 1593년 4월 20일 서울을 1년만에 수복하고, 이어 4월 24일 조정 신하들이 입성하였으며, 10월 1일에 선조가 환도하였다. 이에 앞서 9월 12일 아천군은 예조 판서로 임명되어 서울로 들어와 전관으로 황폐해진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는 데에 전념하였다.

그 후 아천군은 예조판서직을 언제 사임하였는지 알 수 없고, 선조 28년(1596) 7월 70세로서 經筵에 參進하는 직무를 맡은 特進官을 맡고 있었는데 8월 19일 사간원에서 아천군 등이 國事が 분방한 중에 고위직으로서 말미를 얻어 조상의 묘소에 성묘하고 온 것에 대해서 죄를 물도록 宜祖에게 상언 하니 ‘이를 아뢴 대로 하라’고 읊허하였다. 이어서 이 해 9월 아천군은 五衛都摠府 도총관(정2품)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선조 29년(1596) 6월 아천군은 다시 특진관으로 국정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선조 30년(1597) 1월 14일 쇄장

150) 『선조실록』 권 34, 선조 26년 1월 乙巳條.

151) 『선조실록』 권 34, 선조 26년 1월 乙巳條.

152) 『선조실록』 권 36, 선조 26년 3월 丙子條.

‘상이 비변사의 당상을 【宣城府院君 鄭歲, 영상 任卿淵, 좌상 尹斗璫, 鳩川君 李暉, 명조 판서 朱恒福, 이조 참판 具思孟, 호조 참판 尹日新, 崧山君 成濟益, 병조 참판 徒忠謹, 예조 참의 朱應, 부제학 이관, 동부승지 朱好周, 현남 吉淵, 치관 黃濟】 인전하였다.»

가도(加藤清正)군이 다대포에 상륙하여 서생포에 주둔함으로써 경유왜란이 일어났다. 이 해 8월 6일 아천군은 공조판서에 임명되었고, 이어서 8월 22일 선조는 功이 있는 고위직의 신하에게 내리는 尊號인 爵을 이중에게 내려 鶴川君으로 봉해졌다.¹⁸⁰

선조 31년(1598) 8월에 도요토미가 죽음으로써 11월 26일, 아천군이 73세 때 嘉군이 부산에서 철수함으로써 7년간의 임진왜란은 끝났다. 그 이듬해 선조 32년 아천군은 예조 판서로 임명되었고, 의금부 知事로서 죄인의 罪案을 다루었으며, 이 해 11월 14일 아천부 원군으로 비단 1필을 선조로부터 하사 받았다. 선조 33년(1600) 4월 20일 75세로 공조판서에 임명되었다. 이 당시 아천군은 연로하여 이 해 7월 평안도 병사를 지낸 아천군의 3남 李慶深(慶深)은 함경남도 兵使로 책임자였지만 아천군이 老忠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병사로 賦授할 것을 선조가 주저하였다.¹⁸¹ 1600년 10월 14일 아천군이 75세로 별세하였다.

그가 별세하자 선조는 예조좌랑 李如實를 보내 祭文을 치어 영천에 조문하였다. 그리고 시호를 誠龍으로 내리고, 大匡輔國 僉祿大夫 讷政府 領議政 鶴川府院君으로 追贈하였다.

아천군은 슬하에 6남을 두었는데 장남 慶渙, 차남 慶灝, 3남 慶深(慶深), 4남 慶流, 5남 慶湜, 6남 慶河였다.

먼저 차남 李慶灝(明宗 8년: 1553~인조 5년: 1627)은 차는 盡源, 호는 晚沙로 서울에 거주했다. 선조 12년(1579) 생원시에 오르고, 1585년 宣教郎으로서 식년문화에 별파로 급제하였다. 1593년 정언·지평·필선을 지내고, 이듬해 장령이 되어 廷議에 대한 論職의 부당성을 상소하였으며, 1603년 성주 목사를 거쳐 창주 목사·호조 참판·경상도 관찰사·병조 참판에 이르렀으나 폐모론을 반대하다가 削職되었다. 1623년 인조반정 후 한성부 우윤으로 捷管을 겸임하였으며 술을 좋아하였다.²⁰⁰

아천군의 3남 李慶深(慶深)은 임진왜란으로 의주로 파천할 때 선조가 宣川에 이르러 龜山郡守 이경준에게 車馬를 수행하도록 명하였는데, 이경준은 상수의 재질이 있다고 實錄에 기록되어 있다.²⁰¹ 선조 28년(1595) 2월에 특진관 韓應이 선조에게 “황주를 왕래할 때 이경준이 善政을 베풀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자, 선조는

“나는 그가 재주가 있음을 알고 특별히 兵使를 겸하도록 하였는데, 금방 논박을 받아 제작되었으나, 어찌 전에 선경을 베푼 사람을 갑자기 파직할 수 있는가. 자민에 비변사가 서용하기를 청하여 公州牧使로 임용하려 하였는데, 慶治의 의의가 없으므로 내가 파르지 않았다. 이처럼 끔

180 「선조실록」 권 93, 선조 30년 8월 庚辰條.

181 「선조실록」 권 124, 선조 33년 4월 癸巳條.

200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六百年史」 인물전, 1993, 1896~1897쪽.

201 「선조수정실록」 권 26, 선조 25년 6월 乙丑條.

만한 사람을 논박하여 채찍시키기까지 하니,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다.”²²⁾

하자, 경곤수가 아뢰기를, “황주에서 선정을 배운 것은 사실이나, 병사는 수령과 사제가 달라 한 도의 主將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가 매우 적고 경력이 없기 때문에 수령들이 敬畏하지 않았다 합니다.” 하니, 선조가 이르기를, “경외하지 않은 것은 이경준의 罪가 아니다.” 하자 경곤수가 아뢰기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위아래가 서로 막혀서 남들의 말이 있게 되었고, 그도 역시 과실이 있음을 면치 못했다 합니다.”하였다.

이경준은 선조 28년(1595) 2월 公州牧使로 부임하였으나 그 해 9월 임의로 사임함으로써 그를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²³⁾ 이어서 선조 28년 11월 도체찰사 유성통이 이경준을 滿浦敎使로 책임자라고 친거하였다. 선조 33년(1600) 7월에 평안도 兵使를 지낸 이경준은 함경남도 병사에 책임자였지만 아천군이 75세로 老患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함경남도 병사에 除授할 것인지를 선조가 주저하였다.²⁴⁾

아천군의 4남 李慶流(1564~1592)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邊境의 종사관이 되어 상주에 내려간 李謙장군 휘하에 충군하였다. 4월 25일 왜군이 산과 들을 덮어 공격해 오자 主將과 邸將은 행방불명이 되어 조선군의 陳容은 沙汰처럼 무너졌다. 이 때 이경준은 남아있는 군중에게 “나라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오직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하고 적진으로 뛰어들어 같이 참전한 종사관 尹擢 등과 함께 분전하다가 순절하니 그의 나이 29세였다. 후일 조정에서 도승지 겸 경연 참찬관·춘추관 수찬관·예문관 직제학·상서원장을 추증하였다. 이경류의 장례는 상주로부터 愛馬의 등에 실려 온 衣冠만으로 先塋에 모셔지고²⁵⁾ 그의 묘소 아래에는 愛馬塚이 조성되어 있다.

다음에 5남 李慶漢(선조 21년: 1569~인조 6년: 1628)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薦補로 관직에 나아가 광해군 11년(1616) 刑曹正郎·縣令이 되었으며 通政大夫에 올라 1624년 李道의 난 때 왕의 南幸을 호종하여 그 공으로 原從功臣에 책록되고 漢城府 右尹을 역임하였으며, 공조 판서에 추증되었다.²⁶⁾

2. 임진왜란과 鶴川君 李增의 국방의식

1) 임진왜란과 鶴川君의 활동

22) 『선조실록』 권 60, 선조 28년 2월 乙丑條.

23) 『선조실록』 권 67, 선조 28년 9월 丙申條.

24) 『선조실록』 권 124, 선조 33년 4월 癸巳條.

25) 鶴山李公 慶流 楷銘碑文

26)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六百年史』 인물편, 1993, 88판쪽.

1592년 4월 13일 왜장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가 이끄는 왜군이 제1군(18,700명)을 실은 왜선 700여 척이 부산 앞 바다에 몰려들어 이튿날 부산진성을 포위, 함락함으로써 임진왜란이 발발하였다. 조정에서는 4월 17일 경상좌수사 朴潤으로부터 왜군 침공의 급보가 전해지고 연이어 경상도감찰사 金暉의 보고가 있자 사태가 심상치 않을음을 깨닫게 되었다. 잇따른 급보는 경상도의 여러 고율이 차례로 왜군에게 함락되었다는 것뿐이었다. 이러한 四報에 조정은 물론 백성들도 왜군 침입의 공포분위기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비상대책으로 황급히 中砬을 領巡邊使, 李鑑을 巡邊使, 金汝勳을 종사관에 임명하여 왜군의 침공에 대비하는 한편, 김성일을 경상우도 招諭使, 金功을 경상좌도 安集使로 삼아 민심의 수습과 왜군에 대한 항전을 독려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관군의 저항을 받지 않고, 서울을 향하여 북상하는 왜군을 저세가 험하여 전략적 요충지인 조령·죽령·추풍령에서 방어하기 위하여 이일에게 조령을, 劉克良과 邊璣 등에게는 각기 조령과 죽령을 방비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이일은 거느리고 임지로 나가야 할 경병 3백 여명을 확보하지 못하고, 서울에서 3일간이나 허송하고 있었다.²⁷⁾ 이일이 급히 남하한 후 조정에서는 柳成龍을 都體察使로 삼아 순변사 이일과 도순변사 신립을 돋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 왜군을 조령 등지에서 막으려 하였다.

그러나 이일이 4월 24일 삼주에서 가토(加藤清正)군에게 패배하여 충주로 물러섬으로써 왜군은 조령과 죽령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이일의 뒤를 이어 서울을 출발한 신립은 4월 26일 충청도의 별미 8천여 명을 丹月驛에 집결시켜 弹琴臺에 배수진을 치고 왜군을 막으려고 하였으나 소서해장이 이끄는 2만 여의 왜군에게 전세가 물리하여 끝내 패전하고 말았다. 이 전투에서 신립을 비롯한 김여물·이종장·변기 등의 장수와 많은 군사를 잃어 충주 방어작전은 실패로 끝났다.

이일과 신립 등이 조령과 추풍령 등의 방비를 위하여 서울을 출발한 후 조정에서는 왜군의 서울 침공에 대비한 조치를 취했다. 즉 右議政 李賜元을 守城大將, 李猷·邊璣를 각각 左·右衛將, 李忠臣을 都城巡檢使로 삼아 도성의 성월을 급히 수축케 하였다. 그리고 北兵使였던 金命元을 도원수로 삼아 도성의 외파인 한강을 수비하도록 하였다.²⁸⁾

그러나 이일이 상주에서 패전하였다는 소식과 연이어 신립이 충주방어에 실패했다는 보고를 전해들은 도성의 인심은 흔들어졌다. 조정에서는 민심의 안정을 위하여 선조의 차남인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한 뒤 각 도의 관찰사는 시급히 군사를 이끌고 서울에 와서 도성을 지키도록 명령하였다. 또 이와는 별도로 각 지방에 관리를 파견하여 병사를 모집하여 서울에 모이도록 하였다.

27) 유성룡, 「唐忠錄」 권1, 선조 25년 4월 17일.

28) 國防軍史研究所, 「韓民族戰爭通史」 III, 1996, 156쪽.

도성의 방어를 위하여 성의 수축명령이 내려졌으나 전혀 시행되지 않았고, 수비하는 군사도 크게 부족하였다. 이에 병조판서 金應南은 부족한 군사를 채우기 위하여 각 고을의 백성과 公·私錢, 背吏 등을 모조리 징발하여 城壕 3만 여를 지키도록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이 명령에 따라 나와서 성을 지키려는 사람은 겨우 7천여 명에 지나지 않았고 그 나마도 대부분이 오합지중이어서 도망칠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 그 위에 병조에 소속되어 있는 上番군사까지도 하급서리와 결탁하여 도망가기 일쑤였고 이를 감독해야 할 상관들도 성을 지키려는 생각은 없고 자기 보신만을 피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도성이 위기감에 휩싸였던 4월 29일 조정에서는 종친과 대신의 건의에 의하여 평양으로 천도하고 명나라에 구원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함경도에 임해군을, 강원도에 순화군을 보내 구원병을 모으기로 하고 李元翼과 崔興元을 평안도와 황해도의 순찰사에 각각 임명하여 군사를 모집하도록 조치하였다.²⁹⁾

이처럼 충주 탄금대전투에서 신립장군이 패군에게 패전함에 따라 조정에서는 평양으로 천도하기로 정하고 4월 30일 새벽, 서울을 떠났다. 이 때 형조판서 아천군은 형조판서 가천군의 나이 67세로 연로한데다가 병환으로 선조의 諸駕를 수행하지 못하고 뒤에 처졌다.

선조의 일행이 서울을 벗어나자 도성은 혼란이 극도에 달했다. 왕의 西遷 소식이 전국에 퍼지자 백성은 불안감을 더해 갔고, 왜군이 침입도 하기 전에 피란 소동이 일어났다. 전라도관찰사 李沈도 전라도군을 이끌고 도성을 지키고자 북상하여 공주에 이르렀다가 왕이 도성을 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해산시키기도 하였다.

도성에 남아있던 일반 민중들이 난동을 부려 먼저 공·사노비의 문적이 보관되어 있는 掌隸院과 刑曹의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이어 경복궁·창경궁·창덕궁 등 궁궐과 관아를 약탈하거나 방화하기를 서슴지 않았다.³⁰⁾

왕의 일행이 천신만고 끝에 惠愍廟를 넘었을 때는 호종하는 자가 유성룡·李山鶴·李恒福 등 1백여 명에 불과하였다. 왕이 개성에 이르렀을 때 그 곳 백성들은 왕의 일행을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失敗를 들어 비난하고 돌을 던지기까지 하였다. 왕의 행렬이 개성을 떠나 5월 7일에 평양에 이르렀을 때 평안감사 宋言愼이 3천여 기의 군사를 거느리고 대가를 맞이하자 호종하는 신하들은 비로소 마음을 놓았다.

왜군은 부산에 상륙한 후 겨우 20일 만에 서울에 이르게 되었다. 한강방이의 책임을 맡았던 도원수 김명원이 한강에서 물러나 일진강에 진을 치고, 수성대장 이양원과 부원수 申恪이 서울을 포기하고 양주로 물러서자 고니시가 이끄는 왜군이 5월 2일에 한강을 건너 3일에 도성을 들어왔다.

29) 『선조수정실록』 권 20, 선조 25년 4월 庚寅條.

30) 『선조수정실록』 권 25, 선조 25년 4월 庚寅條.

양주로 후퇴하였던 신각이 흘어진 군사를 수습하고 있을 때, 때마침 함경도 남병사 李渾이 그의 회하병을 거느리고 서울로 가는 도중에 이들과 합류하였다. 신각과 이흔은 이곳에서 서울을 유관한 왜군이 인근지방에 출몰하여 약탈을 자행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양주의 解離嶺에 복병을 대기시켰다가 왜군을 기습 공격하여 60여 명을 살해하였다. 조선 측의 피해 없이 왜군을 공격하여 승리를 거둔 일은 왜군의 부산 상륙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서울에 차례로 들어온 왜군은 대오를 재점비하고 작전회의를 거친 후 각 부대의 진로를 숙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고니시의 부대는 평안도, 가토의 부대는 함경도, 구로다(黒田長政)의 부대는 황해도로 진로를 정하는 한편, 서울을 지키는 부대와 강원도·전라도·경상도방면에 침입하거나 후방의 안전을 피하기 위한 부대를 두기로 하였다.

조정에서는 왜군이 서울을 침입했다는 보고를 개성에서 받고, 다시 길을 개축하여 5월 7일 선조가 평양에 이르렀다. 이 때 어진회의에서 이황복은 명예 구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尹斗壽는 "당군이 한번 우리나라의 경내에 들어오면 그 후에 난처한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이유로 명나라 원군의 요청을 적극 반대하였다.³¹⁾ 이 당시 어가를 수행하지 못하고 뒤에 처진 아천군은 어가를 뒤따라 5월 9일경에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원수 김명원이 후퇴를 거듭하여 임진강에 이르자 조정에서는 도순변사 道順賓으로 하여금 평안도 정병 3천과 합심하여 왜군을 맞아 물리치도록 하였다. 그러나 5월 15일 조선군은 임진강변에 도착한 고니시 등과 대치하고 있다가 18일 기습을 시도했으나 도리어 왜군에게 패배하여 中皓·劉克良 등의 장수와 많은 병사를 잃었다. 따라서 임진강의 방어선이 무너지고 왜군은 5월 27일 임진강을 건너게 되었다. 임진강 전투의 패배에 힘한 조정에서는 마침내 李德馨을 구원사로 삼아 명나라에 원병을 청하기로 결정하였다. 왜군은 조선이 포기한 개성에 들어온 다음 6월 1일 이곳을 출발하여 황해도 安城驛에 이르러서 가토는 함경도로, 고니시는 평양으로 향하였다.

북상해 오는 왜군의 그칠 줄 모르는 침략의 위세에 조정에서는 함흥으로 또는 강계로 피하자는 논의와 평양을 사수하자는 주장이 맞서다가 평양을 사수하자는 윤두수와 유성룡 등의 주장이 관철되어 우의정 윤두수에게 도원수 김명원과 순찰사 이원익을 거느리고 평양을 지키도록 명하였다.

이와 같이 평양성의 방비가 진행되는 동안 왜군의 북상은 멈추지 아니하고 대동강 연안에 이르게 되어 조정에서는 다시 北行을 결의하였다. 조정의 이 같은 결정은 평양성 민의 분노를 자아내어 성밖으로 나가려는 궁녀들과 대신들의 길을 막고 구타하는 불상사도 있었다. 윤두수 등에게 평양성의 방어를 명령하고 선조 일행은 6월 13일 평양을 떠나

³¹⁾ 朴東益, 『杏齋史草』, 임진 5월 19일.

磨川·安州를 거쳐 寧邊에 이르러 함경도로 가려고 하다가 이황복·이덕형의 의견에 따라 의주로 향하였다.

평양성을 지키고 있었던 평양 유도대장 윤두수와 순찰사 이원익 등은 6월 13일 소서 행장의 쇄군이 대동강에 이르자 다음날 새벽에 징병들을 뽑아 쇄군에게 기습을 시도했으나 도리어 패배를 당했다. 그리하여 평양성의 방어선도 무너지고 비축했던 막대한 군기와 화약 등의 군수물자를 못 속에 버리고 후퇴하였다. 이 평양성의 침략으로 조선의 운명은 불과 시간에 놓이게 되었다.

선조는 평안도 博川을 거쳐 定州에 머물고 있을 때 6월 15일 윤두수가 방어하던 평양성이 함락되었다는 폐보를 받은 선조는 세자와 다른 방면으로 분리 행동하는 이쁜바 分朝의 뜻을 결정한 다음 광해군에게 廊社의 신주를 받들고 江界를 목표로 나아가게 하고 각 지방에 勤王의 군사를 徵募하도록 하였다. 왕의 일행은 嘉山·정주·龍川을 거쳐 6월 23일 의주에 이르러 의주목사의 거소를 行宮으로 정하였다.³²⁾

이제 조정에서 최후로 의지하고자 한 것은 명나라의 구원병이었다. 임진란이 발발하자 조선에서는 명나라 유통도사에게 쇄군의 침공을 급히 보고하고, 개성에서 평양으로 북행이 결정되면서 韓調輔를 유통에 보내 제작 전황을 급보하였다. 이 때 修齋正(宣齋正)이 원군의 요청에 응하여 5월 19일 義順館에 와서 의주목사인 黃璫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가겠다는 뜻을 말했으나 황진은 조정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이 제의를 거절하였다.³³⁾

선조는 임진강의 수비가 위태로워지자 명나라에 사태의 침각성을 알리고 재삼 구원군을 요청하는 특사를 보냈다. 그러나 명나라에서 아무런 원군에 대한 소식이 없자 선조는 가산에서 정주에 이르러 다시 대신들과 의논하였고 윤두수 등 일부 대신의 반대가 있었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덕형을 원병을 구하는 특사로 결정하였다. 구원병의 요청이 거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쉽게 응하지 않았던 명나라는 전란이 중국에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동강線에서 쇄군의 북상을 저지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유통에 주둔하고 있던 병력 가운데 일부를 조선에 파견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1592년 6월 중순에 遷東副摠兵 祖承訓이 명군 3천 여명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조선에 진군하였다. 조승훈은 유격장 史儒의 군을 선봉으로 하여 압록강을 도하한 다음, 가산-순안을 거쳐 7월 17일 새벽에 평양성 부근까지 진군하였다.

이 무렵, 조선군의 도원수 김명원은 척후장인 순안군수 황원으로부터 '왜적은 모두 한성 쪽으로 철수하고, 평양성에서는 소수의 병력만 남아있다'는 작정 보고를 받고, 이를 조승훈에게 전달하자 조승훈은 이를 그대로 믿고 성안으로 들어갔다가 곧 목 요소에

32) 李征庶, 「임진왜란과 서풀」, 『尊土서풀』 18호, 1963, 37-38쪽.
33) 李頤蘊, 「壬辰禍亂史」 上, 1974, 230쪽.

매복하고 있던 왜군(고니시군)에게 겁겁이 포위 당하고 기습공격을 받아 선봉장 사유를 비롯하여 천총 戴朝弁·張國忠·馬世隆 등이 전사하고, 주장인 조승훈도 부상을 입은 채 간신히 살아 남아 평양성을 탈출하였다.³⁴⁾ 평양성에서 패퇴한 조승훈은 7월 18일 안주성에 도착하여 남은 병력을 수습한 다음, '장비를 정비해야 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요동으로 귀환해 버렸다.

명나라는 조승훈군이 평양성을 전투에서 왜군에게 패퇴하자, 즉시 재출병할 필요성을 절감하였으나 반란군 진압으로 재출병하기가 어려웠다. 조선 출병이 자연되자, 명은 일단 8월에 遊擊將軍 沈惟敬을 조선에 급파하여 왜군의 북진을 저연시켜 시간을 벌고자 하였다. 심유경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는 고니시(小西行長)와의 회담을 성사시켜 9월 1일부터 50일 기한부로 참정적인 휴전을 성립시켰다.

한편 6월 23일부터 의주에 머물고 있던 선조는 敗戰의 책임을 통감하여 왕위를 세자에게 傳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아천군 등의 대신들은

"…… 전일에 下敷를 받고는 머리를 모아 슬피 울며 누차 聖懇을 빙기롭게 하였지만 청의가 무족하여 성상이 마음을 크게 둘리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러 또 이런 전교가 있게 되었으니 선들의 죄는 한번 죽어도 아까울 게 없습니다. 줄요 사적이 폐허가 된 지금이 어떤 때이며 薦物을 광복하는 데 어민 일입니다. 그린데도 한걸같이 사양만 하시어 이미 모아진 인심을 다시 흩어지게 하고, 미룩된 國事들 또 무너뜨리십니까. 삼가 바라옵건대 聖慮를 굳게 경하시어 다시는 교동되지 말아 한편으로는 상하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중흥의 대업을 회복하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³⁵⁾

라고 아뢰어 선조의 친위한다는 뜻을 명나라군의 조선 재출병 적진인 12월 14일과 평양성 수복 직후인 1월 13일에도 반복하였다.

그 동안 명나라는 事夏의 반란이 평정되자, 조선에 출병할 東征軍을 편성하여 조선으로 친군하도록 하였다. 12월 13일에 왕필적 선봉부대가 보병 1천 명을 거느리고 암록강을 도하한 데에 이어서, 그 이튿날인 14일에는 부총병 吳惟忠이 병력 1,500명을 이끌고 강을 건넜으며, 12월 25일, 동정군의 총대장인 제독 李如松은 명나라 軍勢가 10만이라고 히장성 세하면서 암록강을 건너 의주 龍淵館으로 진출하였다.

이듬해인 선조 26년(1593) 1월 초순, 이여송은 安州를 거쳐 麟川으로 친군하여 평양성을 공격할 준비에 들어갔다. 조선군도 명의 동정군과 보조를 같이하여 1만여 명이 명군과의 합동작전으로 평양성 팔환에 들어갔다.

1월 6일, 朝明聯合軍은 평양성 서북면을 포위하였다. 이에 따라 명군은 모란봉·七星

34) 『선조실록』 권28, 선조 25년 7월 丁丑條.

35) 『선조실록』 권 32, 선조 25년 11월 甲子條.

門·普通門을 공격하고, 이일·김옹서의 조선군은 舍種門을 공격하도록 배치를 완료하였다. 1월 8일, 조명연합군은 아침부터 火砲를 평양성문 부근에 放列시켜 성벽과 성문에 킷 중사격을 가한 다음, 參將 駱尚志군은 보통문으로 돌진하였다. 그리고 이일·김옹서 군은 합구문으로 접근하여 조명연합군은 마침내 평양성의 外城을 침범하고 中城으로 돌입하여 奪城을 离壽臺와 乙密臺 방면으로 밀어붙였다.³⁶⁰

왜군은 이날 밤에 평양성을 버리고 대동강을 건너 중화·황주를 거쳐 봉산으로 남하하였다. 이로써 평양성은 왜군에게 침령당한 지 약 7개월 만인 1593년 1월 9일에 수복되고, 조명연합군은 이 작전을 계기로 職局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³⁶¹

평양성이 무너지자, 왜군은 漢城 이북에 주둔하고 있던 그들의 전군을 한성에 집결시켜 한성 방어에 총력을 집중하였다. 그리하여 조명연합군은 한성 이북의 대부분 지역을 단시일 안에 수복할 수가 있었다.

임진왜란 발발 직후에 함경도로 진출한 가토군은 현지에서 반란을 일으킨 불순분자들의 협력으로 이 지역을 용이하게 장악할 수가 있었으나 함경북도 兵馬評事 鄭文孚가 鏡域에서 의병을 일으켜 鏡城府使 鄭見龍, 廉源府使 吳應台 등과 더불어 1592년 9월 중순에 청성을 수복하고 회령·명천 지역의 반란자들을 처단함으로써, 古州城에 주둔하고 있던 왜군의 후역을 제거한 뒤 1593년 1월 23일부터 기병 2백 기로 단천의 왜군을 협공하여 2백여 명의 왜군을 격멸하였다. 당시 한변에 주둔하고 있던 가토는 평양의 고나시군이 조명연합군에게 죽기야 한성으로 폐회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한성~안변간의 통로가 차단될 것을 우려하고 있던 줄, 한성의 본영으로부터 철수명령을 받았다.

이에 가토는 撤軍에 앞서 길주성에 고립되어 있는 그들의 몇 군을 구출하기 위해 중원군 일개 부대를 파견하였으나 정문부는 단천을 공격하던 병력을 철수시켜, 28일에 임명 북쪽 벽탑교에서 왜군을 요격하여 대첩전을 벌였다. 왜군은 이 전투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고 간신히 길주성에 들어가 길주에 고립되어 있던 부대를 구출하여 야율을 타고 안변으로 철수하였다. 그 후, 길주 이남의 가토군은 2월 20일까지 함흥에 집결을 완료한 후, 전군이 안변부를 거쳐 한성으로 철수하였다.

평양성이 무너졌다는 급보에 점한 왜군 총대장 우키다(宇喜多秀家)는 漢城 방어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작전방침을 정하고, 한성 이북의 서부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병력을 모두 한성으로 집결시켰다. 이에 따라 1월 18일에 고나시군이 한성에 입성한 데에 이어서, 한성 근교의 김화·금성·월원 등지의 왜군도 속속 한성으로 집결하였다.

한편 한성에서는 주민들이 조명연합군과 內應을 하려는 조짐을 보이기에 이르자 이에 불안을 느낀 왜군은 1월 24일에 성안의 창경들을 도륙하고 민가를 소각하여 주민의

360 國防軍史研究所, 『朝鮮民族抗倭史』 III, 1996, 206쪽.

37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9, 1996, 84쪽.

봉기를 봉쇄하기 위한 강경조치를 취하였다. 그런 다음, 쇄군은 병력 5만여 명을 투입하여 한성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다.³⁸⁾

평양성을 탈환한 명의 도독 李如松은 황주까지 남진하여 중협대장 李故桓과 우협대장 張世爵에게 쇄군에 대한 추격을 명령하고, 자신은 다시 평양으로 귀환하였다. 그러나 이여백과 장세작군은 개성까지 9일간을 소요하면서 완만한 속도로 남진을 하였다. 이에 조선 측에서 명군 측에 적극적인 추격작전을 전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나서자, 이여송은 하는 수 없이 1월 18일에 좌협대장 楊元과 함께 조선군 기병 3천 명을 거느리고 평양에서 체차 남하를 개시하였다.

한편, 선두부대로 남진해 오고 있던 중협대장 이여백은 1월 19일에 開城에 입성하여 선봉장인 무총병 査大受와 경기방어사 고언백을 한성 방면으로 보내 적정을 탐지하면서 남진을 지연시켰다. 1월 25일, 이여송이 지휘하는 명의 본군과 조선 기병 3천 기가 개성에 당도하였다. 이여송은 여기에서 친위병 3천 기와 무총병 孫守廉·祖承訓, 參將 李暉의 기병을 거느리고 임진강을 도하하여 烏山(한성 북쪽 80리)에 포진하였다.

한편, 한성의 쇄군 진영에서는 서대문밖에 포진한 고바야가와(小早川隆景)를 선봉장으로 하여 2만여 명의 4개 군으로 나누어 총대장 우키다(宇喜多秀家)가 직접 지휘하였다. 한성의 쇄군 공격부대는 1월 25일에 磁石嶺(한성 서북쪽 30리 지점) 일대에 포진하고 개성에서 남하하고 있는 조병연합군에 맞서서 일대 반격을 가할 태세를 갖추었다.

1월 27일 아침, 사대수와 고언백의 기병 3천여 명이 여석령의 고바야가와군 제 1대인 다치바나(立花統虎)군의 밭어진을 공격하였으나 고전하므로 오산에 있던 이여송은 호위 기병 수백 기를 거느리고 輕裝으로 격전장을 향해 달려가다가 망객현을 지나 주막리 일대에서 쇄군의 급습을 받았다. 여기에서 그의 수하 병력은 대부분 궤멸되었으며, 이여송은 포위망을 탈출하여 백제관-惠陵廟을 거쳐서 가까스로 포위망을 벗어나 파주로 태주하였다. 이여송은 파주를 물러난 후, 28일에 파주를 떠나 임진강 북안의 동파역을 거쳐 임진강 북쪽으로 빠져버렸다.

이 백제관 전투를 통하여 쇄군은 그들의 병력 4만여 명을 한성으로 침몰시켜 김중식으로 운용함으로써 평양성 전투에서의 승리 이후에 기세를 올리던 조명연합군의 氣氛을 뛰고 한성 이남 지역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³⁹⁾

선조 26년(1593) 2월 아천군 등 대신들은 선조가 東宮을 海州에 分廟를 설치하려던 것에 대해 분조의 거사는 바로 국가가 吐運이 극도에 달한 시기를 당하여 부득이 이러한 비상 조치를 하는 것이니, 한 번은 할 수 있으나 두 번 할 수는 없으며 잠시는 할 수 있으나 오래도록 할 수는 없다고 아뢰자 선조도 이에 따랐다.⁴⁰⁾

38)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壬辰倭亂史』, 1987, 148~152等.

39)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壬辰倭亂史』, 1987, 158~161等.

1593년 2월, 왜군에게 빼앗긴 수도 한성을 탈환하기 위하여 공세를 준비하고 있던 천라도 순찰사 權慤 휘하의 조선군 1만여 명이 충주山城으로 진격하였다. 당시의 왜군은 백제관전투에서 조명연합군의 추격을 격퇴시킨 직후여서 그 여세를 몰아 1593년 3월 14일 새벽에 3만여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행주산성에 대해 대규모 공세를 감행하였다. 왜군은 3진으로 나누어 행주산성을 포위하고 온종일 아홉 차례에 걸쳐 공세를 가했지만 권을 휘하의 조선군은 왜군의 공세를 저지하기 위하여 총포와 矢石을 집중적으로 퍼붓는 등 갖은 방법을 다하여 치열한 방어전을 계속하였으며, 부녀자들까지 총동원되었다.⁴¹⁾ 이와 같이 치열한 전투 끝에 왜군은 우키다(宇喜多秀家), 이시다(石田三成), 요시카와(吉川廣家) 등이 부상을 입는 등 다수의 사상자를 낸 채 퇴각하고 말았다.

행주산성전투에서의 승리는 조선군의 대일전쟁 수행에 있어서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轉機가 되었다. 이 승리를 계기로 강화에 주둔하던 조선군은 수로를 통하여 용산-서강 일대를 활래하면서 왜군의 활동에 큰 제약을 가하기도 하였다.

선조 26년(1593) 3월 아천군은 선조의 명으로 외주에서 평양의 이여송제독에게 揭帖을 전하고 명나라에 보낼 奏本을 보였다. 이여송제독은 역관을 통해 주본 내용이 좋다고 하고, 명나라 군을 2일 후에 遷兵한다는 답변을 듣고 돌아와 선조에게 보고하였다.⁴²⁾

왜군은 행주산성 전투에서의 패배를 계기로 그 사기가 크게 저하되었다. 왜군은 이러한 곤경을 돌파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1593년 3월 명군과의 접촉을 시도하였다. 명군 측에서도 전쟁을 조기에 종결짓기 위하여 가능한 한 왜군 측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입장은 보였지만 조선은 왜군과의 강화를 반대하는 강경한 입장은 고수하였다.

조선의 입장은 무시하고 명의 경략 宋應昌은 실유경에게 일본에 가서 도요토미(豊臣秀吉)의 降書를 받아오도록 지시하는 한편, 騞計를 짜서라도 일본측과의 강화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였다. 그 결과, 諶用粹와 徐一貴를 명나라 조정의 강화사로 위장시켜 한성의 왜군 진영에 보내어 왜군 측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다.

4월 17일, 명의 실유경과 騞裝講和便인 사용재와 서일관이 한성에 도착하자, 왜군 측에서는 이튿날인 18일부터 한성에서 철수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왜군은 당초 약속과는 달리 조선의 두 왕자와 대신들을 석방하지 않고, 명군 측에서 교섭하기 위해 파견한 실유경·사용재·서일관 일행까지도 인질로 삼은 채 경상도로 남하하였다.⁴³⁾

왜군이 한성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명군은 왜군에 대해서 추격을 하지 않았다. 도리어 4월 20일에 파주에서 한성에 임성한 권율군이 왜군을 추격하려 하자, 노량진의 선박

40) 『선조실록』 권 36, 선조 26년 2월 丁亥條.

41) 『선조실록』 권 35, 선조 26년 2월 己酉條.

42) 『선조실록』 권 36, 선조 26년 3월 乙亥條.

43) 國防軍史研究所, 『韓民族戰爭通史』 III, 1996, 216等.

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추격작전을 방해하였다.⁴⁴⁾ 이에 따라, 조선의 수도 한성을 벗어난 왜군은 축산~충주~조령의 경로를 따라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경상도로 철수할 수 있었다.

1593년 4월 20일, 조명연합군의 일정으로 한성은 왜군에게 침략당한 지 1년만에 수복되었다. 이어서 4월 24일에 조정의 중신들이 임성하여 국왕의 邊都에 대비한 재반의 조치들을 취하고, 10월 4일에 선조가 환도를 하자⁴⁵⁾ 비로소 도성은 안정을 되찾았다.

임진왜란(1592년) 때 한성을 점령한 왜군은 이 해 9월 현재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성종과 왕후의 宣陵과 중종의 諸陵을 파괴하고 시신을 불태운 극악무도한 행위를 자행하였다. 선조 26년(1593) 4월 9일 경기 도사 沈克明이 이 사실을 조정에 보고하자⁴⁶⁾ 모든 사람들이 비통함을 금치 못했다. 이 해 4월 12일 유흥룡은 군관 李弘國 등 10명을 양주를 지나 壽州에 도착하여 배를 타고 한강을 내려가 植子島에 닿아 정릉에 들어가 살펴보게 하고 16일 이를 선조에게 問啓하였다. 이 조정이 한성에 환도한 후 아천군은 대신들과 함께 선·정릉을 奉審하고 이에 대한 의논을 드렸다. 실록에 기록된 아천군이 선·정릉을 看審한 뒤에 보고한 내용을 소개하면

아천군 죄를 피는 드렸다.

“두 능의 세 곳에서 발굴되고 불탄 상태가 대략 서로 같았습니다. 옥체가 불에 타고 남은 것을 모두 각각 크고 작게 봉하였는데, 작은 불은 비록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형체와 경증이 서로 같았습니다. 충산에서는 단지 先朝를 모시던 사람들이 용안을 기록한 것에 의하여 奉審했는데, 두면의 괴부와 모발은 모두 없어져서 생활할 만한 곳이 없고, 다리와 괴부도 또한 부패되어 없어져 끝없이 대부분 드러났으니, 이는 해가 오래 된 시세인 듯하며, 그 가슴·등·허리·복부 사이는 皮肉이 두터운데 손으로 끌려 보면 풀렁하여서 주목 들어가는 듯한 상태였고, 또한 머리·얼굴·발과 다리는 생생한 곳과 마른 곳이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⁴⁷⁾

라고 하였다.

한편 1593년 4월에 한성에서 물러난 왜군은 남부지방으로 내려가서 1598년 1월 정유재란 발발 때까지 조명연합군과 왜군과는 명나라와 왜군과의 강화회담 진행으로 전투는 소강상태였다. 조선은 왜군과의 강화를 반대하였지만 명나라가 왜국이 명에 封貢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조선에 설득함으로써 강화회담에 대한 반대방침을 누그러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선조 27년(1594) 4월 아천군 등은 명나라 胡潭 參將을 만나 명나라의 강화조건을

44) 國防部 歷史編纂委員會, 『壬辰倭亂史』, 1987, 166~168쪽.

45) 李章熙, 『壬辰倭亂史研究』, 아세아문화사, 1990, 78쪽.

46) 李布祖, 『撫臺望記述』 제16권 宣祖崩 故事本末條.

47) 『선조실록』, 卷 36, 선조 20년 6월 朱亥條.

들은 뒤 선조에게

“내가 여기 온 것은 사실 총독의 特差로 국왕 및 賤臣들과 大事を 논의하기 위하여 온 것이다. 모두가 총독의 뜻을 따라준다면 총독도 끝까지 힘을 다하여 그대 나라를 구원할 것이지만, 그의 말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면 곧 兵馬를 철수하여 암록강 서쪽으로 옮겨 留陣할 것이니, 내일 공들이 이 사실을 국왕에게 아뢰라. 며칠 후 내가 다시 국왕을 직접 볼고 상의하여 결정을 짓고 그 결과를 곧바로 총독에게 보고하면 총독은 다시 제본을 올려 封貢에 대한 인준을 청하고 또 科道官 두 명을 보내도록 청할 것이다. 그리하여 과도관이 나올 때 사신과 심유경이 함께 나올 것이고 또 將官 1명이 군대를 거느리고 되파를 것이다. 심유경을 먼저 儂欽의 영문으로 보내어 行長에게 豪유하여 패노들이 모두 바다를 건너가게 한 후에 사신과 유경은 곧바로 일본으로 건너가 왕을 봉하고 朝貢을 허락할 것이다. 그리고 貢路는 寧故府의 옛길을 타할 것이다. 패노들이 바다를 건너가지 않으려 하면 과도관과 사신은 모두 곧바로 돌아갈 것이고 이어 즉시 무승 조처가 내릴 것이다.”⁴⁸⁾

라고 패군과의 강화회담에 동조하지 않으면 철군하겠다는 명나라의 협박을 보고하였고, 6월 27일에도 아천군 등은 호 참장을 다시 만났다. 호 참장을 ‘명나라 조경에서 어찌 왜적을 두려워하겠는가. 이는 곧 조선을 딱하고 민망하게 여겨 屬國을 구원하려는 것뿐이다. 顧諺의 말을 들지 않으면 고야는 철군하여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劉楨의 兵馬는 암록강을 防守할 뿐, 다시는 귀국의 일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왜적이 다시 오더라도 조정의 구원은 바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호 참장과의 면담한 내용을 선조에게 보고하였다.

선조 28년(1595) 2월에는 명나라 陳璘 襲擊이 호조판서 金暉와 예조판서 아천군 두 사람을 보자고 하여 그를 만났다.

진린 유객은 “고니시(小西行長)가 보낸 서신을 너희 府에서 받지 않는다 했는데, 무엇 때문에 받지 않았는가?”하기에, “왜적은 우리에게 불공대천의 원수이므로 항상 그 고기를 씹어먹고 그 가죽을 깊고 자고 싶어했는데, 비록 병력이 약해서 초멸하지는 못할망정 어찌 차마 書契를 서로 통할 수 있겠는가”라고 답하였다. 그러자 진린은 이를 못마땅히 생각하고, “전일에 명나라에 침입한 왜적을 대할 때 명나라 吳經略이 패적들에게 높은 벼슬을 제수하고 금과 비단을 후하게 주어서 마음을 달랜 다음 패적이 마음에 달게 이겨 信服하고 흩어져서 면안히 거처할 때 섬멸해 버린 蠲靡之計를 사용하였다.”라고 故事로 예를 들면서 “왜적을 죄로 달래서 바다를 건너가게 한 다음에 서로 통하여 왕래하면 적은 반드시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산을 늘리고 군사를 훈련시키면 복수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말을 들었다. 호조판서 김수는 아천군과 진린

48) 「선조실록」 卷 50, 선조 27년 4월 丁丑條.

유격파의 주고받은 이야기를 선조에게 비밀히復述하였다.⁴⁹⁾

선조 28년(1596) 1월 30일, 명나라가 도요토미를 일본국왕으로 책봉한다는 방침에 따라 책봉 참사 李宗城과 부사 楊方亨이 요양으로 출발하였다. 이들이 한성에 도착하면 왜군이 칠병한다는 조건에 따라 이 해 3월 5일 요양을 출발하여 4월 28일에 한성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한성에 머물면서 왜군의 칠병을 촉구하다가 9월 4일 한성을 출발하여 밀양을 거쳐 11월 22일 부산에 내려가 왜군의 칠군을 득축하다가 왜군에게 軟禁된 상태에 둔 뒤에 폐국으로 徒日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 당시 선조 29년(1596) 1월 심유경 遊擊은 조선이 폐국에 통신사를 보내야 강화회답이 성사될 것이라는 啓文을 조선 조정에 보냈으므로 선조가 2품 이상의 대신들을 모으게 하여 諱議하게 하게 하였다. 유성룡은 “이 자문을 직선적인 말로 거절해 버린다면 바로 유격의 농간 속에 빠지게 되는 것으로 유격은 이것을 평계로 중국에 치보하기를 ‘封事’는 이루어지 가는데 사신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조선에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왜적이 물러가지 않는다.’라고 할 것이며, 그의 말을 따르려고 한다면 또한 인정과 의리상 차마 할 일이 아닙니다. 비록 사신 보내는 것을 허락하더라도 왜적의 칠수는 기필할 수 없는 일이니, 이것이 난처한 까닭입니다.” 하였다.

그러자 아천군은 “우리 나라가 国賊과 함께 지금까지 한 하늘 아래 살고 있으나, 血氣를 가진 자는 모두들 복수를 위해 한번 죽을 것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通信이란 이 두 글자는 비록 백세 후라도 의리상 차마 일밖에 내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오늘날에 있어서겠습니까. ……지금은 우선 의리의 불가함을 가지고 준엄한 말과 부드러운 말을 겸비 갖추어서 賦奏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성상께서는 참작하소서.”⁵⁰⁾라고 의논을 드렸다. 이리하여 조선 조정에서는 통신사 과전을 명나라에 거부하였다.

한편 연금상태에 있던 정사 이종설은 4월 3일 야음을 이용하여 탈출하자 명나라는 5월초에 양방형을 정사로 삼고, 심유경을 부사로 삼아 왜군과 강화 교섭 임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 해 6월 3일 清川君 韓準이 “통신사를 차출하여 보내는 것은 오늘날의 사세로 생각하면 참으로 부득이한 때에서 나온 것입니다. 위에서 재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의논드렸고, 아천군도

“皇朝에서 적을 회유하는 것은 함으로 우리 나라로서는 지극히 불통스런 일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으니 수치를 참고 성취를 기다리는 것이 이미 부득이한 때에서 나왔음을 만다면 오늘날 중국 사신이 청하는 것을 구태여 거절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더구나 그 청이 跛躊라고 만족하기를 청하는 것뿐이고 다른 말이 없으니, 혹 그 말대로 따르더라도 무방할 듯합니다. 위에서

49) 『선조실록』 권 60, 선조 29년 2월 庚未條.
50) 『선조실록』 권 71, 선조 29년 1월 庚午條.

제결하시기 바랍니다.⁵¹⁾

라고 의논드렸다.

이해 6월 15일 명의 책봉사가 부산에서 일본으로 항하자 왜군의 주력부대들은 본국으로 철수하였다. 이 때 명나라는 조선의 통신사를 대동하여 豐日하도록 조선에 요구하자 조선 조정에서는 이를 다시 거부하였으나 왜군이 대부분 철군하고, 조선도 명나라와의 임장을 고려하여 8월 8일 黃懶을 정사로 한 300여 명의 통신사를 왜국에 파견하였다.⁵²⁾

선조 29년(1596) 9월 2일 오사카에서 명나라 책봉사와 회견한 도요토미는 그들의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은 것을 알고 대노하여 일본국왕 책봉을 거부하고 책봉사와 통신사의 뵈거리를 요구한 뒤 조선의 재침을 명령하였다. 이 해 9월 9일 통신사 황신은 나고야에서 수령 군관을 우선 귀국시켜 '왜군이 재침을 기도하고 있다'는 긴급보고를 올렸다. 이에 조정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11월 12일에는 명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왜군의 재침 기도 사실을 통보하고,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앞서 1593년 9월, 명나라군은 강화회담이 진척되자 3만여 명을 흐양으로 철수시키고 1,600여 명이 경상도에 분산 배치하고 있었고, 정유재란 전까지 5년간 왜군은 조선에 2만여 명이 주둔하고 있었다. 선조 30년(1597) 1월 14일 가토(가등청정)가 지휘하는 왜군이 부산에 상륙하고, 이어서 고니시(소서행장)의 군대가 울천으로 상륙한 뒤 7월 8일까지 6개월에 걸쳐 왜군 14만여 명이 남해안에 계속 상륙, 집결함으로써 정유재란이 발발하였다.⁵³⁾

명나라는 조선의 출병 요청에 따라 1597년 3월 那卦를 韓鷗으로, 柳錫를 程理로 임명하여 6만 명의 동정군을 편성하고, 이 해 5월 8일 부총병 楊元이 기병 2천 기를 이끌고 한성을 거쳐 남원으로, 6월 14일에는 부총병 오유충이 4천 명을 이끌고 한성에 들어왔다. 7월 3일에는 제독 鄭貴가 한성에 도착하고 9월 19일에는 부총병 이여매가 거느린 15,000명이 한성으로 들어왔다.⁵⁴⁾

왜군 가토군은 7월 25일 서생포를 출발하여 양산-밀양을 거쳐 창녕으로 진출하고, 낙동강을 건너 합천으로 진출하였다. 왜군의 일부는 8월 구례를 점령, 전라도에 침입하여 8월 14일 남원성을 점령하고, 전주성을 무혈 점령한 뒤 북진하여 충청도로 진격하였다. 9월 7일 명나라군 4,000 기병과 왜군 5,000명의 보병이 穩山에서 격돌하여 명나라군이 승리함으로써 왜군은 기세가 꺾이어 경상도로 남하하고 9월 중순부터 수세에 몰렸다.

51) 『선조실록』 권 76, 선조 29년 6월 己亥條.

52) 國防軍史研究所, 『韓民族戰爭通史』 III, 1996, 231等.

53) 國防部 軍史編纂委員會, 『壬辰倭亂史』, 1987, 209~212等.

54) 國防軍史研究所, 『韓民族戰爭通史』 III, 1996, 238~239等.

또한 이순신장군에 의해 수군이 남해안 지역을 장악함으로써 전라·경상도 해안지역으로 물러나 1597년 10월부터 주둔지에 선을 끊고 장기전에 대비하였다. 이 해 12월에 5만여 명의 조명연합군은 울산 동쪽의 島山城의 왜군을 포위 공격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경주로 물러났다. 이 전투 후 왜군의 사기는 크게 저하되어 본국으로 철수할 것을 칼망하고 있을 무렵 선조 31년(1598) 8월 도효토미가 사망함으로써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왜군에게 철군명령을 내려 11월 15일까지 철군 준비를 마치고 부산에 짐결하였다.

그러나 여수반도의 倭橋城에 주둔한 고니시군이 고립되어 본국으로 철수할 수가 없어 11월 19일, 구원하러 온 500 척의 시마즈군과 소오군을 이순신장군이 노랑해전에서 이를 맞아 큰 승리를 하였으나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이 격전 중에 고니시군은 거제도로 달아나고 부산에서 합류하자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철군을 완료하여 7년간의 임진왜란은 종결되었다.

2) 鶴川君의 국방의식

아천군은 문신이었으나 왜화 여진을 대비하는 국방정책에 관심을 갖고, 僧魯미의 당상으로 참여하여 변방 수비나 전쟁을 치르는 전략, 전술방안을 개진하였다. 그 데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5년 전인 선조 20년(1587) 12월 1일에 前教授 趙惠이 선조에게倭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疏章을 올렸는데 그 중 왜인을 제어하는 계책으로

“南金을倭領에 뿐리고 한면으로는 대사간 아천군 등儒雅에 종사하는 자를 불러서將臣의 계책에 의하여 토론하고 은색해서調柔의 술책을 할 할 것이며, 일면으로는中使를 속히 보내어鄭淮, 成渾 등을 불러 오늘날 진요를 유원성의亞流의 자를 조속히 큰 임무에進用시켜 백관의 모범이 되게 하고 근본과 중기를 강하고 본문하게 하도록 하소서. 그러면 오랑캐들의程度과 도적의縱橫을 그치게 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売亂에서 부지할 수 있는 모의가 있게 되어 오늘날의 답답한 상황과는 비할 바가 아닐 것입니다.”⁵⁵⁰

라고 하였다. 그러자 선조는 조현의 疏를 보고 나서 錫忘記를 내렸는데 그 내용에는 「車國의 일을 의논하려면 李增 등을 불러들여야 한다. 이들은 다 賢實하고 儒雅하여 함께 일을 의논할 만하다」고 하였다.

선조가 외주에 摆避하고 있던 선조 26년(1593) 2월에 영의정 최홍원, 아천군 등이 선조를 引見한 자리에서 “군량을 주선하고 北虜을 소탕할 계책을 경들은 각각 진술하라.”고 하자, 아천군은 “전란 중이라 비록 武人을 수령에 除授하였으나 백성들이 매우 고통

550 「선조실록」 권 21, 선조 20년 12월 乙卯條.

스럽게 여기니 적이 물러간 뒤에 무인을 遷職시키고 벽성을 사랑하는 온화한 사람으로
差任하는 것이 매우 합당하겠습니다.”⁵⁶⁾라고 하였으니, 아천군의 捐民意識을 엿볼 수 있
다.

그리고 趙明연함군이 1년만에 한성을 수복한 후인 선조 26년(1593) 4월 20일에 파주
에서 임성한 권율군이 왜군을 추격하는 것을 명나라 군이 막고, 명나라 이여충제독이 한
강을 건너 왜군을 추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조정에서 의논할 때 대사헌 아천군은

“제독이 일을 처리함에 어찌 경략의 품을 모르겠습니까. 왜적을 토벌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데 중국은 즉시 약속을 어기고 있습니다. 지금 적이 멀리 빠져 있으니 어찌 놓아주고 토벌하지 않
을 수 있겠습니까. 들큰데 徐一貫·謝用粹·沈惟敬이 모두 적에게 포박되어 있다 하니 조선에서
대피를 들어 등쪽으로 전진한다면 제독인들 마음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혹시 함께 협력하여 전
격해서 적을 살멸할 수 있을 듯합니다.”⁵⁷⁾

라고 제안함으로써 아천군이 군사전략에 밝음을 보이고 있다.

선조 28년(1596) 7월 특진관 아천군은 선조가 대신들을引見한 자리에서 임진왜란 초
에 임진강 방어 군사작전에 대해

“사변 초기 雖律 전투에서 劉克良은 ‘왜적의 세력이 매우 성하여 예봉을 당해낼 수 없으니
우선 물러서서 그 형세를 살피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하였고, 신함은 ‘일부의 군대로 대전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 왜적의 駕兵이 침입하자 우리 군대가 패배하여 사졸들이 모두 죽어 장물이 흐
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미못거리며 진격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별법에서 꺼리는 바이지만 경기
망동하여 군대를 패배하게 한 것은 한 명의 군사도 일지 않고 보존하여 조금 후회하는 것만 못
합니다.……… 왜적은 접전할 때에 모두 鳥銃으로 선봉을 삼았으므로 가는 곳마다 대적할 사람이
없었고, 우리 나라는 호합지졸로 선봉을 삼고 용맹한 군사들은 뒤에 있게 하였으므로 선봉대가
무너지자 본 군대가 덩달아 도망쳤습니다. 姜楨이 端川郡守가 되었을 때 왜적과 접전하면서 잠시
전진하고 잠시 후퇴하면서 거짓으로 패하여 도망치는 적하다가 왜적의 단환이 떨어지는 것을 기
다려 군사를 내보내어 짓밟았으니, 頸領의 아래에서 전멸되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⁵⁸⁾

라고 진언하였으니 아천군은 비록 문신이었지만 전략 전술에 대해 一家見을 갖고 있었
다. 임진왜란이 終結된 지 1년 후인 선조 32년(1599) 4월 명나라 군이 조선에서 대부분
철군하고, 일부만 한성에 남았는데 이 해 6월에 선조가 명나라군의 조선 주둔에 관하여
의논할 때 아천군은 “적당히 5천~6천 병력을 주둔시킨다면 방비하고 接濟하는 양면에

56) 『선조실록』 권 35, 선조 26년 2월 己丑條.

57) 『선조실록』 권 38, 선조 26년 5월 丁巳條.

58) 『선조실록』 권 65, 선조 28년 7월 乙未條.

모두 온전할 듯 합니다.”⁵⁰⁾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명나라 군은 그 이듬해 1600년 9월에 조선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3. 鶴川君 李增의 역사상 위치

前述한 바와 같이 조선왕조실록에서 95 건이 검색될 정도로 비중 있는 아천군의 인물을 照明해 보면 첫째, 뛰어난 문장가였다. 임진왜란의 전란기와 東西朋黨이 시발되던 어려운 시기에 고위직을 지낸 아천군은 문장이 뛰어나고 행실이 바르므로 선조의 신임을 받고 조정 대신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의 주옥같은 많은 글을 남겼지만 전란을 겪으면서 소실된 까닭에 37수의 詩만 찾을 수 있어서『北鼎詩稿』로 전해지고 있음은 얀타깝다. 麗山 鄭斗卿은 선조 1년(1568)에 명나라 詔使가 왔을 때 홍문관 부수찬 아천군이 速接使從事로 선임된 것은⁵¹⁾ 당시 구름과 같이 많은 文士들 중에서 문장이 뛰어났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둘째, 딱월한 정치감각을 지닌 관리이자 정치가였다. 아천군은 전라감사 등 3도의 관찰사를 지내고, 7년간의 임진왜란을 겪을 때 형조·예조판서, 대사헌, 특진관으로서 宣祖를 끊까지 보좌하여 국가 사직의 危難을 극복하는 데에 진력하고 왜군의 침략으로부터 한반도를 死守하는 데에 주효 역할을 하였으며, 폐관 후에는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는데 기여하였다.

셋째, 외교·국방의식에 높은 안목을 지녔다. 당시 명나라 聖節使로 파견되었고, 임진왜란 이전에 趙憲이 아천군에게 왜군 침입 방어책에 대해 편지를 보냈다던 지 선조 6년에 承旨로서 軍籍의 제단과 북방 경비에 대해 건의한 외에 실록의 여기저기에서 군사 전략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므로 전략가라고 할 수 있다.

넷째, 행실이 바른 전형적인 선비였다. 아천군은 정직하여 마침을 못하였는데, 이 때문에 명종 19년(1564) 홍문관 正字로 있을 때, 權奸을 거슬려 北幕으로 좌천되기도 하였다. 또한 성품이 청렴하고 길소하여 家庶을 다스리지 않았으며 재상의 반열에 있을 때에도 寒士처럼 생활하였으며, 또한 효도와 우애가 지극하였다. 또한 自奉하기를 철빈한 선비와 같아서 생일날에 잔치를 베풀지 않을 정도였다. 그는 세번이나 성균관 大司成에 제수 되었지만 매번 出仕하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儒學으로서 감내할 수 없다'고 하여 사람들이 그의 謙退를 찬하게 여겼다.⁵²⁾ 좌찬성을 지낸 능안부원군 具思謙은 아천군을 평하기를 「자조가 있고, 꿈순하기가 끝내 변하지 않았다」고 하였다.⁵³⁾

50) 『선조실록』 권 114, 선조 32년 6월 丁酉條.

51) 『北鼎直稿』, 『桂西川鄭公直稿』

52)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六百年史』 인물편, 1003, 1129~1130쪽.

그의 일화로서 전라도 감사로 재임할 때에 玉蟬娟이라는 기생으로 하여금 아천군에게 守廳을 들게 하였으나 아천군이 거절하자 육선연이 창밖에서 수청을 들었다는 것이다.⁶³⁾

아천군의 死後에 선조가 지은 祭文에는 「성품이 맑고 계주가 보통에 지나 이름이 황실에 올라 충성되고 篤實하여 사대부와 관청 사이에서 경서를 때보고 대궐에서 임금의 말을 받들며 단핵의 글이 남라는 서리와 같고 甘棠을 노래하니 사람들이 나라의 아재라고 일컬고 세상에서 그의 집안의 행동을 아름답게 여겼다」⁶⁴⁾라고 하였다. 오성 李恒福 등이 지은 아천군 제문에는 「성질이 따뜻하고 착하니 도량이 너그럽고도 여유가 있어 당시에 그릇이 원대하고 사람이 화락하다고 하였다」⁶⁵⁾ 하였으며, 좌의정 李憲國 등이 지은 祭文에는 아천군은 「뜻은 높고 밝은 것을 승상하고 운치는 맑고 어진 것을 겸했네, 학문은 순수한 선비에게 뛰어났고 문장은 文壇에서 빼었네」⁶⁶⁾ 하였다.

또한 해평부원군 尹根壽는 제문에서 「公은 淳良하고 겸손하여 일찍이 행동이 능하다고 해서 남을 먼저하거나 문장이 좋다고 해서 옛 作著를 따르지 않았고, 또 일찍이 文藝로 해서 자기가 남보다 났다고 하여 불처럼 공손하여 사대부의 바람과 도시 사람들의 이마에 손을 없는 자들이 항상 공에게 있었다. 그러나 둘이켜보면 士論이 두 갈래로 갈라매와 서로 어긋나서 일찍이 세상에 높이 쓰이지 못하여 그 벼슬이 예조판서에 그칠 뿐이 있으니 자못 지위가 덕에 차지 못한다는 것인가?」⁶⁷⁾ 하였다.

62) 具思孟, 『八谷集』 卷 1, 「鵠川君李公增性」.

63) 卞應祐, 「白面遺稿」, 「光山駁坊歌謡 為李榮可謙作」.

64) 「北崖遺稿」, 부록 「國王敍祭」.

65) 「北崖遺稿」, 부록 「영종추 韶興郡 著」.

66) 「北崖遺稿」, 부록 「해평부원군 尹斗壽」.

李增 家系圖



鵝川君 李增 年譜

연 월 일	연령	행적
중종 20년(1525)		출생
명종 4년(1549)	24세	사마식에 합격
명종 15년(1560)	35세	별시 문과에 행과로 급제
명종 19년 10월 13일(1564)	39세	승문원 正字에 임명됨.
명종 21년 6월 29일(1566)	41세	홍문관 푸수찬에 임명됨.
명종 21년 8월 28일(1566)	41세	홍문관 수찬에 임명됨.
명종 21년 10월 24일(1566)	41세	사간원 정언에 임명됨.
명종 22년 5월 21일(1567)	42세	홍문관 수찬에 임명됨.
명종 22년 6월 25일(1567)	42세	사헌부 지평에 임명됨.
선조 1년 4월 29일(1568)	43세	부수판으로 임명됨.
선조 4년 4월 22일(1571)	46세	中直大夫 行少文館副校理知製教 兼經筵侍讀官으로 평준실록 관수관에 참여함.
선조 4년 10월 15일(1571)	46세	사헌부 지평에 임명됨.
선조 4년 11월 9일(1571)	46세	홍문관 부교리에 임명됨.
선조 6년 5월 23일(1573)	48세	사헌부 집의에 임명됨.
선조 6년 6월 25일(1573)	48세	承宣에 임명됨.
선조 6년 10월 12일(1573)	48세	평방승지로서 崑士晦 사간에 대체 논함.
선조 6년 11월 21일(1573)	48세	軍路의 계단과 복방의 정비에 대해 논함.
선조 7년 8월 3일(1574)	49세	승지에서 파직됨.
선조 7년 10월 6일(1574)	49세	전라감사에 임용됨.
선조 13년 11월 1일(1580)	55세	명나라 聖節使로 파견됨.(수정 실록)
선조 14년 4월 12일(1581)	56세	천라감사에 임용됨.

연 월 일	연령	행적
선조 15년 8월 13일(1582)	57세	사헌부에서 탄핵을 요구하여 황미 수락함.
선조 16년 7월 18일(1583)	58세	선조가 경상감사로 적합하다고 함.
선조 16년 12월 1일(1583)	58세	대사간으로 임명됨.(수정설록)
선조 22년 10월 27일(1589)	64세	부제학에 임명됨.
선조 23년 8월 1일(1590)	65세	3등 振忠奮義平難功臣에 봉해짐.(수정설록)
선조 23년 12월 25일(1590)	65세	이조판관으로 제임함
선조 24년 1월 29일(1591)	66세	미조참판에서 제직됨.
선조 24년 2월 13일(1591)	66세	대사원에 임명됨.
선조 24년 4월 16일(1591)	66세	예조 칼관에 임명됨.
선조 24년 7월 5일(1591)	66세	兩司의 판택으로 대사간에서 파직됨.
선조 25년 1월 1일(1592)	67세	형조판서로 제임함.(수정설록) 趙憲으로부터 폐작 방어에 관한 권치를 받음.
선조 25년 5월 9일(1592)	67세	史錄에서 선조 호종에 취취전 것을 이유로 탄핵함.
선조 26년 1월 13일(1593)	68세	사헌부 대사원에 임명됨.
선조 26년 5월 6일(1593)	68세	대사헌에 임명됨.
선조 26년 9월 12일(1593)	68세	예조판서에 임명됨.
선조 28년 7월 24일(1595)	70세	特進官으로 활약함.
선조 28년 8월 19일(1595)	70세	사간원의 판택으로 특진관에서 파직됨.
선조 28년 9월 21일(1595)	70세	도총관으로 활약함.
선조 29년 6월 18일(1596)	71세	특진관으로 활약함.
선조 30년 8월 6일(1597)	72세	중조판서에 임명됨.
선조 30년 8월 22일(1597)	72세	龜川君으로 봉해짐.

연 월 일	연령	행 적
선조 32년 6월 14일(1599)	74세	예조판서에 임명됨.
선조 32년 6월 23일(1599)	74세	의금부 金事司 재임함
선조 32년 11월 14일(1599)	74세	부원군으로 선조에게서 평단 1필을 받음.
선조 33년 4월 20일(1600)	75세	공조판서에 임명됨.
선조 33년 10월 14일(1600)	75세	별세함.

문 수 진 (신구대학)

조선 중기의 인물 아천군(鯨川君) 이중(李增)에 대한 연구로 『李增의 생애와 사상』을 발표하였습니다. 내후회관이 거듭되는 국난을 겪던 시대의 인물 이중에 대한 사료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를 섭렵하고 알찬 논문을 준비하셨습니다. 먼저 이중이 살던 시대는 16세기 중·후반으로 土禍가 연달아 일어나는 사이에 많은 土林들이 죽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훈구세력이 물락하고 사람들의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이에 또 다른 분당의 빼앗을 임태하고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국초에 소규모의 해란이 점차 규모가 커지더니 결국에는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상 최대의 비극을 겪는 시대였다.

논문에서는 시대적 상황을 서술하고 임진왜란의 전경상황을 지나치되만큼 상세하게 소개하고 이중의 활동과 그의 국방의식과 역사상 위치를 정리하셨습니다. 혼란한 시대를 살면서 문파에 침몰하지 않았고 전란을 겪으면서도 이중은 문관이면서도 오히려 무인 같이 각 문야에서 다대한 업적을 남겨 문무를 겸한 인물임을 밝혀놓았다.

이중은 명문가의 후예로서 과거에는 비교적 늦은 35세에 급제하였지만 장수하셨기 때문에 관직에 재임한 기간이 40년이나 되어 상당히 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주로 三司, 즉 홍문관·사헌부·사간원의 요직을 거쳐 대제학을 제외한 양사의 장을 역임하였고, 또는 승정원의 오직을 맡았습니다. 또 전라감사와 같은 회직도 달고 형조·제조·공조판서 등을 역임하여 항상 실질적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 선임되었다. 직연을 세습치 않고 일을 처리함에 사사로움이 없고 날카로운 판단을 하여 세인이 주목하는 인물로 인식되었습니다. 정여립 사건의 국문에 끝까지 참여하여 명석한 판결을 내어 공신으로 책록되었습니다.

이중은 종제변무에 대해서도 공을 세웠다. 宗系辨謫란 대조 이성계의 부친 이자춘의 이름이 明의 『太祖實錄』과 『大明會典』에 고려 말의 권신 李仁任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었다. 조선 건국 2백여년이 지나는 동안 여러번 요청했음에도 이루지 못하고 선조 때에 이르게 된다. 선조 13년 예조참판으로 堅節使가 되어 명나라에 가서 앞서 개정하도록 허락했는데 선조의 이름 두 자가 잘못되어 명나라 禮部에 사정할 것을 요구하고 예부의 회자(回咨)를 가져왔다.

이중은 특히 임진왜란으로 유명해졌다. 전쟁 초기 형조판서로서 어가를 수행치 못하여 외심도 산적이 있었다. 그러나 벗제 아들 麟流가 상주전부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에 67세의 고령으로 연로한데다 병환으로 하여 어가를 수행치 못했다. 후에 사간원에서는 이를 문제삼아 과직을 철판으나 국왕 선조는 평소의 이중의 성실한 충성심을 의

설치 않아 이를 논하지 말도록 하였던 것이다. 체란 전 선조 20년(1587) 외적 침입에 대한 趙憲의 경고 상소를 보고 「군국의 일을 의논하려면 이중 둥을 불러야 한다. 이들은 賈賣하고 儒雅하여 함께 일을 의논할 만하다」고 하였다. 선조 28년(1595) 7월에 특진관이었던 이중은 선조와 대신들을 인견한 자리에서 체란 초의 방어작전에 대해 「미뭇거리며 진격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병법에서 꺼리는 바이지만 경계망통하여 군대를 폐해하게 한 것은 한 명의 군사도 일지 않고 보전하여 후퇴하는 것만 못하다.」고 진언하였다. 이중은 문신이었지만 전략전술에 대해 일가견을 가진 인물이었음을 밝혔다. 또 전쟁 중 몇 나라와의 외교에 힘을 발휘했으니, 그 활동은 대단히 팔목하여 고려시대의 徐熙 장군과 유사한 공헌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전황을 보는 예리한 안목과 주관이 뚜렷한 주장으로 국가의 주체성을 잃지 않는 성과를 거두었다.

『宣祖實錄』에 나온 기록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만 명종 21년(1566) 8월에 정6품
직인 홍문관 수찬에 임명되었다가 2년 후인 선조 1년(1568)에 종6품 직인 부수찬으로
임명된 것이 의심스럽다.

이 논문을 보면서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첫째 아천군 이중의 생애가 조선 초기에 특히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국란극복에 전력한 악사적인 큰 인물이었음을 밝혀놓았다. 이중은 문신이었지만 무관에 못지 않는 전략전술에 밝았으며 충무공 이순신이나 권율장군 같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숨어 일한 잘 인물 하나를 찾아낸 것이다. 이들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사료를 제공하여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사료의 부족 때문이겠지만 임진란에 관한 서술이 너무 장황하게 서술되지 않았는가 보입니다. 전쟁상황에 대한 소개가 10여 쪽에 달하고 있다. 전제의 만 가까이가 임진왜란에 대한 기술이었습니다.

둘째 아천군의 인물을 조명하여

- ①뛰어난 문장가
- ②탁월한 정치감각을 지닌 관리이자 정치가
- ③외교·국방의식에 높은 인목을 지닌 인물
- ④행실이 바른 전형적인 선비

라고 한 것은 대단히 올바른 평이라고 본다. 주제가 다르긴 하지만 그의 뛰어난 문장이 일부 소개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셋째 당시는 당쟁이 싹터 치열할 때인데 여기에 힘쓸리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넷째 연보를 잘 정리했다. 연보를 보면서 70대의 고령으로 판서의 직위에 있었던 일이 있는가? 아천군은 75세에도 공조판서에 임명되었는데 이는 그만큼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직무에 충실했던 분이 아님이 한다. 40대에 경승의 자리에 오르는데 70대에 판서로 직임을 다하였으니 아천군 이중에 대해서는 尹根露의 계문에 「지위가 덕에 차지 못한다는 것인가?」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주제발표 3.討論要旨]

이 연 복 (서울교육대)

이 논문은 우리나라 5천년 역사 중에서도 가장 큰 수난인 임진왜란을 겪었던 아천군 이중의 인물사 연구입니다. 원고 청탁이 늦은 관계로 필자가 짧은 기간동안에 인물 연구를 충실히 한 점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필자는 아천군 이중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연구를 임진왜란의 전란 속에서의 그의 역할을 고찰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전해오는 아천군 이중의 문집 내용이 반약하므로 [조선왕조실록] 기록과 동시대에 활동한 유명 인물의 문집에서 아천군의 행적을 찾으려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천군 이중이 생존했던 시기(중종 20년: 1525~선조 33년: 1600)를 조선 역사 연구와 대조해서 세습하려한 것은 아천군의 인물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도움이 커고 연구방법의 하나라고 봅니다. 또한 연구 결과 아천군 이중이 문장이 뛰어나고, 타월한 정치감각을 지닌 고위관리이자 정치가였다는지, 행실이 바른 전형적인 선비였다고 정리한 점은 공감되는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자의 연구 논문 결과에 대하여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1) 아천군 이중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자료는 실록에 즐기(후記)도 없을 뿐 아니라 기록이 별로 많지 않으므로 이를 밝히는 것은 어려우리라고 생각되지만 그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본 논문에서는 그의 사상 경향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됩니다. 그가 관직에 재임할 당시에는 둘·서 분당(分黨)이 이루어 지던 시기인 만큼 분당에 속한 그의 정치경향 등을 소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2) 필자는 아천군 이중이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고 외교·국방의식에 높은 만족을 지녔다고 하는데 이와같은 표현은 공감은 하지만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율곡·이궁익(李甫翊)·구사령(具思盈)·윤근수(尹根壽)·이경석(李景奭)·유성룡 등의 문집에 수록된 아천군의 인물평에는 이 같은 표현은 보이지 않으므로 좀더 연구성과가 나온 뒤에라야 그 평가가 적절할 것이라 봅니다.

3) 선조실록(선조 33년 : 1600년 10월 1일조)에 보면 "영의정 이향복 등이 선조에게 아뢰기를, "이번 동쪽과 서쪽으로 살펴본 산들은 매우 많았으나 의견들이 각기 서로 달라 신들이 용이하게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 그래서 술관들과 하나하나 모의를 거쳐 확정지어 보니, 모두 말하기를 '광주(廣州) 이줄(李增) 집안의 묘산과 양천(陽川) 김용남(金應南) 집안의 묘산 및 부평(富平) 목승평(睦昇平) 집안의 묘산들은 비록 산도(山圖)의 서열에는 끼여 있으나 모두 이호민네 묘산보다는 못한대, 이에 대해서는 서계한 산론(山論) 중에 이미 상세히 논의하였다.'고 하니, 이제 다시 살필 필요는 없습니다."란 기록이 보이는데 아천군의 중증산이 왜 영당으로 당시에 거론되었는지를 밝혀준다면 환산 이씨 종중산의 유키 보존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주제 발표 4

한산 이씨 문중 검토

- 중앙공원 내 한산 이씨 묘역을 중심으로 -

발 표 : 고혜령(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토 론 : 이정복(전 한양대학교, 철학)

조병로(경기대학교, 한국사)

한산이씨(韓山李氏) 문중 검토

- 중앙공원 내 한산이씨 묘역을 중심으로-

고 해령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성남시 중원구 수내동에는 한산이씨(韓山李氏) 묘역이 있다. 이곳은 한산이씨봉화공파 종회의 묘역으로 한원군 이장윤(韓原君 李長潤), 한성군 이질(韓城君 李秩), 한평군 이지숙(韓平君 李之肅)을 비롯하여 19위의 선조묘가 있고 산자락에는 명묘와 연지가 있어 조선 중후기 세계(世系) 선영(先塋)의 묘제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한산이씨의 선조(先祖)는 이윤경(李允卿)으로 한산에서 대대로 호장(戶長)직을 이어온 토성(土姓)의 하나이다. 한산이씨는 가정(稼亭) 이곡(李穡)과 그의 아들 목은(牧隱) 이색(李穡)에 이르러 중앙 관계(官界)에 진출하므로서 가문의 위상을 높이게 된다.

가정 이곡은 중국의 신유학 즉, 주자학을 받아들이 고라에 전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또 그의 아들 목은 이색은 부친의 뒤를 이어 조선 유학의 대종(大宗)이 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가정의 글은 『가정집(稼亭集)』으로 남아 전해지고 있고, 목은 이색은 방대한 양의 글을 남겨서 『목은집』 남아있다. 이 책들은 가정과 목은의 뛰어난 문장과 학문을 전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역사를 알려주는 중요한 사료이기도 하다.

조선초의 서거정(徐居正)은 『동인시화(東人詩話)』라는 저서에서 “충렬왕 이후에 김주(金注, 사서집주)가 비로소 행해져서 학자들이 성리학으로 들어가 이재(益齋)이하 가정 목은 포은 삼봉 양촌 제 선생이 서로 이어서 일어나 도학(道學)을 창발하였다.” 라 하였다.

그리면 먼저 한산이씨를 오늘의 조선시대 명족(名族)의 하나로 일으키 세운 가정 이곡과 목은 이색의 생애와 업적을 높여 보기로 한다.

1. 가정(稼亭) 이곡(李穡)의 업적

충렬왕대 말기에 한산지방 호족 가문에서 태어난 이곡은 과거에 급제하여 중앙의 관리가 되었으며 더 나아가 원(元)의 과거(科舉)에 합격하여 원나라에서 관직을 받아 이름을 크게 떨쳤다. 이곡의 자는 중보이며 호는 가정이다. 충렬왕 23년(1298)에 한산 북고촌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이자성(李自成)은 한산 군리(郡吏)였으며 진사에 올라 정읍감무(井邑監務)를 역임하였다고 하였다. 일찍이 아버지를 이의고 어머니의 슬하에서 자랐으며 도평의사사의 녹사가 되었다. 20세(충숙왕 4년, 1317)에 거자파(擧子科)에 합격하고 3년 후에는 이재현 박효수의 문하에서 과거에 합격하였다.

가장 이복이 살았던 시기(1298-1351)는 약 100년간의 무신정권과 몽고족의 침입에 시달리다가 원제국(몽고)파의 강화로 평온을 되찾은 시기였다. 고려는 비록 독립국의 명목은 유지하였으나 실제로 독자적인 정치운용이 불가능하였다. 고려의 정치기구는 그 명칭을 한 단계씩 낮추어 각하 개편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원 광주를 고려 왕비로 맞아 들어므로써 부마국(駙馬國)의 지위로 떨어지게 된 것이다. 이 시기는 원의 정치적 간섭과 각종의 수탈, 부원세력(附元勢力)의 책동으로 인한 국왕 부자간의 갈등으로 경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경제질서와 사회기강이 문란해져 있었다. 이와 함께 원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문물의 교류와 인적 교류도 매우 많았다.

충숙왕7년 가문 배경이 없는 신진관료로서 문과에 급제한 이복은 오랜기간 동안 복주사록참군(福州司祿參軍)이라는 한직(閹職)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그는 다시 제2단계의 도약을 위해 원나라 과거에 응시자격을 얻는 정동행성향시(征東行省鄉試)에 도전하여 1등으로 합격하였다. 이어 원의 과거에서는 제 2감 제 2명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급제하였다(1333년). 이 때 원의 독권관(讀卷官)이 그의 「대핵(對策)」을 높이 평가하여 그를 재삼에게 추천하여 한림국사원김밀관(翰林國史院檢閱官, 정8품)으로 발탁되었다. 한림국사원은 학문과 문장이 뛰어난 인재들이 배치되어 왕을 대신하여 문장을 짓는 곳으로 엔리트 관료들이 모이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이복은 원의 문사들과 교류하며 문명(文名)을 펼치게 되었다. 이 때 교류를 찾은 사람들은 충본(宋本), 진려(陳旼), 구암현(歐陽玄), 왕사첨(王思點), 우문량(宇文諒), 우길(禹集), 사단(謝端), 성준(成遵) 등 당대 유학자들을 망라한다. 이복의 원의 사대부들과의 교류는 성리학 수용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복은 충숙왕 복위 3년(1334) 원에서 학교를 일으키라는 조서(詔書)를 만들고 귀국하자 고려에서도 전의부령직보문자(典儀副令直寶文憲, 종4품)에 제수(除授)되었고 다음해에 다시 원에 들어갔다. 이제 이복은 중앙으로 진출하여 자신의 지위를 높여가게 되었다. 이 길은 과거를 통해 신분을 상승시키는 지방출신 신홍관인의 전형적인 경로라고 할 수 있다.

충숙왕 복위 6년(1337)에는 원에서 정동행성총서성 좌우사원외랑을 제수하였고, 고려에서는 그에게 중현대부 성균좨주 예문관제학 지제교를 내렸다. 이후 그의 관직활동은 고려와 원을 왕래하면서 활약하였고, 충목왕 2년초에는 고려에 돌아와 이제현(季齊賢) 안축(安軸)들과 정치일선에 참여하였다. 이후 이복은 승진을 거듭하여 경당문학(중2품) 진현 관제학 지춘추관사 삼호군을 제수받았다. 그는 이제현의 추천으로 서연(書筵)에서의 강론을 맡고, 이제현을 비롯하여 안축, 이인복 등과 함께 민지(閔智)가 찬수한 「편년강독」을 보완하였으며 충렬, 충선, 충숙의 세왕의 삼조실록(三朝實錄)을찬하는데 참여하였다.

고리에서 원 파거에 급제하는 일은 대단히 드문 일로써 이과 외에 안축과 안보 이인복
최해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이곡은 이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학문의 깊이를
더해갔다. 이곡은 뛰어난 문필로써 능력을 드러낸 명망있는 유신이었을 뿐 아니라 원 사
대부와의 교유를 통해서 성리학을 수용하므로서 고려 유학사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곡은 예·원 양국의 관직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실제로 원에 대해 고려의 어려운 사
정을 호소하고 부당한 징발이나 알력을 극소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이곡의 관직활동에서의 역할이나 업적은 재원(在元)기간 중에 더 두드러진다.

원의 고려에 대한 착취 중의 가장 비인도적이고 잔악한 행위가 궁녀(貢女)의 징발이었
다. 원의 잣은 궁녀 요구로 고려에서는 처녀 확보를 위하여 일시 나라안의 혼사(婚事)를
금지하는 일도 있고 핵심들은 이를 피하려는 방편으로 조혼(母婚)을 시키기도 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곡은 원의 궁녀 징발에 대하여 「대언관청파취동녀
서(代言官請罷取童女書)」를 옮겨 고려인의 협독의 정을 끌는 아픔을 호소하였다.

“듣건대 고려 사람들은 말을 날으면 끈 이를 슬기고 오직 드리난까 걱정하여 비단 이
옷이라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매양 사선이 오면 문득 실색(失色)하여 서로 돌아보며 말하
기를 부엇하려 았는고. 동녀(童女)를 취할 것이 아닌가 처첩을 취할 것이 아닌가 하다가,
이윽고 군리(軍吏)가 사방으로 나가 짐짐마다 수색하여 만일 혹 슬기면 그 이웃을 끌아
가두고 그 친족을 구속하며 폐치하고 괴롭게 하여 드리난 뒤라야 그치니 . . . 이와같이 하
기를 한 해에 두번 혹은 한번하며, 격세(隔歲)하기도 하며 그 수가 많으면 4,500명에 이르
렀습니다. 이미 뿐히게 되면 부모와 친족이 서로 모여서 밤낮으로 물어 곽설이 끊이지
않고 국경에 보냄에 이르러서는 옷자락을 불참고 발을 구르며 넘어져서 걸을 막고 올부
짖다가 슬프고 원통하여 우물에 몸을 던져 죽는 자도 있고 스스로 목매어 죽는 자도 있
었으며 근심과 걱정으로 기절하는 자도 있고 피눈물을 쏟아 눈이 번 자도 있으니 이와
같은 파워는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처녀 구색(求索)은 극심한 사회적 폐단을 가져옴을 간절히 호소하고 이는 여원
관계에도 이를지 못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파하였다. 이 글은 순제(順帝)에게 가납(加
納)되어 끈 이를 청지시키게 하였다.

충숙왕 후6년(1337)에 이곡은 정동행성 좌우사원외랑(征東行省 左右司員外郎)이 되어
귀국하였다. 정동행성은 원이 일본원정의 목적으로 고려에 설치하였으나 그 후에도 계속
남아 고려 내정에 깊숙히 간섭하는 기구였다. 당시 정동행성 이문(理問)이라는 직책을 가
진 원 관리 계이충(揭以忠)이 고려에 와서 원의 법제가 제대로 통용되고 있지 않음을 문

책하였다. 이에 대해 고려는 본래부터 중국과 풍속이나 언어가 달라서 독립된 체제가 유지되어 왔으며 원 세조(世祖)도 고려에 대해서는 ‘불개토풍(不改土風)’ <고유의 풍속을 고치지 말라>의 유시(諭示)가 있었음을 주장하였다. 양국간의 문제가 일어난 때마다 고려의 유신들은 이 일을 들어 독자성을 강조해 왔고 원 중심의 세계 속에서 우리 민족의 자주성과 문화적 자긍심을 나타내주고 있기도 하다.

충혜왕대에는 원의 간섭이 더욱 심화되어 일부 관료는 고려를 원의 한 성(省)으로 만들자는 입성책동(立省策動)까지 일으켰다. 충혜왕은 실정(失政)을 이유로 원의 사신에게 포박되어 잡혀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고 왕은 멀리 광동성으로 유배되어 가던 중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충목왕(忠穆王)이 즉위하면서 고려에 개혁의 움직임이 일자 이곡은 재상에게 편지를 보내어 적극적으로 개혁할 것을 부탁하였다. 그는 정치는 침정자의 용인(用人)에 달린 것으로 보았으며 구폐(舊弊)를 쟁고 문란해진 정치를 바로잡으려면 인재를 잘 써야함을 총고하였다.

“지금 본국의 풍속은 재물이 있으면 유능하다 하고 세력이 있으면 슬기가 있다 하며 관리와 유파를 솟을거리로 알고 직언(直言)과 정론(正論)은 황간의 비친 소리라 하기에 미르렀으니 나라가 나락 닦지 못한 것도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용인이 정치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주재(主宰)하는 자는 재물과 권세에 의탁하지 말고 공정하게 사람을 등용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용인은 위정(爲政)의 근본’이라는 기본 입장을 취하였다. 또 재물과 호구(戶口)보다는 군주의 마음가짐이 바른 후에야 어진 인재를 등용하여 선정(善政)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곡은 인간의 근본 도리인 直(孝)를 강조하였다. 효는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므로 불直한 자에 대하여 교화를 베푸는 것이지, 잘하는 것을 상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直(孝)와 忠(忠)의 문제에 있어서는,

“공자는 또 말씀하시기를 아버이에게 효도하기 때문에 충성을 임금에게 옮길 수 있다 하였고, 맹자는 미르기를 어질면서 그 아버이를 떠리는 자는 없으며, 의로우면서 그 임금을 뒤로 하는 자는 없다 하였으니 대체로 충성과 효도는 인과 의를 실천하는 일이다. 일은 두 가지이지만 이치는 한가지이다. 비록 그 입장이 같지 않아 늦추며 급한 것이 같지 않음은 있다 하더라도 그 근본과 같은 모든 질서가 있어 어지럽힐 수 없는 것이다.”(『가정집』 1, 조포충효론(趙楨忠孝論))

즉 충과 효는 인파 의의 일이며 그 이치는 같은 것이므로 두 가지 일이 서로 어긋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인간의 기본 도리는 효에 있으며, 충과 효는 본래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충과 효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는 먼저 효를 앞세워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충을 위해 효를 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 충을 위해 효를 저버리는 것은 결국 자기의 공업(功業)을 추구하기 위함이었다고 논박하였다.

효는 절대적인 것이어서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뒤로 미루어 질 수가 없는 것이다. 부자와 관계는 천(天)에 의한 것이므로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천리(天理)이지만 군신의 관계는 어느 정도 인위적인 것이다. 만약 효보다 충을 앞세운다면 이는 인위적으로 엮어진 관계에 의해서 어떠한 댓가나 명예를 바라는 인간의 심리가 팔려 있음을 간파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효에 대한 절대론을 미루어 명덕(明德), 친민(親民)의 정치관을 제시하였다. 군자가 인(仁)의 정치 즉 명덕, 친민하는 경치를 꼬 나가려면 수기정심(修己正心)하여 그 마음가짐에 근원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심(心)이란 한 품의 주인이고 만화(萬化)의 근본이다. 특히 군주의 마음은 정치의 근원이요 치란(治亂)의 기틀이다. 이러한 이곳의 정치관은 정치의 현실적인 측면보다는 근원적인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즉 인간의 근본도리는 효·체·충·신이니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도 여기에 근본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범제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도 人情을 함께 떼풀어져야 한다는 입장은 취하여 인륜이나 우주 자연의 순리를 어기지 않고 인의에 따르고 교회에 의한 덕지를 근본으로 삼음으로서 공자·맹자의 뜻에 철저히 부합하려 하였다. 따라서 이곳은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인재 등용을 통한 왕도정치를 지향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목은(牧隱) 이색(李穡)

이색의 자는 영숙(頴叔), 호는 목은이다. 충숙왕 15년(1328)에 경상도 영해부에서 출생하여 조선 태조 5년(1396) 69세로 세상을 떠났다.

이색은 14세인 충혜왕 복위 2년(1341)에 성균시에 합격하였고, 20세에 원에 가서 원 국 차감생원이 되어 수학하였다. 원 학자들과의 교육도 이 시기에 이루어진다. 24세 때 충정왕 3년(1351) 아버지 이곡의 부음을 듣고 귀국하여 3년상을 치르게 된다. 그해 공민왕이 즉위하자 상(喪) 중에 상서를 올려 당면한 국가의 사폐를 논하고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이 시기에 이미 그의 정치사상이 확고히 정립된 것을 그의 <복중상서(服中上書)>에서 볼 수 있다. <복중상서>에서는 5가지의 개혁론을 제시하였는데, 먼저 당시의 토지제도를 바로 잡아 관문세가의 불법토지점령을 지양하고 농민들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도록 할

것, 물체 정방을 없애고 일부 병부를 통해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기할 것, 세째 육군과 수군을 틈틈히 하여 국방을 틈틈히 할 것, 넷째 향교 학당 성균관의 학교교육의 중흥과 이들 상호간의 연계과정을 법으로 규정할 것 다섯째 불교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도침제를 실시할 것 등을 건의하였다. 이 건의는 고려 중흥의 당면과제였고, 앞으로 이색의 정치활동과정에서 추진되어가는 것들이었다.

공민왕 2년(1353) 이색현이 지공거가 되고 흥언박이 동지공거가 되어 문과를 행하였는데 이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숙옹부승을 제수받았다. 이어서 동년 가을에 실시한 정동행 성향시에 수석으로 합격하여 다음해 서장관으로 원예가서 원과거에 제2감제2명으로 합격하여 용봉한림문자승사람 등지제고 겸 국사원편수관을 받고 귀국하였다. 원나라 과거에 부자가 연이어 급제하기는 처음있는 일이었다. 부친 이곡이 일찍부터 자식에게 학문에 힘쓸 것을 강조하여 왔던 결실이기도 하다.

“남아는 모름지기 제왕의 도움에서 베슬살이하여야 할 것이니,
몸을 빛내고자 한다면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너는 공자가 천화가 작다고 한 말의 뜻을 알겠는가.
오직 몸을 태산같이 높게 치신하라는 것이다.
30세 전에 독서를 계율리하면
늙은 후에 탄식한 들푸엇하리...”

이것은 이색이 성균시에 합격하자 부친 이곡이 원의 연경에 있으면서 아들에게 보낸 시의 한 구절이다.

이색은 원에서 받은 한립원경력이라는 직책까지 받았으나 이를 사양하고 고려에 돌아와서 활동하였다. 공민왕4년(1355)에는 내서사인으로 승진하였는데 공민왕은 그를 특별히 총애하여 왕부 철도직(필라치)으로 삼아서 국랑의 비답(批答)을 작성하는 일을 맡겼다. 목온은 또 <시정8사(時政八事)>를 옮겨 정방을 폐지하고 일부 병부를 회복하는 등의 개혁을 건의하였는바, 이후 관제개혁이 있은 후 그는 일부사랑과 병부랑중을 겸하여 문무의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공민왕의 이색에 대한 대우는 특별하여서 공민왕 6년 우간외대부로서 기거사인 전록생(田祿生), 우사간 이보림(李寶林), 좌사간 정주(鄭樞) 등과 함께 염철별감(鹽鐵別監)의 폐를 논하였을 때 이 일에 관련되어 좌천당하게 되자 왕은 오히려 이색을 조정에 없어서는 안될 인물이라고 하면서 물러들여 추밀원우부승선한림학사로 승진시키기도 하였다. 또 홍건적의 침입을 당하여 왕이 福州(안동)로 피난하여 갈 때 호종한 공로로 1등공신을 받았다. 신돈침원기에도 이색은 침서밀직사사로 승진하여 순조롭게 관직생활을 염위하였다.

공민왕 16년에는 성균관을 중수하고 이색을 판관성부사겸 성균대사성으로 임명하였다. 이색은 생원을 중원하고 학자들을 뽑아서 교관을 겸임시켜 학문을 중흥시켰다. 이 때 함께 한교관으로는 김구용·정동주·박상충·박의중·이승인 등 당대의 젊은 학자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혹은은 매일 명륜당에 나가 경서를 나누어 말아 가르치게 하였다. 이 때 서로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의논 분석 절충하고 판단을 내려 반드시 주자(朱子)와 정자(程子)의 뜻에 맞추도록 힘써 밤을 잊으며 부지런히 공부하게 하였다. 이를 계기로 고려에서 성리학이 크게 일어나게 되었다. 이후 공민왕 말기까지의 이색의 활동은 주로 성리학의 심화와 보급에 집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세 차례 문과의 지공거와 공민왕의 친시 득권관(親試 譲卷官), 정률행성향시를 맡아 5 차례나 문생을 뽑았다.

우왕즉위 이후는 그는 영예문춘추관사 겸 성균대사성으로 지서연사가 되고 우왕의 사부(師傅)가 되어 왕명의 여러 기·문을 짓고 있으나 정치적 활동 거의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 시기에는 침에서 우거하면서 <자경장(自敬齋)>을 짓고, 문생들의 요청으로 기문을 쓰면서 소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게다가 병이 심해서 자유로이 출입할 수 없어 이성계가 황산성전투에서 왜구를 격퇴하고 개선할 때는 영접하지 못하고 축시로 대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가까이 지내는 동료·친우·문생외에 승려 나옹(懶翁)과 제자인 혼수 환암(混庵 幻庵)파의 친분이 더욱 두터워지고 불교 승려들의 요청으로 불교관계의 기문을 다수 쓰게 된다. 마침 그의 부친 이곡을 위하여 대장경을 인성(印成)하기도 하여 그의 생애에서 승려들과 가장 많은 접촉을 하고 불교와 깊은 관계를 맺었다.

이성계의 위화도회군 이후 이색은 창왕 용립을 지원하므로써 경계에 다시 등장하였으나 곧 조준 정도전과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신진사대부의 탄핵을 입어 세력을 잃게 되었고 유배와 방랑의 말년을 맞게 된다.

목은 이색의 역사적 위상은 고려 성리학을 정착시킨 성리학의 대종이라 할 수 있다. 또 교육론과 정치개혁론을 통해서 왕도정치의 이상을 다시 이루려 하였다. 성리학자로서의 이색의 이기론에 있어서는 주기론적 해석을 제시하였고 실성론에 있어서는 '성즉리'라고 하는 광주성리학의 기본적 관점을 계승하였다. 나아가서 그의 수양론은 실천적 측면에서 '경'을 수양의 핵심정신으로 인식하였다. 즉 이색은 성리학의 수양본인 주관적인 성찰의 방법, 즉 거경이나 신독(慎獨)과 같은 인간 내면을 중시하는 성리학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인간의 본성을 중시한 윤리 도덕적 정치논으로 정치 사회를 안정시키려한 것이다. 그리고 유교적인 충의를 지켜 불사이군의 충절을 보였다.

한편 불교의 계단을 인식하고 도침체를 견의하여 불교를 통제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종교로서의 불교의 역할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입장은 취하여 포용적이었다.

이색의 아들은 셋이 있었는데 종덕(種德), 종학(種學) 종선(種善)이다.

이종덕은 문과에 장원하여 우왕때 통지밀직사사를 지냈으며 1387년 정조사(正調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러나 1390년(광양왕2년) 이색의 동조세력을 속첨할 때 그 일족으로서 평출당하게 되었고 다. 1392년 청주속에서 방면되었으나, 조선건국의 소용돌이속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종학(1361-1392)은 1374년 성균시에 합격하고 1376년 문과에 급제, 장흥고사에 제수되었다. 그 뒤 관직이 지밀직사사에 이르렀다. 왕왕이 즉위한 이후에는 성균시를 관장하기도 하였으며 승진하여 침서밀직사사가 되었다. 광양왕이 즉위하고 이색이 탄압을 받게되자 함께 평출되었다. 1390년 윤이 이초의 옥사에 연루되어 부자가 모두 청주속에 갇혔다가 마침 홍수가 나서 사면되었다. 이후 소환과 유배를 거듭하다가 조선이 들어서면서 장사원으로 유배되는 도중 살해되었다. 죽음에 임하여 “나는 이름 때문에 남의 미움을 받아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너희들은 아예 과거를 보지 말라” 했다.

이색의 셋째 아들 종선(1368-1438)은 권근의 사위이다. 자는 경부(慶夫). 15세 때 문과에 급제하여 좌랑 정랑을 지냈으며 순창 여홍 배천의 수령을 역임하였다. 1392년 정몽주가 피살되자 그 일당으로 몰려 서민이 되고 멀리 귀양갔다. 조선에서는 병조참의가 되었고 1409년(태종9년)에 좌우사간대부가 되었다. 호조참의 대연등을 지내고 강원도관찰사, 충청도관찰사 풍해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이종선의 환로는 관직에 제수되었다가 폐출당하기도 하고, 하옥당하기도 하는 등 출처(出處)를 되풀이하였다. 개성유후사유후로 승진되었고 1438년 증추원사가 되었다. 부친상을 당하여 3년을 이묘(廬墓)살이하여 효자로 일컬어졌으며 뒤에 나라에서 효자비를 세웠다.

3. 중영공원 한산이씨 묘역내의 연못들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한산이씨 묘역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태종때에 활약한 이종선의 셋째아들인 이계전의 후손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계전(李季甸, 1404-1459 대종4-세조5)은 1427년(세종9)에 친시(親試) 문과(文科)에 을과로 급제하여 집현전학사가 되고 1436년에 왕명으로 김문 등과 <강목통감훈의>를 편찬하였다. 1445년 집현전 직제학으로 있을 때 세자(문종)가 사창(社倉)과 의창(義倉) 등의 현황에 대하여 문자, 사창·의창이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괴롭혔다. 또 저화의 사용에 반대하고 당시 시행중이던 달협촌설법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1452년(문종2년)부터는 <세종실록>의 편찬에 착수하였고, 이해에 이조참판이 되었다. 이후 병조참판, 병조판서를 역임하고 1455년(세조원년)성균관대사성이 되었다. 목은 이색의 손

자로서 춘색없는 학문과 성품을 이루었다. 권근의 외손이다.

그러면 분당구 중앙공원 안에 있는 묘의 주인공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1) 이장율(李長潤, 1455~1528)

자는 수연(壽宴), 대사성 우(塲)의 아들이다. 성종20년에 공신의 적장자로서 서용되었다. 광흥창 주부(廣興倉主簿)로 옮겼다가 섬종 23년에는 니산(尼山)현감에 제대되었고, 봉화(奉化) 현감(縣監)을 지냈다. 비문은 통훈대부행봉화현감이라 되어있으며 이조판서에 증직되고 한원군(韓原君)에 봉해졌다. 공은 천성이 너그럽고 어질며 겸손하고 후덕해서 평생에 말을 빨리하거나 노여워하는 빛을 내는 일이 없었고, 백성을 다스리는데 불쌍히 여기는 일에 힘썼다. 일찍이 말하기를 '대체로 관리가 편자는 그 마랫사람이 죄가 있을 때 그대로 두고 생각하면 내 노여움이 풀리는 것이니 감자기 사람을 살하게 하는 조짐이 없게 해야 한다' 하니 사람들이 적언(格言)이라고 했다. 부인은 숙인 고령박씨로 박인효의 딸이다. 아들 4명이니 장자는 한성군 질(秩)과 현령을 지낸 치(醴), 현감을 지낸 은(穎), 부호군 경(程)이 있다. 손자 지함(之菡)은 세상에서 토정선생이라 일컬었고 증손으로 영의정 산해(山海)요 이조판서 산보(山甫) 등이 있다.

(2) 이질(李秩, 1473~1560)

자는 자서(子序), 진사시에 합격하여 셀원이 된 후 관직에 나아갔다. 읍직으로 부사를 역임하였는바, 문화·상주·울진·양천·삭령·덕천·장단 등 7개 군수를 역임하였다. 섬종 8년에 통정대부회천군수가 되었다. 중종23년에는 경상도 판관이 되다, 80세가 넘어서는 수직(壽職)을 받았다.

성품이 효성스러워서 매일 조상의 제사에 축문 쓰기를 '자손이 빙한해서 제사를 계속하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원컨대 목우(默祐)를 주시어 자손들로 하여금 영광하게 해주시옵소서'

라 하였다. 선조(先祖)를 독실하게 모시고 후손들에 대해서는 온갖 절성을 아끼지 않았다. 80세가 넘었음에도 뜻과 지혜가 명민하였으며 철력도 건강하였다. 게다가 앉아 있음 때도 벽에 기대는 일이 없고, 아무리 더위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글읽기를 좋아하였다. 몸소 제사를 자내고 성묘함에 있어서 더욱 꼼꼼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公事)를 받아들여 피하는 일이 없었다. 일찍이 질었을 때 '모든 공회(公會)에서 나는 감히 뒤처질 수 없다' 하여 한때 이인(異人)이라 칭하여진 바도 있었다. 한성군으로 추증되었다.

(3) 이지속(李之蔚, 1525~1561)

자는 대유(大有), 이장율의 손자이며 한성군 이질의 아들이다. 자료가 멀실되어 자세하

지 않으나 음보로 중요서령을 지냈다. 1561년(명종16) 아들인 의간공 증(增)이 현답함에 따라 순충보조공신정헌대부 이조판서 한평군에 추증되었다. 이후 한산이씨 한평군파를 이루게 된다.

(4) 李增(1525-1600)

자는 가겸(可謙), 호는 북애(北崖), 북애거사로 더욱 유명한 선조때의 문신이다. 이지숙의 아들, 평종4(1549) 사마시에 합격, 명종15년(1560) 별시문과에 별과로 급제하여 승문원 정자에 이어 다시 흥문관정자가 되었다. 1573년 이후 이조정랑을 거쳐 사인, 집의, 직제학, 승지 그리고 통정대부에 이르렀다. 내직으로는 호 병 향 3조의 참의, 판결사, 도승지 를 지냈고, 외직으로는 황해 충청 전라 경상 4도의 관찰사가 되었다. 1568년(선조1) 원첩 사증사관이 되었고, 1580년 예조참판으로 성철사가 되어 명에 다녀왔다. 1585년 가선대부 이후 가의대부로 승진하였고, 한성과우윤, 부제학, 대사현, 둘지의금부사를 지냈다. 선조 22년(1589) 대사간으로 있을 적에 정여립의 모반사건을 다스린 공으로 평난공신3등에 책 훈되고 아천군(鵠川君)에 봉해졌다. 부제학을 거쳐 형조 예조 공조관서를 역임, 의정부의 좌우참찬에 이르렀다. 1593년 채구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예조판서로 현장(憲章)과 예의(禮儀)가 뛰어났다. 임진왜란 6.7년 전 조현, 흥성면, 이준면 등과 함께 왜적을 경계해서 후환에 대비하라고 하였다. 사후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의간(懿簡)이다.

북애거사는 오늘 학술회의의 주인공이므로 이 자리에서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겠다.

(5) 이경류(李慶蘆, 1564-1592)

자는 창원(長源), 호는 반금(伴琴). 이중의 4제아들. 사적 이봉원의 외손이며 칠지중추부사 조린의 사위이다.

선조24년(1591) 진사가 되고 이해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전적, 예조과랑을 역임하였다. 임진왜란 때 병조과랑으로서 조방장(助防將) 변기(邊璣)의 종사관으로 출전하여 상주싸움에서 불전끝에 전사하였다. 이 때 이경류 윤설(尹選) 박지(朴篪)는 종사관으로서 칙령 전투에 참가하지 않는 책임인데도 전투에 참여하여 목숨을 잃었다.

이경류는 전지에 다다라서 관복과 이불을 아전에게 끌여 보내고 부인에게는 서찰을 주어 이르기를 '사태가 이미 급하게 되었으니 나의 목숨은 하늘에 떠어있소. 다만 양친을 편안하게 만들고 아이들을 잘 보호하기만 바랄뿐이오'라고 하였다. 시신을 찾지 못하여 묘소는 관복과 이불로 둘 조성되어 있다.

1792년(정조 16) 상주유학 맹진태 등이 살소하여 읍설, 이경류, 박지 등이 예의 상주침입에 순절하였으니 당시 그들이 죽은 상주의 증연(顯淵)을 학사암(學士巖)이라 하고, 이

를 기리기 위하여 중연 옆에 원우를 세워 세 충신을 제향할 것을 진의하였다. 이에 이곳에 제단을 세워 충신의사단이라 이름하고 비를 세워 기념하게 하였다. 조정에서는 충신지문이관 징문(旌門)이 내려지고 흥문관부제학에 추증되었다.

이경류 묘역 아래에는 그가 타던 말의 무덤이 있다. 이경류가 상주 전투에서 전사하였을 때, 고향길에서는 모르고 있었다. 어느 날 이경류의 말이 주인의 죄를 들키고 유포 유서를 입에 물고 집으로 돌아와서야 이경류가 전사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은 상주에서 수내동까지 500리길을 달려와 주인의 소식을 전한 뒤 3일 동안 아무 것도 먹지 않고 울기만 하다가 죽고 말았다 한다.

(6) 이정룡(李廷龍, 1627-1689)

자는 꿈향(夢鄉). 예조판서 이중의 증손. 병조좌랑 이경류의 손자. 3세째 부친상을 당하여 집상하지 못함을 평생 한스러워 하였고, 편모를 모시는데 있어서는 효성을 다하여 청관제 이단상의 칭송을 들었다. 사환(仕宦)에는 뜻을 두지 않아 읍보(蔭補)로 좌랑, 후를 함봉에 임용되었으나 미내 사임하고 항리로 돌아갔다. 후에 다시 목릉함봉, 장흥고봉사를 역임하고 군자주부에 올랐다. 외직으로는 문화현령, 길계군수 등을 거쳤는데 문화현에서 는 치민(治民)을 잘 하여 백성들이 그 공을 칭송하였다. 또 사복시관관직을 지내고 그간 군수를 역임하였으며 휘동참봉을 제수하였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아들 이태이 현달하여 가선대부처조활관걸동지의급부사 오위도총부부총관 행봉훈대부김제군수전관별마동침질제사를 증직 받았다.

(7) 이집(李蓀, 1670-1727)은 이색의 11대손이으로 호는 한주(韓州)다. 부는 이조참판에 증직된 잡통이며 모는 제주(濟州)양씨(梁氏)로 응교를 지낸 만용의 딸이다. 1699년(숙종25년)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1703년 음직으로 목릉침랑(樞院議郎)에 제수되었다. 1725년(영조1) 증평문과에 올과로 급제하였으며 당쟁의 화종에서 청부목사 한성부윤을 역임한뒤 이를 통해 승정원승지에 제수되었다. 그해 5월 황해도관찰사에 전임되어 민생의 구제에 부단한 노력을 쏟다가 1727년 임지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저서로는 [한주집] 영본 7책이 있다.

(8) 이택(李澤, 1661-1720)

자는 광중(光仲), 호는 운곡(雲谷). 1684년 사마시. 1699년(숙종20) 식년문과. 1705년(숙종31) 장령을 거쳐 부수관, 교리, 현납, 응교 등을 거쳐 1716년(숙종42) 승지에 오르고 대사성을 받았다. 이후 경기관찰사, 평안관찰사를 역임하고 한성부좌윤, 이조참판에 이르렀다.

(9) 이병태(李秉泰, 1688-1733)

자는 유안(幼安), 호는 산(山), 친사 협(俌)의 아들이다. 1715년(숙종41) 친사시에 합격하고, 사용참봉, 평시서봉사 내자시직장을 역임하였다. 1723년 증광문파에 을과로 급제하고 승문원권지부정자를 받고 누전 끝에 흥문관부제학을 거쳐 지제교 겸 경연찰찬판 수찬에 올랐다. 1727년(영조3년) 예조참의로 있을 때 할아버지가 임진왜란으로 죽었기에 의당 참의로서 하여야 할 회서회답(僂書回答)의 예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직하였다. 그 뒤 다시 호조참의가 되어 노론계열로 탕평론을 배척한 사건으로 파직되었다. 1730년 경상도 관찰사에 보직되었으나 거절하고 부임하지 않았고 이듬해 또 우부승지에 임명되었으나 역시 거절하여 탕평책을 반대하는 뜻이라고 하여 왕의 노여움을 사서 합천군수로 좌천되었다. 합천군수에 재직시 한발(厚魃)로 식량난에 허덕이는 많은 기민(饑民)을 구하기도 하였다. 합천에 부임하여 선정을 베풀어 합천의 군민들이 생사당을 세워 춘추로 제향하였다. 관직에 있을 때나 관직을 떠나서나 항상 강직 결백하고 검소한 생활을 신조로 삼아 청백리에 녹선되었고 이조판서 흥문관제학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문청(文清)이다.

4. 현신이씨 가계의 성격

중앙공원의 묘역에 안장되어 있는 인물은 이외에도 어모장군충좌위부호군을 지냈고, 이 장군의 4세아들인 이정(李程, 1480-1531), 이정의 아들로서 충의위부사직을 지낸 이지환(李之煥), 이지숙의 아들이자 이중의 형인 이원(李垣, 종친부전부, 1522-1550), 이중의 딸 아들 李慶渙(1550-1585), 이중의 손자 이학(李樞, 현중현감 대구진관병마첨결제도위, 1583-1658), 이오(李澳, 영암군수, 무평부사, 1659-1720), 이병태의 아버지 이협(李俌, 1664-1698), 이한, 이병향, 이현중, 이병건(1696-1742) (자는 이강(汝剛)), 이길의 아들, 1719년(숙종45) 사마시에 급제, 호조정랑) 이산중(1717-1775)-자는 子靜, 관은 군자감정, 이덕중 등이 있다.

실상 중앙공원의 묘역에 국한하지 않고, 한산 이씨 가계에서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매우 많다. 대표적인 인물로 단종을 위하여 사절(死節)한 사육신의 한사람 이개(李培, 1417-1456), 선조때 문신인 이산보(李山甫, 1539-1594), 명의경 이산해(李山海, 1539-1609), 그의 아들 이경전(李慶全, 1567-1644), 임진왜란에 전사한 이경류의 형 이경함(李慶虧 1553-1627), <토정비결(土亭秘訣)>로 더욱 잘 알려져 있는 이지함(李之謨, 1517-1578), 그리고 영조대의 대유학자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 1711-1781) 등 일일이 손꼽기 어려울 정도이다. 다만 이 자리는 성남시의 인물인 이중을 조명하면서 그와 함께

그의 가계를 살펴는 자리이므로 제한된 인물만 살펴보았다.

일일이 통계적인 수치로서 표현할 수는 없으나, 한산이씨 인물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대체로 하나의 유형을 유추할 수 있다. 과거를 통해 벼슬길에 나가는 것이 조선시대 양반의 기본적인 질이었으나, 이제까지 살펴 본 한산이씨 관료들의 환로(宦路)를 보면 연관직이나 문한직에 포진한 경우가 많다. 또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직언(直言)을 하고, 백성을 구휼하는데 앞장서며, 의리를 앞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가정 이과과 목은 이색의 학문에 추구하는 관료로서의 전통이 후손들의 관직생활에도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유학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으면서 정도를 지켜나가는 관료의 모습이다. 고려 말 이후 명족 가문을 유지하고는 있었지만, 관직에 있어서 영의정 등 최고 관직이나, 짐정자의 자리에 앉은 경우는 드문 편이다. 즉 왕실과의 혼인이나 문벌가문으로서 권세를 잠기보다는 대대로 과거에 꾸준히 급제하면서 학문을 주로 하는 양반가문의 하나로서의 위상을 지켜왔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는 논증을 거친 결론이 아니므로 좀더 시간을 두고 살고하여야 할 문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중암공원 한산이씨 묘역내의 한산이 43세계

* 구서록(舊書錄)에 보고소재(取材)

7세	미 세-권 씨							
8세	종덕-- 종학-- 종현(양경공)							
9세	제주-제 빈-제 건(문열공)							
10세	우							
11세	장율(봉화현감, 한원군)							
			*봉화공파					
12세	칠(한성군, 제 무송한씨)	-----				평(여모평군 충좌위무호군)		
13세	제 속(한평군, 종묘시령)*한평군파					제 황(충의위부사직)		
14세	천(중진부전부)	-----	중(아천군, 복예)					
15세	정부(정지중추부사)	정 풍--경한--경심--경록(진사, 문과, 병조파랑)						
16세	한	한	제					
17세	정 치--정 규		정 기-----	정 풍				
18세	한		오-----	택-----	협-----	집		
19세	병 근--병 동			병 경	병 대--	병 향	병 전	
20세			단 풍	원 풍		산 풍		

『한산이씨 한평군파세보 권2』 (2000. 국한촌용) 참조

이정복 (경원대학교)

高惠珍 교수께서는 이미 『稼亭 李穀에 대하여』 1988, 『李穡 문학연구 -- 東文選 소재전을 중심으로』 1989, 『稼亭 李穡과 元 士大夫파의 交遊』 1990, 『高麗士大夫와 元 制科』 1991, 『14세기 高麗士大夫의 性理學수용』 (박사 학위논문) 1992, 『牧隱 李穡의 韓承과 交遊關係』 1996, 『가정 이곡선생의 원 사대부파의 교류와 사상통합』 1998, 『가정 이곡과 목은 이색의 외교 활동』 2000, 『고려 후기 사대부와 성리학 수용』 2001 등 많은 저서를 출판하고,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연구관으로 복직하고 있는 한산이문의 은인이며 학문적으로 많은 공헌을 한 학자이다.

더욱이 이번 논문에서 족히 읽을 수 있듯이 한산이문의 가계와 그 학문의 맥을 명석하게 짚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학문의 연원을 가장 이곡과 목은 이색에 두고, 가계의 학문적 성격(제4장)을 역사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두고 싶다.

그 학문의 연원을 "연관작이나 문학작에 포진한 경우가 많고 또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직언을 하고 백성을 구휼하는데 앞장서며 죄리를 앞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가장 이곡과 목은 이색의 학문에 추구하는 관료로서의 전통이 후손들의 관직 생활에도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한 가지 토론자로서 질의를 제시하자면 고 교수는 "--가정 이곡과 목은 이색의 학문에 추구하는 관료로서의 전통이" 바로 "학문을 주로 하는 양반가문의 하나로서의 위상을 지켜왔다고 하겠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논증을 거친 철론이 아닌"것이라는 단서를 고 교수는 달고 있으나 분명히 회의적으로 단언할 수 없는 논지라고 중언하면서도 논자의 소견으로는 한산이문의 학통의 특징과 경향은 분명히 가정, 목은에게로 소급하고 있다고 보아지며, 이분들이 남기신 문집과 유고를 살피면 文淵公 李季甸, 文惠公 李孟昀, 白玉軒 李坦, 隱崖 李任, 省菴公 李之蕃, 開溪 李山海 그리고 土亭 李之函, 嘉谷 李山甫, 石樓 李慶全, 松崖 李旼, 是是齋 李厚, 後谷 李久, 특히 영조 시대의 대 학자 大山 李象靖, 小山 李光靖, 그리고 근래에 이르러 孝靖公 李思觀, 文衡公 李景在, 月南 李商在, 그리고 修堂 李南莊 여러분들의 사상과 그 분들의 삶의 철학은 분명히 본 논제로 삼고 있는 "가정 이곡, 목은 이색과 한산이씨의 가계"의 연구에 필수적인 과제가 되리라고 확신하고 싶다.

끝으로 고혜령 교수의 한산이문의 학문과 특히 가정 이곡의 연구와 그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전심으로 경의의 심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히 토론자의 말로 가름하고자 한다.

조 병로 (경기대)

성남문화원 2001년도 학술회에서 [稼亭 李穀·牧隱 李穡과 韓山李氏의 家系-중앙공원내 한산이씨 묘역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신 고혜령 박사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발표자께서는 정소 고려말 성리학의 수용과 사대부에 대해서 많은 연구 업적을 축적하였으며, 최근에는 〈고려후기 士大夫와 性理學受容〉(일조각, 2001)이라는 저서를 학제에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 분야에 많은 학술적 기여를 해 온 발표자를 초빙하여 지역의 인물연구를 객관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내용은 수내동 중앙공원내에 있는 한산이씨 묘역을 중심으로 李瞻家系의 선조로부터 그 후예들을 분석하여 특히 선조 孝季甸의 후예들이 이 지역에 世居하여 명문가계를 형성해 나가는 역사적 계보를 추적하였다. 그리하여 고려말 성리학 수용과 유학망전에 크게 기여한 李穀과 李穡의 정치적 업적과 사상의 일면을 소개하고 한산이씨 가문의 역사적 성격을 규명하려고 하였습니다.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이 분야에 문외한인 제 자신이 토론의 요점을 잘 끌어낼수 있을지 의문이나 몇 가지 질의를 함으로써 부여된 역할을 다할까 합니다.

1. 고려말 원을 통해 받아들여진 성리학에 대한 인식을 염두해 둔다고 하더라도 章王 擴夷의 春秋大義論의 명문본에 입각한다면 中華主義적 排外思想의 입장에서 특히 이 곡과 이색의 원에 대한 인식은 어떻겠다고 봅니까? 물론 원에서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도 제수받을 뿐만 아니라 원의 학자들과 교유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종래 한족중심주의에서 [夷]로서의 반원감정이나 정책이 고려될 만도 한 때 당시 정치적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고려왕조의 원간섭기 특수성 때문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2. 鄭王시기 나옹이나 계자 환암파의 친분관계 등으로 인하여 이색의 경우 다소 불교에 대해 포용적임을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인간적 친교인지 아니면 불교 교리에서의 선종적 요소와 성리학의 철학적 요소의 공통성 때문인지요. 유교철학적 측면에서 좀 더 설명이 가능하다면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당시 원간섭기 시대상황과 전시과제제의 점진적 풍괴에 따른 농장 즉, 대도지사유화 전전과정에서 이곡과 이색은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지향을 하고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 고려초기의 전시과제제와 농민중심제로의 개혁적 요소가 있었는지

아니면 차츰 권문세족화 속에서 문벌귀족적 대토지사유화를 용인하는 입장에 서서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그러한 역사적 상황에서 성리학을 수용한 철학적 배경과 사회개혁적 요소는 발표하신 것 이외에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성리학을 수용한 사대부들이 이후에 反권문세가적, 反대토지사유화의 입장에서 새 사회건설을 위해 노력한 것과 예비시켜 볼 필요는 없을까요? 물론 발표자께서는 한산이 씨가제의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 '왕실과의 혼인이나 문벌가문으로서의 권세를 잡기보다는 과거를 통해 학문하는 양만가문으로서의 위상을 지켜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신진사대부류의 반열에 넣을 수 있다고 보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분히 권문세족의 정책에 反하는 개혁지향적 요소는 없었을까요? 한산이씨들의 宿路가 언관직이나 문관직에 배출된 면이 많다면 더욱 그럴 듯 한데 말입니다.

4. 수내동 중안공원묘역에 모셔진 분들의 심충적인 분석-각 문집이나 정치적 업적이나, 정책들을 둘러싼 불당적 측면에 대해서도 좀더 분석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李暉의 奠구침입사 역할, 이경류의 살주천후, 토정 이지함의 사상 등이 앞으로 전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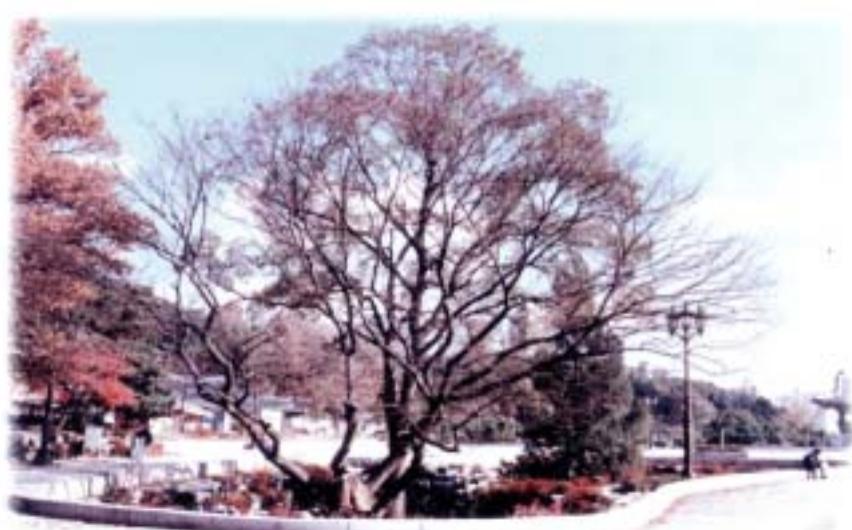




아천군 묘소



'충모문' 주위



몇 연꽃·느티나무



이천군 비갈



지난 날의 '3세 유사비'



수내정 모습



호수옆 둘마각



현 3세 유허비각



고가(古家) 주위



현 중앙공원 전경



이방규씨 집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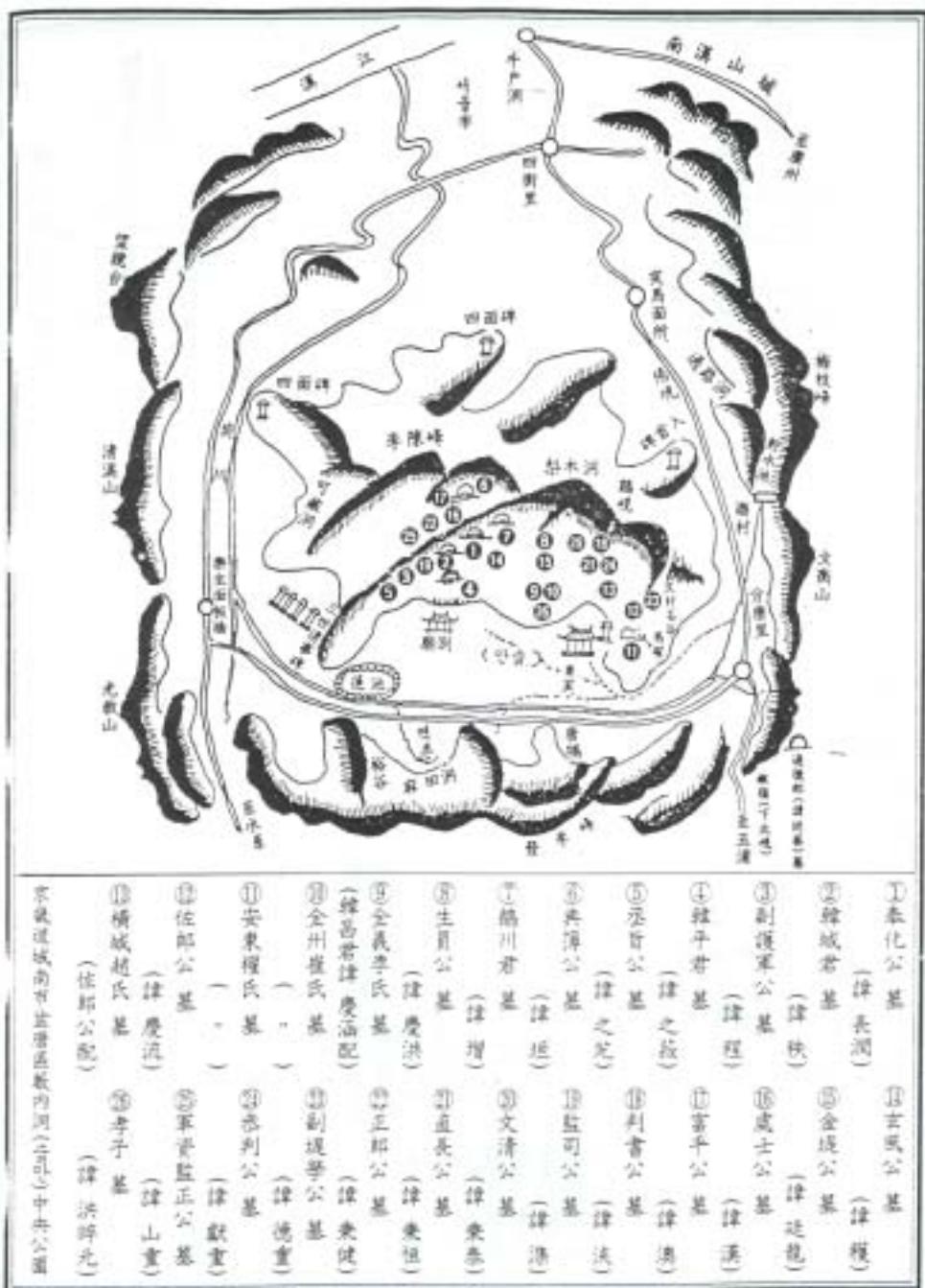
옛 수내동 한산이씨 묘역 전경(이진봉)



옛 숨안 마을 전경

韓山李氏韓平君派世譜

墳山圖



本圖選用南市廿四區數內圖(24區)中央公園

韓山李氏韓平君派世系圖

一 姚 二 姚 三 姚 四 姚 五 姚 六 姚 七 姚 八 姚 九 姚
始祖 孝元卿—仁幹—忠進—承莊—衍—桓—賢—達—華—省



韓山李氏韓平君譜世譜

● 아천군(鵝川君) 시고(詩稿) 발문(跋文)

가정·목은 두 선생의 문장은 대개 동국의 후예로 많은 문사(文士)들이 그분들에게 연유하였다. 상서(尙書) 아천 군 북애(北崖) 이종증(卿)은 목은의 7세손으로 충정(忠慶) 원년에 황제의 사신이 왔을 때 원접사(遠接使)가 되어 일을 보았는데, 문장에 능한 선비가 아니면 불가능한 노릇이다. 하물며 당시 문사들이 구름과 같은 매 공에게 원접사 가 맡겨졌다는 것은 공의 명망이 어떠했던가를 알 수 있다. 공이 차운 시편(詩篇)은 임진(壬辰) 병화(兵火)에 없어지고 그 아들 통제사(統制使) 경심(慶深)이 소장자를 만나서 어덟 수를 알고, 또 남창(南窓) 김현성(金玄成)이 필사한 것을 빌린 저술인 데 남창은 필법(筆法)이 절묘하였다. 남창은 공이 대종백(大宗伯) 禮曹判書(禮曹判書)으로 있을 때 그 아래 속해 있던 관료이어서 남창은 자리으로 시를 필사할 새 7언을 한 수를 견들이며 주모의 뜻을 표하기도 하여 또한 구묘(救療)임을 나타내었다. 그 후 四十五年(1506)에 공의 손자인 수부 낭중(水部郎中) 전과 증손인 대사성(大司成) 정기(廷璽)가 산일원(三一園) 공의 시 二十九首를 염어 배현(白軒) 이상국(李相國)에게 부탁하여 서문을 써 받았다. 또 부(賦)와 윤시(律詩)는 남창이 써 주었다. 수부 낭중 전은 한 권의 시집을 만들어 나에게 보아는데, 내가 읽어보니 윤격(律格)이 맑고도 헌 면에서 달아하고 응전하여 감칠 맛이 넘쳐 가정·목은의 집안 명성이 크게 벌쳐진 것이다. 수부(水部)는 장차 독자에 새겨 인쇄에 부친 세 공의 손서(孫壇)인 의성(義城)의 암사군(安使君) 유흥왕(應昌)이 봉급을 떼어 서로 도왔다. 수무는 나에게 한 말을 청하므로 내 기꺼이 절도사와 그 밖에 제군(諸君)이 선조를 위하는 일에 문채(文彩)를 빛내고자 한다. 내 일찍 들으니 공은 맑은 덕과 아방(雅望)이 높았는데, 나는 남창(南窓)과 배현(白軒) 다음에 이름을 유풍하게 되어 마침내 발문(跋文)을 쓰는 것이다. 또 단율(短律) 한 수를 견들이나니 「목은은 천조(前朝)의 노인인 대애옹(厓翁)은 7대의 후손일세. 하늘과 땅은 물라보게 변했는데 집안의 풍도는 아직도 얼른하네. 여기 차운 시는 참으로 삼昧(三昧)이데 내 어찌 한 말씀 가짜하는고. 꽁손히 수부에게 고하노니 나의 이 글은 생각하지 마시라」하였다.

기해(己亥) 윤二월 초八字

온산(溫山) 정우경(鄭雨卿) 씀

清流三十餘人公行義文章足以精神廟朝潤色王猷而位不滿德用未克完益亦多為謙退所掩云
陽祭之文有曰
人稱國器世美家行聞者以為記實也子孫之蕃衍若是其盛並所謂積善之餘慶也歟謹摭其家狀而次此如右以請易
名之典

大匠輔國榮祿大夫領敎寧府事李景璇謹狀
太常議諡上三鑑曰純簡曰莊靖曰惟穆上以純簡批下溫柔賢善曰純正直無邪曰簡

辰冠深車駕西狩公進至高陽會公第四子以巡邊使從軍戰沒於高州間計驚病未克扈駕秋始間行趁海上行朝除
大司憲公以病未從衛辭遞癸巳夏宣陵有改葬之禮公爲提調先入京城周旋之際誠懷兼盡仍判禮曹丙申以社稷提
調奉位版之海西丁酉判工曹自戊戌至己亥歷左右恭贊庚子年七十六十月感疾卒于正寢上爲之悼惜報朝贈有
加禮官吊祭文命有司禮葬蓋經亂後始行之也其終始禮遇共如此以功例贈議政府領議政鶴川府院君用明年二
月日葬于廣州突馬里從先塋也公性孝友德厚其事親也必備甘餚雖未釋褐不以家貧而有所缺其孺慕也終身不衰
遇降日益篤不許聞酌輒就伯氏與簿公相與悲愴節日屢甚非有病故未嘗不易愛敬伯氏老而愈至如得珍味必先供
伯氏不先不御弟妹仰之忘其衣食之憂遇國忌雖遠代輒食素不以喪替凡得朋舊計必不肉律已清簡致位御宰而其
儉約與布衣時同進退不拘奉公惟恪三爲祭酒而皆不拜蓋謙不欲當之也其爲宗伯也正當誥獎之餘章程蕩失短籍
散逸公私無所考究於是公講定宗式祭擇集亡者識者多之公仲子參判公嘗爲掌令時言路詆一故相中辨者輒斥之
咸卷舌莫敢言參判公以事關機密須黑家庭乃白諸公公方食達榮七著毅然論之以立朝事君之大義辭甚嚴正參判
公於是直隸是非以明之上意開悟士林頗有賴實公之力云自夫人慶州李氏視公贈封貞敬夫人司直夢邈之女府使
仁臣之孫持家以厲事尊章以禮遇親黨以仁訓子孫以義閑庭之間肅如也晚從諸子于郡縣務簡省費邑人皆稱其德
卒于妻子之邑金湯街壬子五月也年八十二以七月日祔葬于公墓左有丈夫子五慶洪成均生員娶士人安濂女慶涵
文科兵曹參判娶察訪權悟女慶深武科統制使娶縣令李潤女慶流文科兵曹佐郎娶金知趙遠女慶漢槐山郡守娶節
度使徐得蓮女女長適漢城府判官柳訥次適松禾縣監李繼側室子慶河典醫監泰奉娶訓鍊奉事李世傑女生員一
男稷縣監三女適生員朴由孚進士申大業生員李時桐縣監倅得曾縣令安應昌士人辛柔進士趙文馨柳判官三男景鑽判
側室一子和萬戶佐郎一男稱文科通政府使二女適別坐權僕通政牧使金孝誠郡守三男律士人禮文科正郎即後於
參判者也棋士人六女適進士申大業生員李時桐縣監倅得曾縣令安應昌士人辛柔進士趙文馨柳判官三男景鑽判
官景鑽文科守觀察使景紹府使李縣監二男孝伯通政孝叔士人一女適嘉善府使李宗一穉一子以禮子潤而後稱二
男廷衡文科史曹正郎廷龍士人穉三男時雨棠文商雨進士潤而棠文禮一男瑞雨棠文模一男行雨棠文內外曾玄孫

대상(太常)이 시호(諡號)를 의논하여 시호 셋을 올렸으니, 의간(懿簡)·장정(章正)·희목(僖穆)이다. 이에 임금은 의간(懿簡)으로 승락하시니, 온유(溫柔)하고 어질고 착한 것이 의(懿)요, 정직(正直)하고 간사하지 않은 것이 간(簡)이다.

鵠川君諡狀

贈大匡輔國榮祿大夫議政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鵠川府院君行推忠奮義平難功臣正憲大夫禮曹判書兼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鵠川君李公諱狀

出自白軒集

公諱增字可謙自號北崖韓山之季素稱大族上世有曰自成井邑監務贈秘書監丞達封都會議贊成事八代祖曰毅都金議贊成事號稼亭之子曰轎韓山伯號牧隱是生棟善知中樞贈領議政是生季勻韓城府院君贈領議政高祖諱燭大司成贈參判曾祖諱長潤奉化縣監贈吏曹判書祖諱秩韓城君考諱之毅宗廟署令贈吏曹判書韓平君三代追榮以公策勲也妣善山金氏贈貞夫人進士弱臣之女公以嘉靖乙酉生幼少已嶷然有成器度文藝爲傍流所推中己酉司馬擇庚申文科分錄槐院辛酉秋遷外郎蘆基終三年甲子盛玉堂爲正字忤權奸出爲北道評事清議惜之丙寅遷歸戶兵禮三曹佐郎司諫院下言刑曹正郎司憲府持平弘文館修撰庚辰以遠接使從事官迎送詔行歸佐議幕己巳爲史曹佐郎辛未轉弘文館校理兵曹正郎司諫院獻納禮曹正郎壬申改吏曹正郎癸酉由吏曹一日屢遷檢詳舍人執義典翰直提學陞同副承旨一世祭之甲戌以左副承旨坐言事罷尋致拜兵曹尙知成均館大司成乙亥觀察海西丙子丁內難蘆基致殿如前喪以不得終養爲終身之痛服已除戶曹參議左承旨兵曹參議庚辰賀聖節如京師選授刑曹參議辛巳按湖南壬午入爲判決事都承旨凡拜內職皆帶知製敎是年又出按湖西癸未特除嶺南伯病不赴授大司成都承旨乙酉加嘉善階爲漢城右尹轉左尹達刑禮二曹參判丙戌兼同知義禁府事己丑鄭汝立之獄以諫長參判議獄平反務辨玉石庚寅拜副提學大司憲史曹參判賜平難三等勳號封鵠川君辛卯以禮曹參判因徵事罷未幾時授刑曹判書壬

아들이 없어서 아우의 아들 전을 아들로 삼았다. 통제사(統制使)의 「녀(女)」는 문과(文科) 통정(通政) 부사(府使) 이 치정(李志定)에게 시집갔다. 후실(後室)의 「남(男)」은 화(和)이니 만호(萬戶)이다. 좌랑(佐郎)의 「남(男)」은 제이 니·문과(文科)에 뽑혀 통정부사(通政府使)이다. 「녀(女)」가 있으니, 만은 벌좌(別坐) 권영에게, 다음은 통정목사(通政牧使) 김효성(金孝誠)에게 시집갔다. 군수(郡守)는 「남(男)」이 있으니, 업은 사인(士人)이요, 전은 문과(文科)에 뽑혀 정랑(正郎)에 올랐는데 곧 참판(參判)에게 출제(出系)한 자요, 환(換)은 사인(士人)이다. 여녀(女)가 있으니, 만은 진사(進士) 신대업(申大業)에게, 다음은 생원(生員) 미시령(季時領)에게, 다음은 현감(縣廳) 유득증(愈得曾)에게, 다음은 현령(縣廳) 안동창(安應昌)에게, 다음은 사인(士人) 신유에게, 다음은 진사(進士) 조문형(趙文馨)에게 시집갔다.

유판관(柳判官)은 「남(男)」이 있으니, 경찬(景纘)은 판관(判官)이요, 경진(景縕)은 문과(文科)로 판관사(觀察使) 요·경소(景紹)는 부사(府使)이다. 이현감(李縣廳)은 「男」이 있으니, 효백(孝伯)은 통정(通政)이요, 효숙(孝叔)은 사인(士人)이다. 「녀(女)」가 있으니, 가선부사(嘉善府使) 이종일(李宗一)에게 시집갔다.
화(種)의 「남(男)」은 엄의 아들 윤우(潤雨)를 임양(入養)했다. 제의 「남(男)」이 있으니, 정기(廷璽)는 문과(文科)로 이조정랑(吏曹正郎)이요, 정룡(廷龍)은 사인(士人)이다. 엄의 「남(男)」이 있으니, 시우(時雨)는 문학(文學)을 일삼았고, 상우(商雨)는 친사(進士)요, 윤우(潤雨)는 문학을 일삼았다. 제의 「남(男)」은 서우(瑞雨)이니 문학을 일삼았다. 환(換)의 「남(男)」은 해우(行雨)이니 문학을 일삼았다. 내외 총현손(內外曾玄孫)이 모두 三백二十여 명이다.
공은 행의(行誼)와 문장(文章)은 즉히 조정을 새롭게 하고 임금의 계획을 바르게 할 수 있었는데, 지위는 력에 차지 못했고, 조정에 쓰여서도 제주를 다쓰지 못했으니, 이는 데가 너무 지나치게 절손한 탓이라고 한다.
사제(賜祭) 한 글에 말하기를『사람들은 국가의 그릇이라 일컬고, 세상에서는 그 집에서 하는 행동을 아름답게 여겼다』하니, 듣는 자들이 이것은 실상을 기록한 것이라 하였다.

자손의 번식이 어찌만 장하니 어찌 이른바 적선(積善)의 어정(餘慶)이라 아니하랴? 삼가 그 가장(家狀)에서 주며서 위와 같이 써서 시호(謚號)의 은전(恩典)을 청하는 바이다.

대광보국승록대부영돈령부사(大匡輔國崇祿大夫領敦寧府使) 李景奭 父

버리고 경적(經籍)도 모두 없어져서 공사(公私)를 도무지 살고 할 곳이 없었다. 이에 공은 제사지내는 예식(禮式)을 강정(講定)하고, 없어진 책들을 찾아 모으니 식자(識者)들이 가득하게 여겼다.

중자(仲子) 참판공(參判公)이 일찌기 장령(掌令)이 되었을 때, 일로(言路)가 막혀서 서로 신변하는 자가 있으면 문득 배척을 막으니, 모두가 혀를 오므리고 감히 말하지 못했다. 참판공이 이런 일은 한정에 빠지는 것 같은 일이므로 드디어 집에서 어려 공(公)들의 일을 어주었다. 이 때 공은 바야흐로 식사(食事)를 하다가 수저를 던지고 화면(毅然)히 조정에서 서서 임금 섬기는 대의(大義)를 타이르는데 말이 육시 엄정(嚴正)했다. 참판공은 이에 바로 시비(是非)를 가려 말해서 밝히니, 임금의 뜻이 열리고 깨달아 사림(士林)들이 자못 힘입은 바가 있었으니, 이는 실로 공의 힘이었다고 하겠다.

부인(夫人)은 정부인(貞夫人) 경주 이씨(慶州李氏)로서 공의 종직(贈職)에 따라 정경부인(貞敬夫人)에 봉해졌으니, 사직(司直) 동원의 따님이요, 부사(府使) 인신(仁臣)의 손녀이다. 집살림을 범도 있게 하고, 어른 섬기기를 예법대로 하며, 친척을 대우하기를 어질게 하고, 자손 가르치기를 의리로 하니, 규정(閨庭) 사이가 얼룩 않았다. 늙게는 여러 아들을 올라서 군현(郡縣)으로 나갔었는데, 간악한 것을 훑쓰고 비용을 줄이도록 하니, 고을 사람들이 모두 그 덕을 칭송하였다. 계자(季子)가 가 있던 고율인(高溝)의 관아(官衙)에서 줄(卒)하니, 임자(壬子) 五월로서 수(壽)가 八十一(八十一)되었다. 七월 일에 공(公)의 묘(墓) 왼쪽에 합관하였다. 五남(男)이 있으니 경홍(慶洪)은 성균 생원(成均生員)으로서 사인(士人) 안렴(安濂)의 따님에게 장가를 들었다. 경함(慶衡)은 문과(文科)에 뽑혀 병조참판(兵曹參判)에 올랐으며, 쟁방(察訪) 진오(槿愚)의 따님에게 장가를 들었다. 경실(慶深)은 무과(武科)에 뽑혀 통제사(統制使)에 오르고, 현령(縣丞) 이운(季潤)의 따님에게 장가를 들었다. 경류(慶流)는 문과(文科)에 뽑혀 병조좌랑(兵曹佐郎)에 오르고, 첨자(僉知) 조린(趙潤)의 따님에게 장가를 들었다. 경황(慶滉)은 퍼산군수(槐山郡守)로서 절도사(節度使) 서특운(徐得運)의 따님에게 장가를 들었다. 「너(女)가 있으니, 맘은 한성부 판관(漢城府判官) 유인에게, 다음은 송화현감(松禾縣廳) 이계(李繼)에게 시집갔다. 죽신(側室)의 아들 경하(慶河)는 전의감(典醫監) 참봉(典醫監參奉)으로 훈련봉사(訓練奉事) 이세걸(李世傑)의 따님에게 장가를 갔다.

생원(生員)의 남(男)은 확(穢)이요, 딸(女)이 있으니, 딸은 생원(生員) 박유부(朴由孚)에게, 다음은 친사(進士) 송희득(宋希得)에게, 다음은 문과(文科) 우윤(右尹) 김수현(金守玄)에게 시집갔다. 참판(參判)은

事官)으로 상주(尙州)에서 전사(戰死)하여 이 소식을 듣자 놀라서 병이 생겨 임금의 행차를 따라 가지 못했다가 가을에 비로소 의주(義州)에 있는 행조(行朝)정계는 그동안 차관수(司)를 대체로 일컬어 부른다에 가서 대사헌(大司憲)을 제수 받았으나, 공은 병으로 파라 가지 못한 이유로 이를 사양하였다.

계사(癸巳) 여름에 선릉(顯陵)을 개장(改葬)하는 일이 있어, 공(公)은 제조(提調)가 되어 먼저 서울에 들어왔는데, 모든 것을 주선(周旋)하는데 정성과 삼가하는 것이 다같이 극찬했다. 이내 예조판서(禮曹判書)가 되고, 병신(丙申)에 사직제조(社稷提調)로서 위판(位版)을 모시고 황해도(黃海道)에 갔었고, 정유(丁酉)에 공조판서(工曹判書)가 되었다. 무술(戊戌)로부터 기해(己亥)에 이르기까지 좌우참찬(左右參贊)을 겸하고, 경자년(庚子年)十月에 76세로 병환으로 저취(正寢)에서 죽(卒)하니, 임금이 슬퍼하고 애석히 어거 조회(朝會)를 폐지하고 부의(陪儀)를 내렸다. 또 예관(禮官)을 시켜 조제문(弔祭文)을 보내고,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예장(禮葬)하게 했으니, 대개 난리를 겪은 뒤로는 처음 행하는 일이었다. 그 끝까지 예의로 대우하는 것이 모두 이와 같았다. 공(功)으로 해서 의정부 영의정 아천부원군(議政府領議政鷗川府院君)을 증직(贈職)하고, 이름해 「월일에 광주(廣州) 둘마리(突馬里)에 장사지냈으니, 선예(先覺)을 따른 것이다.

공은 성품이 효도하고 우애하며 러이 두터웠고, 그 부모를 섬기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맛있는 음식을 갖추었으며, 아직 벼슬하기 전에도 집이 가난하다고 해서 절(缺)하는 범이 없었다. 그 부모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몸을 마치도록 하지 않았고, 자기의 생일(生日)을 당하면,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여 술자리를 멀지 못하게 하고, 문득 그 백씨(伯氏) 천부공(典簿公)에게로 가서 서로 슬퍼하고 마음을 다했다. 절일(節日)이면 반드시 성묘(省墓)를 가고, 병이나 딴 변고가 없으면 몸소 가지 않는 배가 없었다. 백씨를 공경하는 마음이 높을 수록 더욱 치극하여, 만일 진미(珍味)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먼저 백씨께 올리고 자기가 먼저 먹지 않으니 아우와 누이들이 우러러 보았다. 평생 의식(衣食)의 근심을 앓아 버리고, 나라의 기일(忌日)을 당하면 아무리 원대(遠代)라도 문득 고기를 먹지 않고, 놀었다고 해서 그치지 않았다. 또 친구의 부음(鉢音)을 들으면 반드시 고기를 먹지 않았으니, 이렇게 물을 막고 간략한 것으로 다스렸다. 벼슬이 경재(卿宰)에 올랐지만 그 점소한 것이 포의(布衣)로 있을 때와 같았다. 진퇴(進退)에 구애하지 않고 봉공(奉公)하는 것을 오직 삼가했다. 세번 제주(祭酒)가 되었으나 모두 나가지 않았으니 대개 결혼하여 어여지로 하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그가 예조판서(禮曹判書)가 되었을 때, 난리를 겪은 나머지에 규칙을 모두 일어

병인(丙寅)에 돌아와서 호조(戶曹)·병조(兵曹)·의좌당(佐郎)·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형조 정당(刑曹正郎)·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홍문관 수찬(弘文館修撰)을 거쳐, 무진(戊辰)에 원적사 종사관(遠接使從事官)으로 충국 조사(詔使)들을 역송(迎送)하고 돌아와서 기막(畿幕: 京畿道의 일정한 관찰·도정관과 같은 관찰부)을 도왔다. 기사(己巳)에 이조 좌랑(吏曹佐郎)이 되고, 신미(辛未)에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병조 정랑(兵曹正郎)·사간원 현남(司諫院獻納)·에조 정랑(禮曹正郎)으로 올기고, 임신(壬申)에 이조 정랑(李朝正郎)으로 고치고, 계유(癸酉)에 어려면 옮겨 검상(檢詳)·사인(舍人)·집의(執義)·전한(典翰)·직제학(直提學) 등이 되었다가 동묘(同副承旨)로 승진되니, 한 세상이 모두 영화롭게 여겼다.

갑술(甲戌)에 좌부승지(左副承旨)로서 장사를 말한 것에 연좌되어 파직되었다가 얼마 안되어 병조 참의(兵曹參知)·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에 배하고, 율해(乙亥)에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가 되었다. 범자(丙子)에 어머님 상사를 당하여 어묘(廬墓)하고 매획(哀哭)하기를 먼저 상사와 같이 하면서, 끝내 봉양하지 못한 것을 중신(終身)의 아픔으로 여겼다. 복(庚午)이 끝나자 호조 참의(戶曹參議)·좌승지(左承旨)·병조 참의(兵曹參議)가 되었고, 경진(庚辰)에 성절(聖節)을 축하하기 위하여 종국 서울에 갔다가 돌아와서 형조 참의(刑曹參議)를 제수 받았다. 신사(辛巳)에 호남 관찰사(湖南觀察使)가 되었고, 임오(壬午)에 서울에 들어가서 판결사(判決事)·도승지(都承旨)가 되었으며, 모든 내직(內職)에 배했을 때마다 모두 치재교(知製敎)를 겸했었다.

이해에 또 나가서 호서 관찰사(湖西觀察使)가 되고, 재미(癸未)에 특별히 양남 관찰사(嶺南觀察使)를 제수했으나 병으로 부임하지 못하고, 대사성(大司成)·도승지(都承旨)를 제수 받았다. 유후(乙酉)에 가선(嘉善)으로 승진하여 한성 우윤(漢城右尹)을 거쳐 좌윤(左尹)으로 올기고, 다시 형조(刑曹)·에조(禮曹)의 참판(參判)이 되었다. 병술(丙戌)에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를 겸했고, 기축(己丑) 정어립(鄭汝立)의 육사(獄事)에 국문하는 데에 참여하여 옥석(玉石)을 가리기에 힘썼다.

경인(庚寅)에 부제학(副提學)·대사헌(大司憲)·이조참판(吏曹參判)에 배하고, 경난(平難)의 二등 훈호(勳號)를 하사받아 아천군(鷗川君)에 봉해졌다. 신묘(庚卯)에 에조참판(禮曹參判)으로서 조그만 일도 이하여 파직되었다가 얼마 안되어 형조 판서(刑曹判書)를 제수 받았다. 임진(壬辰)에 왜적이 깊이 들어오자 임금의 행차가 서쪽으로 파천하게 되었는데, 공은 따라서 고양(高陽)까지 갔었다. 그러나 이때 마침 공의 네째 아드님이 순번사 종사관(邊邊使從

● 아천군 시장(鵝川君謚狀)

증대광보국 승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 영경연 홍문관·예문관·총추관·관상감사·세자사·아천부원군 행 추충
분의 평나공신·정헌대부 예조판서 겸 지의금부사·오위도총부 도총관·아천군 이공 시장 (贈大臣輔國崇祿大夫議
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世子師鵝川府院君 行推忠奮義平難功臣 正憲大夫禮曹判書兼知義
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 鵝川君 李公謚狀)

증백현집

공(公)의 휘(諱)는 증(增)이요, 자(字)는 가경(可謙)이요. 자호(自號)는 북애(北崖)이다. 한산이씨(韓山李氏)는 본
래부터 대족(大族)으로 일컬어 지는데, 상세(上世)에 자성(自成)이 있었으니 정읍현감(井邑縣鑒)을 지냈고, 비서감
승(秘書監丞)을 증직(贈職) 받았으며, 벼슬을 올려 도첨의 찬성사(都僉議贊成事)가 되었다. 八대조(代祖)는 곡(穀)
이니 도첨의 찬성사(都僉議贊成事)로서 호(號)는 가정(稼亭)이요, 가정의 아들은 죽(穡)이니 한산伯(韓山伯)이요.
호(號)는 목은(牧隱)이다.

목은(牧隱)이 종선(種善)을 낳으니 지종주 증 영의정(知中樞 贈領議政)이요, 이분이 계전(季甸)을 낳으니 학성부
원군 증 영의정(韓城君 贈領議政)이다. 고조(高祖)의 휘(諱)는 우니(內) 대사성 증 참판(大司成 贈參判)이요, 증조(曾
祖)의 휘(諱)는 장운(長潤)이니 봉화현감 증 이조판서(奉化縣鑒 贈吏曹判書)요, 조부의 휘는 질(秩)이니 한성군(韓
城君)이요, 아버지의 휘는 지숙(之叔)이니 종묘서령 증 이조판서 한평군(宗廟署令 贈吏曹判書韓平君)이다. 삼대(三
代)가 영화롭게 추증(追贈)된 것은 공의 책훈(策勳) 때문이다. 어머니는 선산김씨(善山金氏) 증 정부인(贈貞夫人) 진
사(進士) 필신(弼臣)의 마(馬)이다.

공은 증종(中宗)二十년 을유(乙酉)에 날았는데, 어려서부터 이미 뚜렷이 기도(器度)를 이루었으며, 문장(文章)에
있어서도 동배(同輩)들의 주양(推鉤)을 받았다. 기유(己酉)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경신(庚申)에 문과(文
科)에 뽑혀 승문원(承文院)에 들어갔다. 신유(辛酉) 가을에 아버지(父) 상사를 당하여 3년 동안 여묘(廬墓)를 마치고,
갑자(甲子)에 홍문관 정자(弘文館 正字)가 되었는데, 권리있는 간사한 무리들의 미움을 받아 나가서 북도평사(北道
評事)가 되니 맑은 의논을 하는 자들이 예선히 어졌다.

遠十七乘北星襄出 猶歎北星實邦之情 羽儀 王庭極顯極榮 三讓不受鹽大司成 深出中心得謙之場 利涉大川實惟謙孚

壽七十六

位在正嗣 子五丈夫盛莫因京 不其多福鬼神眷盈 宅馬之原是公先塋 諸此墓銘永垂厥聲

歲己亥東直廟公撰是銘判校族祖與伯父謀刻未就爲後孫恆五兄深與諸兄弟修小宗廟略有錢財用比具石會作兄澤尹茲士始經理以崇禎後再

乙未十月立銘後子孫多米錄又或隴職並諱于後陵女洪暉元種判校文中樂稽文司評朴承後金枕弟率卞搏沈若湖穆文李時鳳鄭勃潤雨男博

恭奉瑞用明河縣令謙廷璽吏曹參列男演泰事津郡守汎女進士尹指監司尹擊徐文濟副提學金萬吉生員徐宗善廷龍郡守男奏縣監澤文科府尹

漢進士漢府使女朴泰正時雨男漕武科漁堤女恭奉沈樞金領佐商市都守後公再從弟鳴谷公山甫男漁奉事漢郡守行雨男徒女朴成進博男秉一

二幼洞男秉迪秉德秉直秉福漢子秉德漢男秉元秉登博男秉哲恭奉沈男秉常更曹正郎濟男秉鼎參奉秉觀一幼澤男秉謙漢男秉泰生員秉恒漢

男秉健漢子秉文浦男秉天津男秉淵縣監秉成佐郎注男秉彦世重道重秉元出一幼泰重秉益出泰重台重貳重秉哲出一幼橫重秉天出恒重秉

測出一幼秉一三男秉鼎二男秉德秉常秉謙秉恒秉文秉成各一男泰重橫重各一男皆幼若匪深慶可無後憂側出廷芝生河涉謙廷茂生養承殊穎

側股而生恭濟和男廷芳生演先考側出秘若外豪繁不盡載寫序銘者李志定曾孫也寫篆及識者尹華男也玄孫漢謙

淳朴淳洪聖

民李俊民及他數公預講壽高以備後患公名亦與其見重一世繫國家安危如此公歿歷七世孫也考諱之板 宗廟嘗令

屠史曹判書祖

諱秩輔其君

曾祖諱長潤奉化縣監 曾更曹判書高祖諱瑞大司成 曾先判皆公策勳贈也妣善山金氏進士第臣之女也公生五男二女男曰慶洪生

員娶士人安

達女曰慶慈余與娶察訪權悟女曰慶深杭御使娶縣令李潤女曰慶流兵曹佐郎娶食知趙道女曰慶漫嘉善郡守娶節度使余得運女良
選御官尋趣

次遇通政縣監李繼衡室子慶河典醫監余奉慶洪生一男繼縣監三女遇生員朴由孕繼士宋希得元井金子玄慶繼無子子弟之子繼慶深
生一女遇文

科通政府使李志定劉室子和萬戶慶流生一男濟文科通政府使二女遇別坐權使通政牧使全季誠慶深生三男長繼士人次繼文科正郎
即後於恭判

者也次模士人六女達進士中大業生員李時烟縣監命導曾通政縣令安應昌士人辛委進士趙文馨柳經三男景樞武判官景肅觀察使景
鉅府使李繼

二男孝伯通政參軍士人女達嘉善府使李宗一嫂無子以繼子潤而後續二男廷璽縣科大司諫廷璽士人樞三男時雨士人商雨進士潤雨
士人即繼於

慶子也繼一男瑞雨士人樞一男行雨士人內外曾玄孫三晩二十餘人亦盛矣壬辰變佐郎公爲助防將從事戰死尚州 大驚辛酉宰百僚
多後者公馳

到高陽聞子訃驚慟氣絕亦後悔後從西向必痛哭流涕欷問臨 行在拜大司憲今廷璽仕路甚顯當天興忠烈有比報耶終曰 收隱之
後世有令名

事庚辰 聖節使赴京癸酉一日六遷自吏曹正郎歷檢詳舍人執義典諭言提學至承旨超自爲通政大夫在通政內歷兵戶刑三曹參議判決事都承旨

外歷黃海忠清今羅慶尚道觀察使慶尚則病不赴乙酉超資爲嘉善大夫後又超嘉義大夫在嘉善嘉義歷刑禮吏三曹參判漢城左右尹副提學大司

副提學大司

憲西義禁府事己丑以諫長參贊癸巳新經大亂國事草創公職宗伯憲章禮儀燦然有可觀者庚子十月卒春秋七十六訃聞 上大夫在賓憲

正憲整刑禮工三曹判書議政府左右參贊癸巳新經大亂國事草創公職宗伯憲章禮儀燦然有可觀者庚子十月卒春秋七十六訃聞 上

慶悼親王

官致祭 命復亂前禮葬之典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鶴川府院君辛丑二月葬于廣州突馬里從先塋也配貞敬夫人慶州李氏新禮元

勳陽平之後司直夢龍之女也事舅姑以孝遇親戚以恩訓子孫嚴而有法晚從諸子于郡縣務間省養邑人皆頌其德後公十三年壬子卒春秋八十二附

公墓在公爲人正直不可往弘文正字忤權奸左遷北隣性又清儉不治家產位致宰列自奉如寒士季友出天辛酉外雖丙子內雖瓦殿盡禮皆墮基三年

其猶慕終身不棄生日不設宴食新必待伯氏典薄公食亦食弟妹弱之者皆依歸焉過國忌疎遠代飢食素朋友喪亦不肉至老不已少負文名登第除

拜必帶知製 教天使至從事橫相時文士甚衆望皆屬公未嘗以此日多三拜大司成言不仕曰國子師儒非淺學可堪識者多其讓退甲午價流見認教

者被斥雖心知竟者畏莫敢言時公于慶僕爲掌令憲公去就勉直言不諱橫機少止而壬辰六七歲僕勤其橫趙憲上疏陳制僕之策請召成

李增神道碑

所在地：城南市 益善區 蔴內洞

時代：崇禎丙午年（一六九五）

撰書人：鄭斗卿撰，李慶休書，尹德駿篆

規模：總高二三三cm，碑高二一九cm，幅八六cm，厚三四cm

〔碑文〕

有明朝鮮國 厲大臣諱國崇祿大夫諱政府領議政兼領 通鑑弘文館藝文館春秋館職象監事
奮義平難功臣正憲大夫禮曹判書兼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官鵝川君李公神道碑銘并序

嘉 善 大 夫 兵 曹 金 判 兼 弘 文 館 提 學 鄭斗卿 撰

外 五 代 孫 嘉 義 大 夫 禮 曹 金 判 兼 同 知 義 禁 府 事 李慶休 謹書

外五代孫資參大夫史曹判書兼知義禁府事同知 通鑑春秋館事五衛都摠府都摠官 世子右賓客 尹德駿 謹篆
韓山人水部員外郎李種託王父墓誌按公諱增字可謙號北莊生子嘉靖乙酉二十五學司馬三十六登第補承文正字後除弘文正字考積
歷六曹則歷

戶兵刑禮吏鄭王堂則歷正字博士修撰校理憲府則歷侍郎平院則歷正言獻納外任則拜咸鏡道北評事及京畿都事奉 合則戊辰天使
時拜遠接從

없다. 희의 측실 소생인 정지(廷芝)는 하(河) · 섬(涉) · 담(瀆)을 날았다. 정무(廷茂)는 쳐(灘) · 영(泳) · 수(渉)를 날았고, 전의 측실 소생인 은우(殷雨)는 철(澈) · 즈을(濟)을 날았다. 화의 아들 저우방(廷芳)은 현(演)을 날았다. 선고(先考)의 측실 소생은 편(漣)이 있다. 외손은 번성하여 모두 다 기록하지 못한다.

서명(序銘)을 쓴 자는 이지정(李志定)의 증손이며, 전액(篆額)과 지문(識文)을 쓴 자는 윤번의 아들이다.

현손(玄孫) 침은 삼가 기록한다.

배종학(伴兄) 백(澤)이 고향의 원(原)으로 내려와 비로소 이동을 시작하여 숭장(崇禎) 후 재음미(再乙未)十月에 이 비석을 세우게 되었다. 그 후의 자손들이 많이 기록되지 않았고 또 흑직(職)이 오른 자도 있어 이를 아울러 기록하는 바이다.

화(穂)의 딸은 홍수원에게 출가하였고, 전은 판교(判校)가 되었으며, 그의 딸은 선창에게 출가하였다. 제의 딸은 사평(司評) 박수후(朴承後) · 김광 · 참봉 벼박(卜搏) · 심약호(沈若湖)에게 출가하였다. 엄의 딸은 이시운(李時胤) · 정방(鄭勃)에게 출가하였다.

윤우(潤雨)의 아들로는 참봉이며, 서우(瑞雨)의 아들로는 현령인 경과 염이 있다. 정기(廷夔)는 이조참판으로 아들로는 봉사(奉事)인 자와 군수(郡守) 행 그리고 향(汎)이 있으며, 딸은 친사(親嗣) 윤번 · 서문체(徐文濟) · 부제학 김만길(金萬吉) · 생원 서종보(徐宗普)에게 출가하였다. 정몽(延龍)은 군수를 지냈으며, 아들로는 현감 오 · 문과에 급제하여 부윤(府尹)으로 있는 백(澤) · 친사 혁(渙) · 부사 집(漢)이 있으며, 딸은 박태정(朴泰正)에게 출가하였다. 시우(時雨)의 아들 현은 무과에 급제하였으며, 그밖에 흡파식(湜)이 있으며, 딸은 참봉 심하 · 김석좌(金碩佐)에게 출가하였다. 상우(商雨)는 군수를 지냈는데 공의 재종제(再從弟) 명곡옹(鳴谷翁) 산보(山甫)의 후사를 이었으며, 아들로는 봉사 정 · 군수 속(速)이 있다. 행우(行雨)의 아들로는 염이 있으며 딸은 박성진(朴成進)에게 출가하였다.

부(溥)의 아들로는 병일(秉一)이 있으며, 나머지 둘은 어리다. 정의 아들로는 범적(秉迪) · 범의(秉毅) · 범직(秉直) · 범복(秉福)이 있으며, 범의 아들은 범덕(秉德)이다. 자의 아들은 범원(秉元) · 범익(秉益)이며, 혁의 아들은 참봉 범철(秉哲)이다. 향의 아들은 이조정랑 범상(秉常)이다. 오의 아들로는 참봉 범정(秉鼎)과 범관(秉觀)이 있으며, 하나는 어리다. 학의 아들은 범경(秉謹)이며, 혁의 아들로는 생원 범태(秉泰)와 범항(秉恒)이 있다. 진의 아들로는 범전(秉健)이 있으며, 헌의 아들은 양자 범문(秉文)이다. 정의 아들은 범천(秉天)이며, 속의 아들로는 현감 범언(秉蘊) · 좌랑(佐郎) 범성(秉成)이 있다. 염의 아들로는 범언(秉彦)이 있다.

세종(世宗) · 도중(道重)은 범원(秉元)의 소생이며, 하나는 어리다. 태종(泰重)은 범언의 출생이며, 화종(華重) · 태종(台重) · 기종(箕重)은 범철의 소생이고, 둘은 어리다. 찬종(讚重)은 범천의 소생이며, 항종(恒重)은 범언의 출생이며, 하나는 어리다. 범일은 그남을 두었으며, 범경은 그남을 두었고, 범의 · 범상 · 범경 · 범항 · 범문 · 범성은 각기 그남을 두었다. 태종 · 찬종은 각각 그남을 두었으나 모두 어리다. 서자(庶子)의 자손인 경하(慶河)는 후손이

의 아들 행우(行雨) 또한 사이이다.

그밖에 내외의 종현손이 10여인이나 되니 또한 가문이 번성하였도다.

인친왜란 당시 좌랑공(佐郎公)은 조방장(助防將)이 되어 종사(從事)하다가 상주(尙州)에서 전사(戰死)하였다. 이 때 대가(大駕)가 규직(規直)하게 서행(西幸)하여 백료(百僚)들 중 뒤떨어진 자가 많았다. 공 또한 달려 가다가 고양(高陽)에 이르러 아들의 부음(鉢音)을 듣고 놀라 통곡하다가 기절하여 뒤에 처지게 되었다. 이에 매양(埋葬) 뒤에 떨어지게 된 것을 한(恨)하여 서쪽으로 향하여 반드시 통곡하며 노동을 흘렸다. 가을에 공은 행재소(行在所)에 나아가 왕을 뵈었는데 대사헌(大司憲)을 배수 받았다. 지금에 이르러 정기(廷變)의 벼슬길이 매우 현단(顯達)하게 되었으니, 어찌 하늘이 충렬(忠烈)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보답을 한 것이 아닌가? 명(銘)하기를

목온(牧隱)의 후손으로 세상에 아름다운 이름을 낸 사람이 있었으니, 7대(代)를 내려와서 북애(北崖)가 정출(挺出) // 捷出 // ト杜甫 // 自謂顛撫出立發要路津 하였도다.

아! 북에는 실로 국가의 기둥이었으니 왕정(王庭)의 법도(法度)를 점이 지극히 현달(顯達)하였고 지극히 영화로 웠다.

대사성(大司成)의 직을 세번씩이나 사양하고 받지 않았으니 사양한 것은 마음 속에서 진심으로 나온 것이며 겸양(謙讓)의 청송을 들었으도다.

큰 뱃물을 쉽게 전년 것은 실로 겸향(謙享)을 누렸던 배문이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수(壽)는 76세를 누렸으며 지위는 정경(正卿)에까지 미쳤도다.

아들 다섯은 백색하여 경내(京內)에서는 전출자 없었으니 공의 태고난 복(福)이 많지 않았다면 귀신(鬼神)들이 그 가득함을 방해했으리라.

돌마(突馬)의 어머니 공의 선령(先靈)으로 이 묘명(墓銘)을 새기어 영원히 그 명서 전하리라.

기해년(己亥年)에 동명(東溟) 정공(鄭公 · 鄭子卿)이 이 명(銘)을 지었는데, 판교(判校) 족조(族祖)가 백부(伯父)와 함께 이 글을 들에 새길 것을 계획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여 후손들에게 한이 되었다. 다섯째 형인 속(速)이 여러 형제들과 더불어 소종계(小宗契)를 조직하여 약간의 돈과 재용(財用)이 마련되어 이것으로 석물(石物)을 갖추게 되었다. 이

공은 목은선생(牧隱先生)의 7세손으로 고(考) 휘 지숙(之叔)은 종묘서령(宗廟署令)을 지내고 이조판서에 증직되었다. 조(祖) 휘 질(秩)은 한성군(韓城君)이다. 증조(曾祖) 휘 장운(長潤)은 봉화현감(奉化縣監)을 지냈으며 이조판서에 증직되었고 고조(高祖) 휘 우는 대사성(大司成)을 지내고 참판에 증직되었으니 이것은 모두 공의 책훈(策勳)으로 증직된 것이다. 비 선산김씨(善山金氏)는 친사 괸신(弼臣)의 딸이다. 공은 五品(五等)에 놓았는데 장남 경홍(慶洪)은 생원으로 사인(士人) 안연(安廉)의 딸에게 장가를 염이었다. 차남 경함(慶渾)은 참판으로 활방(察訪) 권오(權悟)의 딸에게 장가를 염이었다. 세째 경심(慶深)은 통제사(統制使)로 현령(縣令) 이운(利潤)의 딸에게 장가를 염이었다. 넷째 경류(慶流)는 병조좌랑으로 철지(鐵知) 조린(趙璘)의 딸에게 장가를 염이었다. 다섯째 경황(慶滉)은 가선대부로 군수를 지내고 철도사(節度使) 서둘운(徐得運)의 딸에게 장가를 염이었다. 여덟째 장녀는 판관(判官) 유인(劉仁)에게 출가하였고, 둘째는 통정대부 태감 이개(李繼)에게 출가하였다. 측실에서 낳은 아들 경하(慶河)는 전의 갑참봉(典醫監參奉)이다.

경홍의 아들 최은현(希隱)이며 딸 쟁은 생원 박유부(朴由孚) · 진사 송희득(宋希得) · 좌운(左尹) 김수현(金守玄)에게 출가하였고 경함은 아들이 없어서 동생의 아들인 전으로 후사를 삼았다. 경심은 딸 하나를 낳아 문과에 급제하고 통정대부의 품계에 있는 부사(府使) 이지정(李志定)에게 출가시켰고, 측실에서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화(和)로 만호(萬戶)이다. 경류는 남을 낳았는데 제로 문과에 급제하여 품계는 통정대부에 이르렀고 부사(府使)이며 딸들은 벌좌(別佐) 권령 · 통정대부 목사(牧使) 김효성(金孝誠)에게 출가시켰다. 경황은 남을 낳았는데 장남은 업으로 사인이며 둘째는 전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청랑(正郎)에 이르렀는데 이가 활판(活判)의 후사를 이었다. 세째는 환으로 사인이다. 딸 여섯은 진사 신대업(申大業) · 생원 이시형(李時炯) · 현감 유태종(俞得宗) · 통정대부 현령 안음창(安應昌) · 사인 신유(辛柔) · 진사 조문형(趙文馨)에게 출가하였다.

유인은 三남을 두었는데 장남 경찬(景贊)은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판관이 되었으며 둘째 경침(景錦)은 관찰사이고 셋째 경소(景紹)는 부사이다. 이제는 남을 두었는데 효백(孝伯)은 통정대부로 효숙(孝叔)은 사인이며 딸은 가선대부부사 이중일(李宗一)에게 출가하였다.

최은 아들이 없어 엄의 아들 윤우(潤雨)로 후사를 이었으며 제는 남을 두었으니 정기(廷璣)는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대사간(大司諫)에 이르렀으며 정용(廷龍)은 사인이다. 엄은 남을 두었는데 시우(時雨)는 사인이고 상우(商雨)는 친사이며 윤유(潤雨)는 사인으로 최의 후사를 이었다. 전은 남을 두었으니 서우(瑞雨)로 사인이며 환

공의 사람들은 정직하였고 아첨하지 않아 훌륭 정자(勁文正字)로 있을 때 전간(權奸)의 미움을 받아 북막(北幕..北
쪽 지방의 監營)으로 좌천(左遷)당하였다. 성품 또한 청정(淸儉)하여 가산(家產)을 다스리지 않아 벼슬이 재상의 반
열(班列)에 이르렀지만 스스로 한사(寒士.. 가난한 선비)와 같이 살았다. 효우(孝友)는 하늘로부터 받고 땅에서 신
유년(辛酉年) 아버지의 상(喪)과 병자년(丙子年) 어머니의 상을 당함에 애제(哀毀)하기를 예(禮)로 다하였으며 모두
3년 동안 어묘(廬墓)하였으며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을 죽을 때까지 마치지 않았다. 생일(生日)을 맞이 하여서도 잔
치를 열지 않았으며 별식(別食)이 있으면 반드시 배찌(伯氏.. 딸형) 전부공(典溥公)을 기다려 함께 먹었다. 또 아우
와 누이들을 공뛰한 자들은 모두 공에게 의지하였다.

나라의 기일(忌日)을 당하여는 비록 아득한 조상이라 할지라도 소식(素食)을 하였으며 봉우(朋友)의 상(喪)을 당
하여는 또한 고기를 먹지 않았으니 이렇게 하기로 면로(年耄)하여서도 그치지 않았다.

어렸을 때부터 문명(文名)을 떨쳤으며 과계에 금제하여 벼슬을 제수반Hom에는 반드시 치제교(知製敎)를 겸대하였
다. 명(明)의 사신이 온에 번상(賓相.. 遠接使)으로서 종사하게 되었는데 이 때 문사(文士)들의 중망(衆望)이 모두
공에게 속하였으나 일찍이 이것으로써 자다(自多.. 자만.. 자기가 스스로 영리하다고 생각함) 『後漢書』 朱性矜急
自多(하지 않았다). 세번씩이나 대사성(大司成)에 배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고 말하기를 『국자(國子.. 成均館)의 사
유(師儒)는 비천한 학문을 가진자가 가히 감당할 적이 아니다』라고 하니. 식자(識者)들이 그 점퇴(諉退.. 겸손한 태
도로 사양함) 『史記』 管子以謙退爲禮(管子以謙退爲禮)함을 아름답게 여겼다.

갑오년(甲午年.. 1594·宣祖二十七) 동래(同輩)들이 무고를 당하여 이를 구원하고자 하는 자까지도 배척을 당하
여 비록 마음 속으로는 원통한 줄 알면서도 두려워 감히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 때 공의 아들 경함(慶衡)은 장령
(掌令)으로 있으면서 공에게 거취(去就)를 묻자. 직언(直言)하기를 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니 화의 기미가 크게 번
지지 아니하였다. 일진왜란이 일어나기 6·7년전 왜(倭)의 기세가 매우 칭포함에 조현(趙憲)은 왜(倭)를 진제(陳
制)할 책략을 청하는 상소(上疏)를 하였다. 이에 왕께서는 성흔(成譚)·박순(朴淳)·홍성민(洪聖民)·이준민(李俊
民)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불러 미리 주획(籌策.. 이해관계를 해아려 생각한 회) 『史記·高祖紀』를 강론케 하여 후
환(後患)에 대비하였는데 공의 이름 또한 여기에 속하여 있었으니 일생이 소중하게 보이고 국가의 안위(安危)에 연
계된 것이 이와 같았다.

(承旨)에 이르렀으며, 품계(品階)가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올랐다.

통정의 품계에 있을 때 조정 안에서는 봄·호·철 (三曹)의 참의와 판찰사(判決事)·도승지(都承旨)를 지냈으며, 외직으로 나가서는 황해(黃海)·충청(忠淸)·전라(全羅)·경상(慶尙) 四道(四道)의 관찰사(觀察使)를 지냈으나 경사도에는 병으로 부임하지 못했다. 을유년(乙酉年· 一五八五, 宣祖 一八)에는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승진하였으며, 그 후 가의대부(嘉義大夫)로 승진하였다. 가선과 가의의 품계에 있을 때는 형·예·이 三조의 참판·한성좌·우윤(漢城左右尹)·부제학(副提學)·대사헌(大司憲)·동의금부사(同義禁府事)를 역임하였고, 기축년(己丑年· 一五八九· 宣祖 二二)에는 간장(諫長· 大司諫)으로서 정여립(鄭汝立)의 옥사(獄事)를 국문(鞠問)하는데 참여하여 오로지 난을 평정하는데 힘써 사람들이 모두 이를 칭송하였다.

경인년(庚寅年· 1590· 宣祖二十三) 평군공신(平難功臣) 三등에 책훈(策勳)되었고 아천군(鶴川君)에 봉하여졌다. 신묘년(辛卯年· 1591· 宣祖二十四) 겨울에는 형조판서에 배수되었고 품계가 자헌대부(資憲大夫)로 올랐다. 후에 또 품계가 정원대부(正憲大夫)로 올랐다. 품계가 자헌과 정헌에 있을 때는 형· 예· 공조의 三조 판서(判書)와 의정부좌· 우찬찬(議政府左右贊贊)을 역임하였다. 계사년(癸巳年· 1593· 宣祖二十六)에는 대난(大亂)을 겪은 국사(國事)의 초창기(草創期)로 공은 종백(宗伯· 禮曹判書)의 직에 있으면서 현장(憲章)과 예의(禮儀)에 힘써 찬언(燁然)히 가히 불만한 공적을 쌓았다. 경자년(庚子年· 1600· 宣祖三十三)十月에 돌아가니 춘추(春秋)七十
세이다.

부음(鉢音)을 듣고 왕께서는 전도(震悼)하시며 철조(禡朝)를 끊으시었고 관원을 보내어 치제(致祭)케 하였으며 난(壬辰倭亂) 이전의 예장(禮葬)의 법전(法典)을 회복시키라는 명을 내리시고 대광보국 승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아천부원군(鶴川府院君)에 증직(贈職)을 하였다. 신숙민(申叔民) 후묘(一六〇一·宣祖三四) 二월 광주(廣州) 둠마리(突馬里)에 장사지내니 이것은 선영(先聖)을 좋은 것이다. 배(配) 정경부인(貞敬夫人) 경주 이씨(慶州李氏)는 신라(新羅)의 원훈(元勳)인 암평(諤平)의 후손인 사직(司直) 동원의 파(派)이다. 시부모를 섬김에 효(孝)로써 하고 친척들을 대할 때에는(恩)으로써 하였으며 자손들을 가르침에 엄하게 하였으니 모두 병도에 합당하였다. 나아가 들어 아들들을 키우아 군현(郡縣)으로 나갔었는데 정사(政事)는 간략히 하는데 힘쓰도록 하고 비용을 줄이는데 힘쓰도록 하니 고을 사람들이 모두 그 덕(德)을 칭송하였다. 공보다十三년 후에 돌아가니 춘추八十·세로 공의 묘 원쪽에 부장하였다.

● 이종신도비[李增神道碑]

유명조 선숙 증대광보국 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 영경언 흥문관 예문관 춘추관 판상감사 세자가 아천부원군 시의
간공행 추증문의 정난공신 정현대부 예조판서 겸 치의 금부사 오위도총부도총관 아천군 이공신도비명명서 (有明朝
鮮國贈大臣輔國崇祿大夫議政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鶴川府院君公行推忠奮
議平難功臣正憲大夫禮曹判書兼知禁府事五衛都提府都提館鶴川君李公神道碑銘并序)

가선대부(嘉善大夫) 병조찰판겸 흥문관제학 정부경(鄭甫卿)은 글을 짓고

외(外) 五대손 가의대부(嘉義大夫) 예조참판 겸 통지의 금부사 이지희(李震熙)는 삼가 글을 썼으니

외(外) 五대손 자현대부(資憲大夫) 이조판서 겸 지의금부사 동지경연(同知經연) 춘추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 세자우빈객(世
子右賓客) 윤덕준(尹德駿)은 삼가 전액(纂額)을 하다.

한산인(韓山人) 수부 원외랑(水部員外郎) 이전이 그의 왕부(王父·祖父)의 묘명(墓銘)을 부탁하였다. 살펴보건데,
공(公)의 휘(諱)는 증(增)이요 자(字)는 가겸(可謙)이며 호(號)는 북애(北厓)이다. 가청(嘉靖) 을유년(乙酉年·一五
二五, 中宗 二〇)에 출생하여二十五세에는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으며, 三十六세에는 과거에 급제하여 술운원
장자(承文院正字)에 보임(補任)되었고, 그 후에 흥문관정자(弘文館正字)에 제수되었다.

공의 이력(履歷)을 살펴보면, 六조(六曹)에서는 호(戶)·병(兵)·형(刑)·예(禮)·이조(吏曹)의 랑(郎)을 역임하
였으며, 육당(玉堂·弘文館)에서는 정자·박사(博士)·수찬(修撰)·교리(校理)를 역임하고, 사현부(司憲府)에서는
지평(持平)을, 사간원(司諫院)에서는 정언(正言)과 현납(獻納)을 역임하였다. 외직(外職)으로 나가서는 함경도 북
평사(咸鏡道北評事)와 경기도사(京畿都事)를 역임하였다. 왕의 명령을 받든 것으로는 무진년(戊辰年·一五六八, 宣
祖二) 명(明)의 사신이 왔을 때 원적사 종사관(遠接使從事官)을 배수받았으며, 경진년(庚辰年·一五八〇·宣祖一
三)에는 성절사(聖節使)로서 중국에 다녀왔다. 계유년(癸酉年·一五七三, 宣祖六)에는 하루 동안에 관직을 六차례
나 옮기어 이조 정랑으로부터 검사(檢詳)·사인(舍人)·집의(執義)·전한(典翰)·자제학(直提學)을 역임하고 승지

仕宦之盛爲世所稱是若公之默歸者苟焉此事近古公之厭意實無先裕後有如此者而顧公行德無能聞
發墓道之埋沒久矣此先親所以每舉舊聞以爲子孫之責而今日之役成於觀察公秉淵與焉於是乎庶無憾
焉文將就石而又無與素質觀察公九原雖作俯仰泣然重有莫逮之慟悲夫先綏隣亦懿簡公玄孫

崇禎紀元後丙戌十一月 日 後學通訓大夫白川郡守秉淵謹述生員秉健謹書進士矣重謹篆

伐石亟爲是役者始舉而公則疾病遂以石托家姪全州判官秉鼎以文囑族姪白川郡守秉淵而卒越一歲而碑成秉淵乃歿次第三代遺事曰縣監公諱長潤字粹然韓山李氏大司成諱堯之長子牧隱先生之玄孫大司成公以上世系俱載懿簡公碑文公以皇明景泰六年乙亥生嘉仕例遷由廣興倉主簿歷覽尼山奉化兩縣卒於嘉靖七年戊子享年七十四贈資憲大夫吏曹判書韓原君公天性寬仁謙厚平生無疾言淡色爲治以恤民爲務嘗曰凡爲官者其下有罪且置而思之吾之怒可解無倉卒傷人之應人以爲格言淑人高靈朴氏縣監諱仁孝之女判書諱蔓之曾孫從公之四子長韓城君也次齊縣令大德縣監次程副護軍孫之蕭世稱士寧先生曾孫領議政山海吏曹判書山甫晉出二房曰韓城君諱秩字子序以成化十年甲午生戊午中生員既仕用治行建典七郡文化尚州蔚珍陽川湖寧德川長備也陞通政巡壽職襲先祖勳封卒於嘉靖三十九年庚申享年八十七公已盡艾志虛明敏筆畫道能坐未嘗跋倚譽未嘗裸袒好戴書坐處不去手於追遠一節誠敬篤至宿齋戒躬薦獻時節省暮益虛老少如一日子弟疲於助祭莫敢望焉恪謹奉公未或有媿避嘗曰凡公會吾不敢後人也一時以異人稱之夫人延安金氏府使諱鍇賢之女質成諱汝和之曾孫衿陽新林洞某原即其別室後配茂松尹氏別坐凌之女判中樞諱汎之曾孫附公墓三子長之薰次之闡贈領議政次郎宗廟署合公孫吏曹判書慙出於議政曰宗廟署令公諱之表字大有生於某年月卒於嘉靖四十年辛酉以懿簡公貴贈純忠輔許功臣正憲大夫吏曹判書韓平君淑人善山金氏進士弱臣之女附焉四子長垣與第次懿簡公也次懿次炳金三府君平日言行今幾於泯沒無傳雖屢而存雖庸行綱節不敢不書然縣監公臨民仁紀之政韓城君居家孝謹之風因其一二而大致得之性兼冲遜悌詳順而敦厚源之深而流之長積於前而施於後者匪春觀於何哉斯觀察公意也若夫令府君世代差近事蹟全亡得書其終厥終年而已尤豈非後裔無已之恨哉於子姓近而顯者皆書其遠者其外派者具于他碑秉淵於此復有所私感於心者秉淵曾受於先親都正公曰韓城君性至孝每家祭祝曰貧不能盛祭願子孫榮立無替報本後公之孫與從孫同時爲翰相者四人

奉化公以下三世遺事碑

所在地：城南市 盆穀區 蘭內洞

時代：崇禎紀元後丙戌年（一七二八）

撰書篆：李秉潤 撰、李秉健書、李箕重篆

規模：總高二九五cm、碑高一九八cm、幅八〇cm、厚二六cm

〔碑文〕

韓山李氏三世遺事碑

漢之南廣州治西三十里爲突馬里有山曰靈長蔚然翔釐于野其溪流演而渟其根柢蒼而密中間隱然有題
神道曰 有明朝鮮國禮曹判書謚懿簡公者吾五代祖北崖先生玄辰之藏也自懿簡公墓同貢相前同爲良
原者有上下二位焉曰奉化縣監府君韓城君府君其左壬原一位焉曰 宗廟署令府君即懿簡公以上三代
而三代碑碣闕焉獨縣監公墓表篆官職姓譜而已凡我後承何以考焉嗚呼芝草豈真無根醴泉豈真無原有
來讀懿簡公墓前之石而若祖若禱若冥垂希之休昧昧然無徵其不幾乎不知所本哉今之諸子孫去三府君
遠且過二百年近或百更十年而覆焉蓋皆所謂耳詳也極惟先德遺風蕭然在鄉黨傳誦之間者固莫能承接
其詳或庶幾講求大體也懿簡公玄孫觀察使康莫祥家乘尤盡心於縣監公以下事實搜訪遺聞稍成籍記開
略貿多紙不能各為本末則三祖之歸合于一語以為徵後之間者觀察公實有志也建丙午秋按節海西捐俸

으로 의자공의 현손이다.

승정(崇祐) 기원후 제무신(戊申) 十一월 일

후손 통정대부 백천군수(白川郡守) 병연(秉淵)은 삼가 글을 치고
생원 병건(秉健)은 삼가 글을 썼으며
진사 기종(箕重)은 삼가 전액(兼額)을 함.

一·明宗一六) 신유(辛酉)에 돌아갔다. 의간공이 현달(顯達)함으로 하여 순종보조공신 정헌대부 이조판서 한평준(純忠輔祚功臣正憲大夫吏曹判書韓平君)에 증직되었다. 속인(淑人) 선산김씨(善山金氏)는 진사(進士) 필신(弼臣)의 딸로 공과 함께 부장되었다. 네 아들을 낳았으니 장자 원(元)은 전부(典簿) 요·둘째는 의간공이며 세째가 보(堡)·넷째가 경(卿)이다.

가만히 생각해보건데 三부군(三府君)의 평소의 언행(言行)은 지금 거의 미흡(混沒)되어 전하지 않으며, 겨우 몇 가지의 일만 전하여지니 비록 용행세절(儲行細節)이라도 감히 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현감공이 배성을 다스림에는 인서(人慤)의 정치로 일하였고, 한성군이 집에서 효근(孝謹)의 풍도(風度)로 거하였는데 이러한 한 두 가지로 인하여 겸손하고 화평하며 자세하고 문후(敦厚)함을 크게 얻었으니 그원이 깊으면 흐르는 것 또한 진 것이다. 전후로 하여 착한 일을 말은 것을 이것이 아니면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이것이 관찰공의 뜻이다. 영부군(榮府君)은 세대(世代)가 조금 가까운 태도 사적이 전부 망실되어 글을 얻은 것도 그 종직(終職)과 종년(終年) 뿐이니 어찌 후에가 아니라 도 한(恨)하지 않겠는가?

자손들 중에 가깝고 현급한 자는 모두 기록해야 할 것이고 먼 자와 그 외손들은 다른 비석에 기록되어 있으니 병언은 이것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사감(私感)이 있었었던 것이다. 병언은 일찍이 선친(先親) 도정공(都正公)에게 들은 바, "한성군의 성품은 효성이 지극하였고 대양(大良)의 제사 때에는 축원하며 말하기를 「가난하여서 능히 제사를 잘 차리지 못하여서입니다. 원친대(原親代) 자손이 영화롭게 되면 보답하는 마음을 바꾸지 않겠습니다」고 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후에 공의 자손과 종손(從孫)들 중 한 번에 정상(卿相)이 된 자들이 다섯이나 되었으며 사환(仕宦)의 성세(盛勢)가 세상에 정승되게 되었다. 이것은 공의 묵도(默禱)한 효임이었다. 이것은 근고(近古)의 일로 공의 성의(誠意)가 바람이 되어 실로 선조에 대하여는 돈독하고 후손에 대하여는 너그러운 것이 이와 같았다. 돌아켜 보건데 공은 행미(行德)을 놓히 천발(闡發)하지 못하였으며 묵도(墨道) 또한 매몰된지 오래되었다. 이거 때문에 선친은 대양(大良)에 들었던 것으로 자손들을 책망하였는데, 오늘에 이르러 억(役)이 관찰공에 의해 이무어졌고 병연 또한 참여하게 되었으니 이에 유감이 거의 없다고 하겠다.

문장(文章)을 들에 새기었으나 품질(塵質)은 함께 서술하지 못한 것은 관찰공이 이미 돌아가시어 무양(備卽)·면양(面貌)으로 내려다 볼과 위로 처다봄(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때문이니 눈물을 흘리는 끝없는 슬픔이 있다. 선친의 취는 속(速)

오·둘째 치(辟)은 현대이며·셋째 온(隱)은 현암이고·넷째 정(程)은 무호군(副護軍)이다. 손자는 지함으로 세상에 서는 토정선생(土亭先生)으로 칭송되고 있고·증손으로는 영의정(領議政) 산해(山海)와 이조판서(吏曹判書) 산보(山甫)가 있으니 모두 둘째 아들(辟)의 소생이다.

한성군은 휘가 질(秩)이요 자(字)는 자서(字序)로 성화(成化)十九년(一四七八·成宗九) 갑오(甲午)에 출생하였으며·무오년(戊午年·一四九八·燕山四)에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벼슬에 나아가서는 치행(治行)을 거듭하여 七군(郡)의 군수를 역임하였으니 문화(文化)·상주(尙州)·율진(蔚珍)·양천(陽川)·삭녕(朔寧)·덕천(德川)·장단(長湍)이 그 곳이다. 품계가 통정(通政)으로 승진하였으며·수직(督職)·해마다 정월에 80세 이상의 관원 및 90세 이상의 백성에게恩典(恩典)으로 주던 벼슬(官職)으로 선조의 훈봉(勳封)을 계승했다.嘉靖(嘉靖)三十九년(一五六〇·明宗十五) 경인(庚寅)에 돌아가니 향년 87세이다. 공은 이미 절에(歸園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뜻과 생각이 명민(明敏)하였으며 필화 또한 전장(健壯)하였다. 암아 있으면 벼슬은 일찌기 기대는 땅이 없었고 아무리 업다하더라도 일찌기 옷을 벗는 법이 없었다. 독서를 좋아하여 앉아 있으면 추원(追遠·지나간 일을 그리워 함)의 일절(一節)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성경(誠敬)을 도록 하였으며 세복에 이르러 목욕·재개(齋戒)하고 몸소 제사를 올리고 절기(節氣)마다 성묘(省墓)하기를 더욱 공경히 하여 늙으나 젊으나 한결같이 하였다. 이에 차제들이 제사를 드는 데 피곤하다고 할지라도 감히 원망하지 못하였다. 삼가 모든 공사(公事)를 살피에 혹시라도 법규를 파하는 일이 없었으며·일찌기 말하기를 구루공회(公會)에 있어서 내가 강하 다른 사람에게 두질 수 없다고 하였더니 일시에 사람들은 이인(異人)이라고 칭송하였다.

부인은 연안김씨(延安金氏) 부사(府使) 휘석현(錫賢)의 딸이며 차성(贊成) 휘여화(汝和)의 증손이다. 금양(衿陽) 신림동(新林洞) 모원(某原)이 그의 묘이다. 후배(後配)는 무송윤씨(茂松尹氏) 별좌(別坐) 휘준(浚)의 딸로 파릉주(剖中樞) 휘변의 증손으로 공과 함께 부장하였다. 세 아들을 낳았으니 장자는 지훈(之薰)이요·둘째는 지란(芝蘭)으로 양의정에 주직되었으며·셋째는 종묘서령공(宗廟署令公)이다. 손자로는 이조판서 회가 있는데 의정공의 소생이다.

종묘서령공의 휘는 지숙(之蔵)이요 자는 대유(大有)로 어제 태어났는지는 알 수 없고·嘉靖(嘉靖)四十년(一五六

지금의 여러 자손들은 三부군(三府君)께서 돌아가신지 면적은 二〇〇년이 경과했고 가까이는 백 수십년이 지나 그 사적들은 거의 사라져 버렸다. 대개 모든 자손이라는 자들이 아득한 선조의 덕과 유풍(遺風)을 생각하며 애연(哀感)한 모양(様)하게 향리(鄉里)에서 무리를 지어 이를 전송(傳誦)하고 한다. 그러나 그 상세함은 능히 두루 승절(承接)하지 못하여 거의 그 대강만을 강구(講求)할 뿐이다.

외간공의 현소(孝孫)인 관찰공(觀察公) 집이 가승(家乘)을 무처(莫阿爾음) 할에 현감공(懸監公) 이하의 사실에 더욱 마음을 다하여 찾아 구하였다. 그리하여 유문(遺問)들이 점차 책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기록증에는 권략(關略)된 것이 오히려 많아 능히 각각 본단(本末)을 이루지 못하였음으로 三조(三祖)의 아름다움을 한 비석에 학하여 서술함으로써 증표를 삼아 후세에 알려주려는 계획이 관찰공에게 실상 그 뜻이 있었던 것이다. 병오년(丙午年) 一七二六年, 英祖(英祖)가 율에 이르러 관찰공은 해서(海西·황해도) 관찰사로 나아가 녹봉(綠俸)을 내어 둘을 다듬게 함으로써 비로소 역사(役事)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을 시작하자마자 공은 병환이 생겨서 마침내비(碑)를 세우는 일을 가질(家題) 전주판관(全州判官) 병정(秉貞)에게 맡기고 문장은 죽칠(族姪) 백천군수(白川郡守) 병연(秉淵)에게 부탁하고 돌아가지 않았다. 그 후一年이 지나 비를 이루게 되어 병연(秉淵)이 이에 감히 三대의 유사(遺事)를 차례대로 저술하게 되었다. 현감공의 휘(諱)는 장운(長潤)이요 자(字)는 수연(粹然)으로 한산이씨(韓山李氏) 대사성(大司成) 우의장자(長子)이며 목은 선생의 현손이다. 대사성공(大司成公) 이상의 세계(世系)는 외간공의 비문에 상세히 실려있다. 공은 황명(皇明) 경태(景泰)六年(一四四五·端宗) 운해(乙亥)에 출생하여 서사(第仕)하였다가 예(例)에 의하여 광후창주부(廣輿倉主簿)로 옮겼으며 이산(芝鉉의 노성) 봉화(奉化) 두현의 현장을 역임하였다. 가정(嘉靖) 七年(一五二八·中宗) 二十三(二十三) 무자(戊子)에 돌아가니 향년 七十四세로 자현대부 이조판서 한원군(資憲大夫吏曹判書韓原君)에 추직(贈職)되었다.

공은 천성(天性)이 관인(寬仁)하고 겸후(謙厚)했으며 평생 질언(疾言)이나 노여워하는 빛을 나타내지 않았다. 또 백성을 다스리는 데는 흡민(恤民)하는 일에 침착했다. 일찍기 말하기를「무릇 관리(官吏)가 된 자는 그 아래 사람이 죄가 있다고 하여도 이를 그대로 두고 생각하면 나의 노여움은 가이 줄릴 수 있다. 또 갑자기 사람을 모함하지 말아야 하며 깊이 생각하여야 한다」고 하니 사람들이 이것을 계언(格言)으로 삼았다. 속인(淑人)은 고령박씨(高靈朴氏) 현감(愼毅) 인효(仁孝)의 따님이요 판서(契書) 휘 만(蔓)의 종손이다. 공은 네 아들을 두었는데 장자는 한성군(韓城君)이

비문 [碑文]

● 한산 이씨 三세 유사비 (韓山李氏三世遺事碑)

한성(漢城)의 남쪽에 있는 광주현(廣州縣)의 치소(治所)에서 三〇리(里) 떨어진 둘마리(突馬里)에는 산이 있는
데 그 이름은 영장(靈長)이다. 영장산의 초목(草木)은 무성하여 물로 나가질 못하게 하고 그 산고짜기에서 흐르는 시
냇물은 길게 흘러내리다가 정회(渟匯) 물이 고여 소용돌이(渦)를 이루며 가래나무와 잣나무들은 푸르고도 무성하다.
그 산 기슭 입구에는 신도비(神道碑) 가서 있어 표제(表題) 하기를 「유명조선국 예조관서 시의간공(有明朝鮮國禮曹
判書諡號公)」이라고 하였으니 우리 五대조 북에 선생(北星先生)의 의리(衣履)를 모신 곳이다. 의간공(懿簡公)의
묘가 있는 언덕 약간 앞의 간좌(艮坐)의 언덕에는 위 아래로 두 묘소가 있으니 봉화현감(奉化縣監) 부군(附君)과 한
성군(韓城君) 부군(附君)의 묘소이다. 또 그 원쪽 간좌(壬坐)의 언덕에 한 묘소가 있는데 이것은 종묘서령(宗廟署令) 부군
三대의 묘소이다. 三대의 비갈(碑闕)은 없어지고 유탁 현감공(縣監公)의 묘표(墓表)만이 있으나 이것 또한 관직(官
職)과 성(姓) 취(諱)만 전액(篆額) 하였을 뿐이니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상고할 수 있겠는가?
오호라! 지초(芝草)가 어찌 진실로 근원이 없이며 예천(醴泉)이 어찌 진실로 뿌리가 없을 수 있겠는가? 의간공의
묘표를 읽어봄에 조이(조상은 뜻함)들이 차한 일을 쌓아 후손에게 물려 주신 아름다운 사실들이 미미(昧昧)하게 되
어 아무런 증거가 없어지게 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그 근원을 알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집행위원

대 회 장 : 남 선 우

집행위원장 : 백 남 육

위 원 : 한충섭, 김기빈, 이인복

장은경, 한동억

향토인물 연구(아천군 이 증)

민 쇄 : 2001.12.10

발 행 : 2001.12.11

발 행 인 : 남 선 우

발 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주 소 -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96-2

<성남농업기술센터 2층>

전 화 - 031) - 781-1020, 2802

팩 스 - 031) 709-5246